

2009 제 8기 박물관아카데미 전주학시민강좌

전주의 땅과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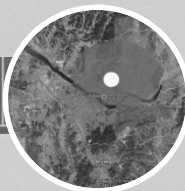


목 차

1. 전주의 풍수지리 -----	04
김두규_ 우석대학교	
2. 천년 전주 도시형태의 기원과 발달-----	18
이경찬_ 원광대학교 교수	
3. 전주의 옛길-----	36
하태규_ 전북대학교수	
4. 전주의 물길 - 개발과 보전-----	74
송경언_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5. 진안고원으로 가는 뜻-----	104
김병용_ 소설가·전북대 연구원	
6. 전주의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130
문창현_ 전북대 BK 연구교수	
7. 전주의 종교경관-----	152
최진성_ 한별고등학교 교사	
8. 조선시대의 옛길-----	172
신정일_ 문화사학자·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전주의 풍수지리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



I. 본론에 앞서 풍수이야기 하나: 현대 풍수지리의 응용

1. 풍수에서 물(水)을 돈으로 해석한다.
2. 물길의 흐름세에 따라 돈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다.

II. 풍수지리 개념

1. 개념 4가지
2. 좋은터 기본 요건과 모델
3. 기본명당도

III. 전주의 풍수지리

1. 전주의 진산(鎭山)문제
2. 양기(陽基)터로서의 전주의 문제점
3. 풍수상 전주의 문제점과 비보진압(裨補鎭壓) 풍수
 - (1) 숲정이/ 진북사/ 거북바위(전주 KBS)
 - (2)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북고사(진북사)

I. 본론에 앞서 풍수이야기 하나: 현대 풍수지리의 응용

1. 풍수에서 물(水)을 돈으로 해석한다.

SK 본사, 조선폰텔, 워커힐 호텔의 풍수 적용



그림 1 : SK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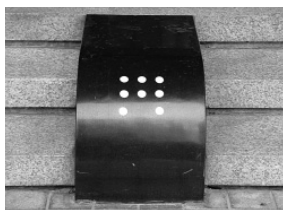


그림 2 : SK본사정문입구의 조경물



그림 5 : 조선폰텔 정문



그림 3 : 이대입구 어느 건물 앞



그림 4: 워커힐호텔 입구어느 장면

*그림 비교 도표

SK 본사(그림 1)	이대 입구(그림 3)	워커힐호텔(그림 4)	조선 호텔(그림 5)	상징
본사 건물	석탑	석벽(석벽)		높은 산(자연)
정문입구 조경물	나무	분수대		중간지대(得水處)
	청계천	거북의 입에서 나오는 물	분수대에서 솟는 물	물= 돈(재물)
	네모난水槽(물통)	네모난水槽(물통)		돈을 가두는 공간
靈龜飲水形	물이 흘러나가는 곳(水口)이 보이지 않는다.	물이 흘러나가는 곳(水口)이 보이지 않는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물은 재물이다. 재물이 거북의 입과 분수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돈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요, 물이 네모난 수조(물통)에 고이게 하는 것은 돈이 공간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며, 또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다. 즉 돈을 많이 벌자는 염원이 이러한 단순한 조경 물을 통해 드러나는데 바로 이것이 도시 건물에 풍수가 반영된 조경이다.

2. 물길의 흐름세에 따라 돈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다.



그림 6. 한강 주변 부자 동네 변천과 물길의 특징

서울이 도시화되고 부가 집중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돈이 집중되는 지역과 한강의 흐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림 6과 7에서 물길이 감싸도는 지역을 서교동(1960년대) → 여의도(1970년대) → 동부이촌동(1980년대) → 강남(1990년대) → 광진구(2000년대) → (A 지역: 0000년?)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한강변을 좌우로 하여 1960년대 서교동에 부자들이 몰렸다가 이곳이 포화되자 1970년대에는 여의도로, 1980년대에는 동부이촌동, 1990년대에는 강남, 최근에는 광진구 일부에 돈이 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곳들은 지금도



그림 7. 한강 주변 부자 동네 변천과 물길의 특징

여전히 돈 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물길에 해당지역을 감싸 돌고(환포: 環抱)있다는 점이다.

풍수에서 물길이 감싸는 것을 아주 중시하며 그 반대되는 지형지세는 아주 꺼려하는 땅이지요. 물이 감싸 도는 곳을 풍수 전문용어로 환포(環抱)라고 하는데, ‘퇴적사면’이며, 반면, 물길이 등을 보이는 곳을 ‘반궁수(反弓水)’라 하여 풍수적으로 꺼려한다. 퇴적사면, 즉 물이 환포하는 곳 돈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취락지구나 전통 도시들은 위 그림처럼 모두 배산임수(背山臨水)를 취하고 있다. 이때 산의 가장 높은 지점과 물길의 가장 먼 지점을 끝으로 하여 둥그렇게 원을 그려보면, 그때 그 원의 한 가운데 위 그림에서 ‘측정점’이라고 표기된 지점이 핵심지역이다. 그림 7에서는 ‘●’으로 표기된 지역이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터이다.

II. 풍수지리 개념

1. 개념 4가지

- (1) 땅의 성격 파악: 地氣를 파악
- (2) 토지의 하중능력 파악
- (3) 공간배치
- (4) 불완전한 땅을 완벽한 땅으로 고치기(國域 造景: 비보진압 풍수)

2. 좋은 터 기본 요건과 모델

- 배산임수(背山臨水: 枕山, 環水, 面屏)
- 명당은 넓어야 한다(廣)
- 水口는 막아주어야 한다(交鎖)
- 앞은 낮고 뒤가 높은 지세여야 한다(前低後高)
- 앞은 좁고 뒤는 넓은 대지여야 한다(前窄後寬)
-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아야 한다(東低西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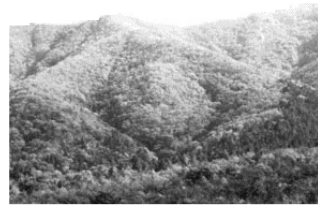


그림 8



그림 9

3. 기본명당도

오른쪽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고 풍수 용어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 풍수 용어 설명

穴(혈)	그림에서 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람이 살 집을 짓거나, 무덤으로 활용
청룡(靑龍)	穴의 왼쪽
백호(白虎)	혈의 오른쪽 산
안산(案山)	혈 앞의 산
주산(主山)	혈 뒤쪽의 산
내룡(來龍)	혈과 주산사이에 이어지는 산능선
명당	혈 앞에 펼쳐지는 넓고 평평한 땅
명당수	명당으로 흐르는 물
합수(合水)	파구(破口)라고도 하며, 혈 앞에 두 물이 합해지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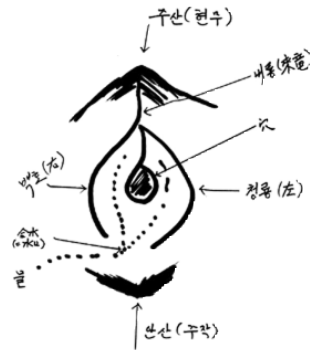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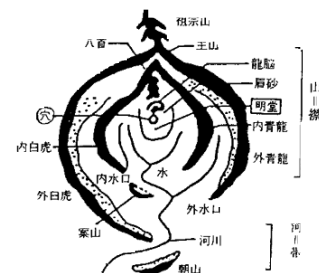


그림 11

III. 전주의 풍수지리

1. 전주의 진산(鎭山)문제

鎭山은 主山의 다른 이름으로 무덤(陰宅)과 달리 마을이나 중소대도시(陽基)의 주산을 흔히 鎭山으로 부른다. 鎭山은 마을의 경우 마을 뒷산(後山)에 해당되는데, 마을보다 큰 중소대도시의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주산(진산)은 “特立而峙得天之中(뚝 솟아 하늘 한 가운데 서 있는 모양)” 혹은 “玄武垂頭(우뚝 솟아 있으면서 머리를 수그려 주변 산을 감싸 안은 모습)” 이어야 한다고 말하나, 역사적으로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조선 세조 당시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일기 조차하였다. 세조 10년(서기 1464년) 풍수학인 최연원이 올린 상소에서 [명산보검]을 인용하여 ‘급히 뽕족한 봉(峰)을 일으켜 현무(玄武)를 정하니, 문득 이것이 참 용[眞龍]이면 주산(主山)이다.’ 라고 하였으며, [감룡경]을 인용하여 ‘또한 높은 봉(峰)이 있으면 이는 현무(玄武)이니, 현무(玄武)가 떨어지는 곳에 사신(四神)이 모이는 것이라’ 고 하여 四神사 가운데 현무와 주산(진산)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주산(진산)이 지시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地理志나 기록에 표기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주의 진산문제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전주의 진산이 어디이냐에 대해 하나는 공식적 기록(동국여지승람)에는 “건지산”이라고 적혀 있고, 또 대부분의 인용문헌에서도 건지산을 주산으로 여기고 있으나, 바로 이점이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논제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설은 기린봉, 승암산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때 정확하

게 기린봉이나 승암산이냐에 대해 명확한 적시 없이 기린봉 승암산을 아울러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위와 같은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기린봉과 승암산이 연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린봉 승암산을 주산으로 보는데, 이를 세분하여 승암산을 소조산으로 기린봉을 부모산으로, 혹은 승암산을 주산으로 기린봉을 현무로 보는 바와 같은 ‘풍수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족보의 경우 시조와 중시조에서 시작하듯, 풍수에서도 내가 사는 곳(穴處)이 있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산줄기들이 있다. 이를 일러 태조산, 중조산, 조산, 부모산 등으로 표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조산을 백두산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일 뿐, 실질적으로 태조산은 그 마을이나 도읍지에서 비교적 수십리 혹은 수백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산이나 명산 혹은 영산을 삼기도 한다.

앞에서 족보에 비유한 풍수에서 말하는 鑣山, 그리고 이것을 전주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太祖山	族譜	전주	太祖山	族譜	전주
太祖山	始祖	백두산(혹은 마이산)	胎	我	전주 시가지
中祖山	中始祖		息		
少祖山	祖	승암산(?)	孕		
父母山	父母	기린봉(玄武)	育		

전주의 진산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은 이미 풍수학자 최창조(전 서울대) 교수가 이미 여러 곳에서 제기한 바 있다.



그림 12 : 출전: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167면

2. 양기(陽基)터로서의 전주의 문제점

전주의 터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풍수용어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진산(주산)승암산(소조산 혹은 주산) 기린봉(주산 혹은 현무)
 穴(혈) 전주 시가지
 내청룡(내靑龍 南固山 → 完山七峰 → 西山)
 외청룡(외靑龍 묘악산 → 천잠산(전주대) → 황방산(서곡)
 내백호(內白虎)기린봉 → 한범리 → 기린여중(중양여중) → 유일여고 → 인후동(인후아파트) → 금암동
 외백호(기린봉 → 유일여고) → 우아동 → 신기리 → 백동리 → 건지산
 안산(案山)내백호의 끝 지점(백호안산: 전주 KBS 부근의 높은 지점)
 명당수인후동에서 흘러나와 한진고속 부근으로 빠져나가는 물(복개)
 객수전주천(현재의 위치와 달리 기린로 방향으로 흐름)
 합수현재는 고속터미널 앞 거성고속아파트 부근이나 이전에는 한진고속 부근으로 추정)

이와 같은 명당도를 토대로 할 때 과거 풍수상 전주의 문제점은 무엇은 합수처(수구방향)인 전주의 북서쪽이(그림 13) 허(虛)하다는 점이다.

지도상의 물길과 산의 흐름을 보면 승암산 기린봉이 주산이 되어야 함을 확연하게 알 수 있으며, 물길의 합수 지점이 지금은 많이 밀려나 현재 거성고속아파트 부근이었지만 전주천의 옛날 물길이 현재의 기린로 방향으로 흘렀음을 감안하면 현재 한진고속 터미널 부근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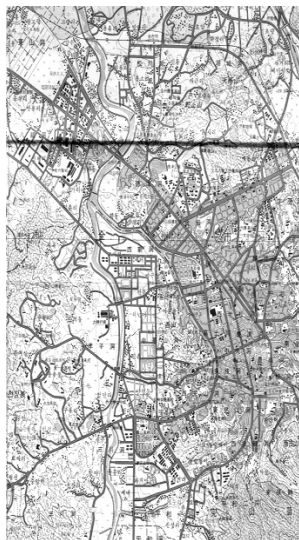


그림 13

3. 풍수상 전주의 문제점과 裨補鎮壓 풍수

전주의 허결처(虛缺處)에 대해 이미 일찍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하

고 있었다.

1541년(중종 20년) 전주 사람 50여명이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을 통해 임금에게 올린 등장(等狀)에 전주의 산세를 개괄한 대목이 나온다.

“본부(本府: 전주)는 (...)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허하여 바닥기운이 분산하겠기 때문에, 진산 이름을 건지산(乾止山)이라 하고 또한 제방을 쌓고서 이름을 덕진(德津)이라 하였으면, 절을 창건하여 건흥사(乾興寺)라 하고, 또한 서쪽에 있는 조그만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한 것이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습니다.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뒷날 청천부원군 유순정이 공신전 준례에 의해 떼어받아 개간하여 왕실 고장의 진산이 마침내 빨갳게 되었으므로 온 고을 민중들이 (...) 통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진술은 건지산을 주산으로 삼고서 하고 있지만, 건지산을 주산으로 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린봉을 주산으로 하여도 북서쪽이 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에서도 여러 가지 비보진압풍수가 시행되는데 그 하나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의 지세가 북서쪽이 공결(公決)하여 바로 그 지점이 기백(氣脈)이 누설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쪽으로 가련 산에서 동쪽으로 건지산으로 큰 제방을 쌓아 그 누설을 막고 이름을 붙이기를 덕진(德眞)이라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비보 풍수는 조선 중기까지도 마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세종 임금에서 세조 임금 때까지 활동하였던 풍수학인 문맹검(文孟儉)이 한양 도읍지의 풍수적 문제점, 즉 한양 수구(水口)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비보풍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명당의 수구에는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진압하고 막게 하는 것이 곧 옛날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 국도(한양) 수구의 안에 옛날 사람이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소나무를 심었지마는, 이 작은 산이 수구에 있지 않고서 도리어 수구의 안에 있고, 또 산이 무너져서 낮으며 소나무는 말라죽었습니다. 지금 보제원의 남쪽과 왕십역의 북쪽에 작은 산을 혹은

3개나 7개를 만들어 소나무와 왜나무·버드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좁게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 때 유학자 출신이자 풍수학인이었던 최호원은 성종16년(1485년) 도선 국사의 비보풍수를 살리자는 주장을 내놓아 당시 조정 대신들 사이의 논란이 된다. 또한 그가 대구부사로 재직 시 물길을 돌리는 일종의 비보풍수를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암행어사에 의해 파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고려의 비보풍수 전통이 조선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최호원의 상소에 언급된 비보풍수의 방법으로서 사찰, 탑, 연못, 숲 등으로 현재 전라도에서는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산간지방에서 그러한 비보풍수 유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전주의 경우, 승암산 기린봉을 주산으로 할 때 수구인 북서쪽(건지산을 주산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북서쪽이 벌어짐)이 벌어져 허하게 보인다. 이것을 비보하는 방법은 풍수지리의 고전적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풍수지리의 고전으로서 당나라 때 복응천(卜應天)의 [설심부(雪心賦)]에서는 "단(壇)이나 사당은 반드시 수구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부응하려면 과거 이곳 수구처 부근에 단이나 사당이 있어야 한다.

이미 1000년이 넘은 전주의 옛 성곽배치구조를 상상하면서 그러한 단이나 사당이 그 옛날 수구지점의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를 추측해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현재 전주 KBS 내의 거북바위, 그 근처의 모 종종의 사당, 여러 교회 등이 그 부근에 밀집하는 것에서 땅의 성격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 숲정이 / 진북사 / 거북바위(전주 KBS)

고려 이전 전주의 진산을 기린봉, 승암산으로 삼았을 때 水口인 북서쪽이 허하게 된다.

이것을 비보하기 위한 비보 풍수가 행해졌을 것인데, 그 구체적인

비보물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진안, 장수 등 산간지방에서는 마을 입구 水口가 虛한 곳에서 보이는 거북바위, 당산나무, 돌탑 등의 유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주 역시 고려 이후의 지금과 같은 성곽배치구조이전에서는 충분히 水口 부근에 당산나무, 사당, 돌탑 혹은 거북바위 등을 조성했으리라는 추측이다.

그리고 그과 같은 비보풍수물은 고려 이후 현재의 성곽배치구조로 바뀌면서도 부분적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 한진고속 터미널 까지 조성되었다는 ‘숯정’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鎭北寺나 전주 KBS 내의 거북 바위 등이 그러한 흔적으로 여겨진다.

덕진 연못이나 덕진 제방은 고려이전이 아닌 고려 이후 건지산을 주산으로 삼은 이후 북서쪽이 허결하다는 이유로 세워진 비보풍수로 여겨진다. 고려 이전의 전주의 규모가 덕진부근까지를 전주라는 공간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왜 거북바위의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안 장수 순창 등지에서 동네 입구에 조성된 거북바위들(순창 동계 구미리/진압읍 중평)을 보면 대개 수구처에 세워지져 그 수구의 허결을 보완하는 성격 이외에 마주보이는 곳이나 그 땅이 화기(火氣)가 강할 때 세워지는 진압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즉 거북바위는 허한 곳을 보완해주는 비보풍수적 성격과 강한 기운(火氣)를 눌러주는 진압풍수적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데, 전주 KBS내의 거북바위 역시 그와 같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주 KBS 부근에서 승암산을 마주보이는 승암산을 보게 되면 험석들이 완연한데, 이것을 풍수에서는 火山으로 보아 화기가 많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화기는 물의 신(水神)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북이 제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전주가 배출한 대표적 소설가 최명희가 자신의 대표작 [魂불]에서 전주의 古老들의 말을 빌려 '전주의 승암산 기린봉 등이 화기가 강하다'는 것은 말하고 있음에서도 전주의 옛 진산인 승암산 기린봉이 화기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누를 수 있는 마주보는 지점에 거북바위를 세운다. 실제 전주 KBS내 거북바위는 승암산과 마주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2)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북고사(진복사)

기린봉, 승암산을 주산으로 할 경우 또 하나 전주의 지세상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린봉 승암산을 진산(주산)을 할 때 청룡이 本身靑龍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신청룡’이란 주산(진산)에서 산 줄기가 뺏어내려 좌측을 감싸야 하는데, 전주의 경우 전주천 건너의 남고산→완산칠봉→용머리 고개→다가산으로 청룡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 풍수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산과 청룡사이에 골(즉 슬치고개에서부터 발원하는 전주천: 전주-남원간 국도)이 생겨나쁜 기운(바람/ 전염병/도둑/외적)이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고려 이전 이곳 기린봉과 승암산을 주산으로 하여 성곽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이를 비보진압하기 위해서는 비보진압 풍수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이것이 바로 동고사와 남고사로서 이 두 사찰은 전주천 상류를 사이에 두고 지근한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전주 남동쪽의 허결처를 보완해주는 비보진압 풍수물이다.단순한 절만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산성(남고산성)을 축조한 것에서, 그리고 이 두 절의 역사가 고려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곳이 비보풍수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동고사는 신라 헌강왕 2년(876년)에 도선 국사가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폐찰로 있다가 조선 후기인 현종 10년(1884년) 허주 선사가 복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도선 국사는 우리식 풍수의 원조이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보풍수론을 완성시킨 풍수의 대가로서 전국에 수많은 비보사찰을 세우게 하였다는 사실과, 동고사

부근의 산세를 감안하면 비보사찰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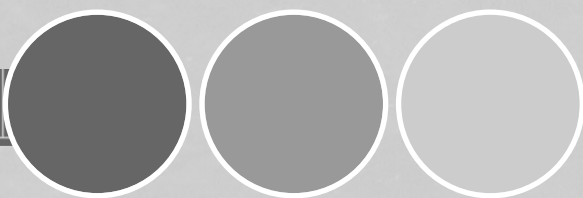
남고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4년) 때 세워진 것으로 최초의 이름이 남고연국사(南固燕國寺)였다. 남고사는 풍수상 와혈(窩穴)에 속하는데 와혈은 흔히 소쿠리 명당이나 제비집 명당이라고 부른다. 남고사 최초의 이름이 남고연국사라는 점은 이곳의 산세가 제비집 같다는 의미에서 제비연(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동고사와 남고사 뿐만 아니라 서고사 역시 비보풍수적 흔적이 있어서 동서남북 四固寺가 바로 전주의 비보풍수물임을 알 수 있다.

서고사는 후백제 견훤이 전주(완산주)에 도읍을 정한 뒤 국운의 회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908년에 창건하였으며 그 후 고려, 조선조까지 사찰로서 면모를 유지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남고사가 비보풍수로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으며 그 후 동고사→서고사 순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풍수상 그 땅의 허결처를 보완함에서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이 서고사보다는 남고사→동고사 순이었다는 사실에서 기린봉 승암산을 주산으로 할 경우 주산과 청룡사이의 허결처에 대한 문제인식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천년 전주 도시형태의 기원과 발달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



I. 머리글 : 전주, 천년의 고도

II. 전주도시형성의 기반구조로서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

1. 전주의 입지여건
2. 고대 격자형 도시 전주

III. 전주의 도시구조와 시가입지 변천과정

1. 삼국시대 전주의 성곽과 도시구조
2. 통일신라시대 전주의 도시구조
3. 건원도읍시대 전주의 도시구조
4. 읍성시대 전주의 도시구조

I. 머리글:

전주, 천년의 고도

全州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정주 초기의 전주가 어떠한 역사지리학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까지만 하여도 益山 주변의 일개 촌락적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全州가 지방통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九州五小京을 중심으로 한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 完山州가 설치된 신문왕 5년 이후의 일로 된다. 후삼국 시대에 들어서 짧은 기간(新羅 孝恭王 4年~高麗 太祖 19年)이나마 후백제 甄萱都邑地로 융성기를 맞이하였던 全州는 고려시대 이후 大都護府, 牧, 府의 하나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조선왕조에 들어서 전주는 李王家祖先居住地로서 “朝鮮根本之地”, “豊沛之郷”, “國家之郛隴”이라 하여 전라감영이 위치한 전라도 일대 대도회로서의 위용을 지니게 되었다.

전주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일이다. 통일신라시대 전주는 구주의 하나로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라는 백제 부흥세력과 당 점령세력을 완전히 구축한 뒤 문무왕 11년 6월 마지막 점령지인 웅진 일대의 백제 고도에 湯井州와 所夫里州를 설치한 후, 신문왕 5년에는 居列州와 所夫里州를 정비하여 진주지방 일대를 포함한 靑州와 居列州의 서부지방과 所夫里州의 남부지방 일대를 포함한 完山州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덕왕 16년 지방제도정비에서 나타난 전주의 전신이 된다. 한편 완산주 설치 직후 下州停을 폐하고 完山停을 설치함으로써 당시의 전주는 지방통치의 행정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군

사적으로도 중요한 요해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후삼국시대의 전주는 짧은 기간이나마 후백제 견훤의 도읍지로서 융성하였던 곳으로 된다.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것은 신라 효공왕 4년(900년)의 일로 신라 하대의 혼란기를 틈타 지방군 세력과 지방 반란세력과 함께 초적과 해상세력을 통합하여 신라 진성왕 6년(892년)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웅거하여 자립하다가 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후 전주는 고려 태조 19년(936년) 9월 신검이 항복함으로써 후백제가 멸망하기까지 37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으로 자리하였다.

후백제 도읍지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전주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초기에는 그 위상이 많이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고려시대의 문헌자료에서 전주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조의 전주는 대도호부, 목, 부의 하나로서, 행정과 군사적으로 지방제도상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통일 직후 고려왕조는 전국의 州縣을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하고 大邑을 界首官으로 삼아 그 하부의 외관이 파견된 주현을 통하여 주변 속현을 통치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고려시대 수다의 계수관 개편과정에서도 전주는 나주와 함께 계속 계수관으로 존속되고 있어 이미 이 시기부터 전라도 지방의 대읍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전라지방의 지방행정중심지인 계수관으로서, 남방거진의 하나로 번성하였던 전주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李王家祖先居住地로서 지방제도상으로도 중요한 행정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 군현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은 관찰사가 파견된 道制를 중심으로 위계적, 체계적 지방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조선조 전라도의 도제는 조선왕조 개국 후 안렴사를 설치하고 전주부에 개영한 것이 효시가 된다. 이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전주는 전주부윤과 전라감영이 위치한 전라도의 대읍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은 행정제도를 중심으로 전주의 역사적인 도시성격 변화과정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개괄적인 전주의 발달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구주의 하나로 자리 잡은 660년대 이후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고려시대 계수관이 설치된 전라도 대읍으로서, 조선조 전라도의 치소로서 수다의 왕조가 교체되는 와중에도 한차례 누락된 적도 없이 1400여년동안 행정, 문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방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간직하여 왔다. 실제 한국에는 많은 전통지방도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처럼 유구한 세월의 흔적이 누적되어 있는 도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II. 전주 도시형성의 기반구조로서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

1.全州의 입지여건

조선왕조 전주부성이 위치해 있던 전주 시가지는 노령산맥으로부터 파생된 지맥으로 동,서,남방의 삼면이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이고 북방이 평야지대에 접속되어 있는 분지형에 가까운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략 북45°동의 주향을 지닌 표고 30-40m 정도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전주 부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산세의 흐름은 승암산을 기점으로 발산을 거쳐 오목대와 이목대로 흐르는 산자락과 기린봉을 거쳐 인봉리-반대산-무량물(물왕물)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자락, 도당산을 거쳐 매봉산을 경유하여 흐르는 산자락과 도천봉-장구봉-건지산-덕진연못으로 흐르는 산자락, 고덕산(고달

산)을 기점으로 남고산을 거쳐 흑석골로 이어지는 산자락, 남고산과 완산을 거쳐 곤지산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으로 구성된다. 한편 전주의 주요 수계는 전주천과 삼천천으로 대별된다. 풍수형국에 비추어 내수에 해당하는 전주천은 瑟峙(250m)에서 발원하여 한벽당 부근에서부터 동-서 방향으로 흐르다가(남천) 완산칠봉에서 흘러내린 산자락의 영향으로 완산교 부근에서 북진(서천)한 뒤, 전주 시가지를 감싸면서 서북방향으로 흐르고 다시 가련산 남측 기슭의 沙平里를 지나 팔복동 楸川臺(가르내)에서 외수에 해당하는 삼천천과 합수하여 만경강 본류로 합류된다. 한편 전주천에 합류하는 물줄기로는 역경대와 만경대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산성천과 흑석골을 타고 내리는 공수내(남고천), 동고산성터에서 흘러내려 낙수정을 지나 시청 앞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기린봉에서 인봉리 방죽을 지나 전주고등학교 앞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구 한진고속 부근에서 합수하여 다시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전주천으로 흐르는 모래내 등이 있다.

전주의 지형특성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가지를 형성하는 충적층의 형성과정과 주변 산세를 중심으로 한 방위개념, 즉 풍수적 해석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왕조 전주부성은 건지산을 진산으로 한 풍수형국을 지니고 있는데, 건지산이 지니는 형세의 허함을 메우기 위하여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에 덕진제를 만들어 현무의 결점을 보완한 것으로 된다. 한편에서는 풍수형국상 현무에 해당하는 건지산의 결점을 근거로 기린봉을 주산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린봉의 남서측으로 남고산, 완산칠봉, 서산을 연결하는 산맥이 청룡, 북서측으로 기린봉의 내맥과 천마산, 건지산을 잇는 산맥이 백호로서 내맥을 형성하게 되고 전주천을 내수인 明堂水로, 삼천천을 외수인 객수로 하는 행주형의 풍수형국에 걸 맞는 형세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전주시가지를 형성하는 충적층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의 하나는 전주천의 하상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전주천의 하상변화에 대한 기록은 완산지의 기록과 더불어 전주부사에서 전주천의 하상변화에 의한 매몰퇴적층의 조사기록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전주부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주시가지는 모두 과거 전주천의 하상이었으며, 원래는 한벽당에서 오목대 서측을 따라 구도립병원 동편과 전주시청 앞을 통과하는 유선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점차 서천하여 현재의 전주천으로 되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전주시가지는 과거 전주천의 하상이었던 곳으로 전주천의 서천으로 인하여 퇴적층이 형성된 신개간지로 된다.

실제로 전주가 어떠한 풍수형국을 바탕으로 입지와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선왕조 전주부성이 위치하고 있던 평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경작지나 시가화가 가능한 퇴적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수는 없다. 다만 전주의 지형과 수계를 통해서 볼 때, 기린봉을 주봉으로 한 북측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는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한 장소로 전주의 취락은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기린봉에서 비롯되어 북측으로 뻗어가는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노송동 일대의 지형적 특성은 국지적인 측면에서 삼국시대 우리나라 독자적인 산성구조인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아 가운데의 계곡이나 분지를 두르는 형식의 포곡식 산성이나, 배후의 산봉에 머리띠 형태의 산성을 두고 그 전면부 구릉지에 취락이 형성되는 테피식 산성의 입지여건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일찍부터 취락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대 격자형 도시 쏬촐

전주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고대 格子形土地區劃法의 유제로 추정되는 정연한 토지구획체계를 바탕으로 발달되어 온 전주시가지의 평면구성체계이다. 전주시가지의 격자형 토지구획형적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적측량원도를 통해 확

연히 살펴볼 수 있다. 지적원도에 의하면 전주천과 기린로(구 철도부지) 사이의 평지, 즉 현재 전주시가지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高士洞・中央洞・多街洞・展洞・老松洞・豊南洞・校洞 일대에 중형의 도로와 구거로 구획된 정연한 토지구획체계와 전주읍성의 형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주와 유사한 격자형 토지구획 형적이 발견되는 곳은 상주・광주・청주・남원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시대 九州五小京에 속해있던 곳으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격자형 토지구획구역은 전주와 같이 조선조 읍성이 축조되었던 곳으로 읍성이 철거된 후에는 시가지 중심부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를 비롯하여 상주・남원・청주・광주시가지에서 관찰되는 격자형 토지구획 형적은 저습한 평탄지로서 신라왕경 경주와 유사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대상지별로 차별화된 형태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특성의 차이는 특히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의 기본성격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도출되는 전주 격자형 토지구획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또한 전주에서 발견되는 격자형 토지구획 형적은 일시에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토지구획 구역이 누적된 결과로 인식된다. 특히 전주는 신문왕대부터 시작되어 경덕왕대에 결실을 보는 군사거점으로서의 州制로부터 행정중심의 州制로의 전이 과정에서 전지구획으로부터 출발한 격자형 토지구획이 시가구획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계획사적 측면에서 전주를 비롯한 청주・남원・상주광주 등 통일신라시대 구주오소경에서 발견되는 격자형 토지구획형적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대상지를 하나로 엮는 계획원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통일신라시기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이 고대국가의 통치이념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통일신라시기 지방거점도시로서 구주오소경으로서 출발한 연구 대상지의 격자형 토지구획이 통일된 형태특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통치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통일기 신라시대에 시행된 격자형 토지구획 형적과 고려-조선조의 읍성 공간구조를 중첩하여 보면 도시형태가 지니는 역사적 관성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격자형 토지구획선과 읍성 위치를 대비하여 보면 읍성이 격자형 토지구획선을 따라 축조되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성 내부의 시설구역을 구획하는 경계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선이 몇 백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도시 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II. 전주의 도시구조와 시가입지 변천과정

1. 삼국시대 전주의 성곽과 도시구조

전주에 언제부터 성곽이 출현하였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전주 주변부의 삼국시대 성곽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결과와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집락단위로 산재된 단독산성형 위곽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전주는 어떠한 모습을 취

하고 있었을까? 당시의 모습을 정확히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자료와 당시 도읍지의 공간구조를 통하여 전주를 유추해보면 僧岩山 봉우리에 위치한 고지산성을 배후에 두고 그 아래 현재의 老松洞에 해당하는 구릉지를 중심으로 나성이 없는 산재된 형태의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평지형에 가까운 丘陵地市街+高地山城圍繞形의 위곽구조는 삼국시대 초기의 주요 도읍지들이 지니는 위곽구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사료상으로 전주가 치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완산주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통일기 신라의 전주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주의 위곽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조선조 후기의 전주부성이 위치하고 있던 평탄지를 중심으로 전주의 치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이르게 잡아도 전주에 완산주가 설치되는 신문왕 5년 이후의 일로 그 이전까지의 전주는 노송동 일대 구릉지를 중심으로 정주공간구조가 그대로 답습되는 한편 전주읍성이 위치하고 있던 구역은 경작지로 활용되는 공간구조를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통일신라시대 전주의 도시구조

한편 삼국시대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주의 거주구역은 삼국통일기를 전후로 저습지의 평탄지에 계획적으로 구획된 경작지와 동측 구릉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구역이 쌍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完山州가 설치된 이후 조선조의 읍성이 위치하고 있던 평탄한 저습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재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에서 발견되는 격자형 토지구획구역과 주성·소경성, 그리고 주변부 산성의 입지특성과 주변부의 지형특성을 종합해볼 때, 삼국

통일기를 전후한 전주의 공간구조는 하천변의 저습한 평지에 격자형 토지구획이 시행된 구역을 두고 그 배후 구릉형 평지에 거주구역 및 청사와 결부되어 축조된 주성·소경성, 그리고 삼국시기부터 존재해 오던 포곡식 산지산성이 어우러지는 형태가 상정된다.

3. 견훤도읍시대 전주의 도시구조

이처럼 삼국시대 단독산성형으로부터 출발한 전주의 위곽구조는 견훤도읍시대에 들어서 시가지와 산성이 일체화된 多重圍郭式 城郭構造를 지닌 후기 삼국시대 도읍위곽구조의 완결형식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견훤도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에 의하면 당시의 견훤왕성이 全州城이라 불리워졌으며, 전주 동부의 노송동 일대 구릉지와 산지에 위치한 東固山城 일대가 견훤도읍지로 추정되고 있다. 견훤도성은 동남~서북방향으로 흐르는 지형적 특성을 지닌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전면(방위상으로는 서측)에 천을 끼고 승암산의 고지를 기점으로 지형상의 능선을 따라 곡부를 에워싸는 상성·내성·중성의 포곡식 산성을 축조하고 그 하부에 구릉지를 에워싸는 토축의 외성(라성)을 연결됨으로써 다중위곽식의 위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견훤도성의 위곽구조에서 나타나는 입지여건과 산성으로부터 발달한 다중위곽식 산성구조는 계통적으로 삼국시대 도성위곽구조의 완성형으로 이해되는 고구려의 長安城 및 백제의 沙沘城과 유사한 계열로 파악된다. 실제 후백제 도읍시기의 전주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高麗史』를 비롯한 여러 시,문,지지의 甄萱城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왕성이 축조되고 왕궁과 관아시설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성내 주요 건물은 지형흐름을 따라 坐向을 서향으로 하여,상성은 왕궁지로 활용하고 외성을 중심으로 관아건물과 시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주의 위곽구조가 삼국시대 단독산성형으로부터 견훤도읍

시대 다중위곽식 산성구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구릉지성과 고지산성의 대비형식을 지닌 위곽구조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논거로 되는 것은 견훤도성의 외성과 연결된 월형의 토성지(이하 古土城)로 된다. 고토성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적어도 전주 견훤도읍시대가 아닌 그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전주가 견훤도읍지로 자리잡았던 시기는 43년에 불과하고, 또한 당시 견훤의 세력기반과 연속되는 전쟁으로부터 파생되는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외성과 연결된 토성을 포함한 방대한 도성을 일괄하여 축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견훤도읍시대 다중위곽식의 완결형 산성구조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로서 상정되는 구릉지성과 고지산성의 대비적인 위곽구조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의 도성에서 완결형의 다중위곽구조로 변화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이형식과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할 경우 견훤도읍시대 전주의 위곽구조는 삼국시대~통일기 신라 초기에 기축조되었던 古土城과 高地山城을 이용하여 개축·증축하는 형태로 도성을 정비하여 시가를 이루고 있던 중간령역을 위요하는 포곡식 산성을 축조함으로써 다중위곽식의 산성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된다.

4. 읍성시대 전주의 위곽구조

고려와 조선의 전주는 읍성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삼국시대 單獨山城圍郭式로부터 출발하여 견훤도읍시대에 多重圍郭式의 완결형 산성구조로 진화되었던 전주의 위곽구조는 고려 이후에 읍성 중심의 위곽구조로 전이되면서, 전주읍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재구성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중앙 관할하에 전국을 교통로나 대응을 중심으로 몇개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 하부의 외관이 파견된 주현을 통하

여 주변 속현을 지배하는 소위 界首官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었다. 여타의 주현과는 달리 고려의 계수관에는 계수관으로서의 기능에 필요한 관아시설지구를 지니고 있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행정,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된다. 한편 고려의 계수관제는 러말 공양왕 이후 안찰사가 제도적인 도의 영수관으로 자리잡은 후 기능과 성격이 변질, 약화된 채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조선 중기 이후 소멸하게 된다. 고려 계수관의 수는 일정치 않고 시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수다의 계수관 개편과정에서도 전주는 나주와 함께 계속 계수관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미 이 시기부터 전라도 지방의 대읍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전라지방의 지방행정중심지인 계수관으로서, 남방거진의 하나로 번성하였던 전주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李王家祖先居住地로서 “朝鮮根本之地”, “豐沛之鄉”, “國家之郅邇”라 하여 태조 원년 전주를 完山留守府로 승하여 수호군을 설치하고 전주읍성을 창건하였으며, 태종 10년에는 경기전을 창축하는 등 일대 도읍으로서의 위용을 지닌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조선조 전주의 전개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어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개국 초부터 임진란 이전의 시기로 전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읍성내부공간구조의 확립기로 정의될 수 있다. 전주읍성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헌상으로 전주읍성의 창축에 관한 기록은 英祖 10年(1734)에 도입하여 전주부성의 일대 수축을 하였던 관찰사 趙顯命은 『明見樓記』에서 고려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던 해에 관찰사 崔有慶에 의해 처음으로 축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선 『高麗史』의 明宗 12年 全州 旗頭竹同의 亂에 관한 기사중 “賊閉城固守”라는 말이 나오고 高宗 40年 全州 蒙古侵入에 관한 기록에서 “全州城”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어 전주읍성의 기초는 고려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이후의 전주읍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점 중의 하나는 고려왕조와 조선조 전주읍성 사이의 관계이다. 실제 고려시대 전주읍성의 정확한 창축시기와 위치에 대하여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 초기의 전주읍성이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입지여건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조선 초기의 지방제도가 고려 후기의 지방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과, 조선조에 편찬되었던 전주읍성에 대한 다양한 지리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중요한 논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세종-문종조의 실상을 중심으로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주읍성에 대하여 “邑石城周一千二百八十步”라 기록하고 있는 반면, 中宗 25年(1530)에 증보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邑城石築周五千三百五十六尺高八尺內有井二百二十三”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英祖代에 엮어진 『文獻備考』에는 “全州邑城石築 周二千六百十八步 高八尺 女堞 一千三百七 雉堞十一 甕城一 有四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조때 새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영조년간(영조 33년-영조 41년)에 편찬된 『輿地圖書』와 1871년에 편찬된 『湖南邑誌』〈完山誌〉에는 “石築 周五千三百五十六尺 高八尺 女堞 一千三百七 雉城十一 甕城一 鋪樓十二 砲口三千九百二十一”이라 하였고, 1860년대에 편찬된 김정호의 『大東地志』에는 “國初築 英宗十年改築 周二千六百十八步 雉城十一甕城一 鋪樓十二 城門四 井一百十三 壕池一”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의 사료에 나타난 전주읍성의 시기별 규모를 살펴보면 읍성의 둘레길이가 世宗 년간에 一千二百八十八步(世宗實錄地理志), 世宗-成宗年間에 五千三百五十六尺(新增東國輿地勝覽), 英祖 이후에 二千六百十八步(增補文獻備考)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세종 년간의 전주읍성 규모와 영조 이후의 전주읍성 규모에 관한 기록이다. 양자간의 기록을 비교하여 볼 경우 척도의 신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규모가 두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된다. 이것은 조선조 후기의 全州府城圖에 나타난 조선 영조 이후의 全州府城과는 전혀 다른 읍성이 적어도 세종대까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1912년에 발간된 전주(면)의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1912년의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조선조 후기 전주읍성의 형적과 가로체계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지적원도 상에 나타난 전주의 가로체계는 격자형을 골격으로 중앙부의 전주천 우측에 남북방향의 중앙로 우측으로 전주읍성의 형적이 원형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조 후기의 전주읍성은 지적원도 상에 남아있는 읍성 형적을 좌측으로 연장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읍성형태가 상정되는데 좌하부에서 폭이 좁은 부정형의 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읍성 내부의 가로체계는 격자형의 골격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읍성 중앙부에 격자형의 가로 주향과는 어우러지지 않은 사선방향의 곡선형 가로들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성시점 측면에서 지적원도가 지니고 있는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가로의 관성이나 筆地畝分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가로체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형태이다. 결국 이것은 조선조 후기의 읍성이 정비되기 이전 전혀 서로 다른 도시구조가 존재해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잔존해있는 사선형의 곡선도로들을 연결하여 폐쇄된 도형을 작성해보면 남북방향으로 긴 타원형에 가까운 영역이 형성된다. 이 타원형의 외곽 둘레길이를 측정해보면 약 1,500-1,600m로서 조선조 후기 전주읍성의 둘레길이 약 3,200m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것은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세종 년간의 읍성길이와 영조대 이후의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전주 읍성 둘레길이 사이의 산술적 관계와 거의 유사한 수치로서, 이러한

산정결과에 기초할 경우 고려 후기 이후 적어도 세종조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전주읍성은 조선 후기 전주읍성의 내부에 일부구역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조선조 전주읍성은 경기전이 조영된 1410년을 전후하여 1차 확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까지만 하여도 읍성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던 전주향교가 경기전 확장 및 읍성확장에 따라 외곽의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된다. 이로서 국초부터 시작되어 임란 이전에 정비가 일단락된 전주는 임진·정유의란을 거치면서 전주읍성사문의 거중, 전라감영의 선화당·교방 등이 파손되는 등 부내 공공시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전주수성책의 일환으로 전주성에 포루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임란을 전후로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왜구침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초 이래 성내에 거주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대부가 임란 후 성외로 빠져나가 성내거주자가 격감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한편 양란 이후의 전주는 성곽정비와 부성내외의 건축물 정비에 주력하여 肅宗·英宗祖를 거치면서 다시 건축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關防에 대한 정비라 할 수 있다. 전주부의 방어체계구축의 일환으로 孝宗 五年(申午)에는 부남성 외에 관방의 하나로 中鎭榮을 설치한 바 있으며, 肅宗 元年에는 威鳳山城을 축설하고 행궁을 설치하여 위난시 태조 수용의 이안처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순조 12년 壬申年에는 南固山城을 창설하였다. 남고산성은 순조 십일년 부의 동남측에 위치한 甄萱山城地, 즉 高德山城地를 취하여 南固鎭을 축설한 것인데, 임진역 당시의 舊地를 이용하여 축조하기 시작한 萬馬關과 함께 축조되기 시작하여 익년인 壬申年에 완공된 것이다. 이로서 전주부는 孝宗朝의 中鎭榮, 肅宗朝의 威鳳山城과 함께 3개의 관방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양란 이후 전주읍성이 점차 퇴락함에 따라 英祖 十年에는 관

찰사 趙顯命에 의하여 읍성개축이 시행되어 읍성규모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英宗 四十三年(1767年)에 발생한 소위 丁亥火災로 인하여 남문과 서문루를 비롯한 부내 공해와 민가 천여호가 소실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찰사 洪樂仁에 의하여 전주읍성의 남문과 서문이 중건되고 전반적인 관아시설이 재정비되는 등 다시 대대적인 공간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양란 이후 계속적인 수축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존속되어 오던 전주읍성은 급기야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한 이듬해인 1906년 이후 철거되고 말았다. 특히 일제는 읍성 철거와 병행하여 철거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읍성 내외부의 도로에 대한 신설·개수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주시가지의 일대 공간구조 변혁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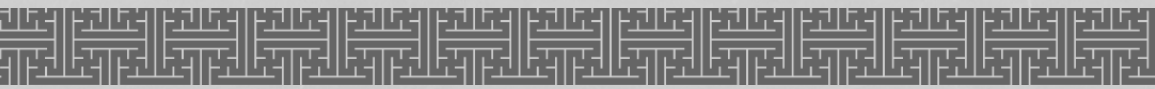
[표 1] 전주의 위곽구조와 시기입지 변천과정

時期區分	圍郭型式	市街立地
三國時代	單獨山城圍郭式 山城構造	山城 下部 구릉지일대
三國時代後期	高地山城+丘陵地城 對比型式	丘陵地城 주변
三國時代末-統一期新羅*	高地山城+丘陵地城 對比型式**	현재 중심부 일대
後三國時代	多重 圍郭式 山城構造	甄萱 外城 일대
高麗-朝鮮時代	邑城 中心의 圍郭構造	邑城 내외부

*후술될 내용 참조

**실제로 활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전주의 옛길



하태규 (전북대학교수)



I. 머리말

II. 전주부성의 옛길

1. 부성내의 옛길
2. 부성 옛길의 변천과 잔형

III. 전주 주변의 역로와 옛길

1. 전주 부근의 역로와 역원
2. 전주 북쪽 방면의 옛길
3. 전주 남쪽 방면의 옛길
4. 전주 동쪽 방면의 옛길
5. 전주 서쪽 방면의 옛길

IV. 맺음말

I. 머리말



그림 1. 중바위에서 바라 본 전주

인간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자연에 남겨왔다. 그러나 그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변동, 풍수해 자연침식 등 동일 공간에 가해지는 자연의 변화가 그 흔적을 없애기도 하고, 그 위에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던 인간의 생활이 옛날의 흔적을 지워 그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는 옛날의 것들이란 일정한 정도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과거의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옛길이다. 길이란 무엇일까? 문경에 있는 옛길박물관의 전시안내문에는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한다. 한자에서 길을 나타내는 문자들로 는 경(經), 진(診), 도(途) 도(道), 로(路)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의미한다. 『주례』에 따르면 경(經)은 우마가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고, 진(診)은 대거(大車)가 다닐 수 있는 소로이며, 도(途)는 승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도(道)는 승차 두대 로(路)는 승차 세 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라고 하였다.

순우리말로는 넓은 길은 한길이라 하고, 시골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은 고샅이라 하며, 사잇길, 오솔길, 고갯길, 지름길 등 길의 특성에 맞는 명칭이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길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산과 물을 연결하고 인간의 삶을 이어주고 있다” 결국 길이란 이동과 소통을 위한 지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길 중에서 옛길은 어느 정도의 과거에 있었던 길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다.

길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 인간이 자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동하는 원시적인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길은 인간의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주변 지역과의 원거리 교역을 위해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었으며, 길이 있는 곳은 인간이 있었다. 그러나 길이 단순히 개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회변동에 따라 정치권력이 발생하고, 나아가 국가가 성립되면서 지배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길이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길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길의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보다 효율적인 새길이 생기게 되면 예전의 길은 방치되어 결국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 어떤 길은 빈번한 왕래에 따라 확장되거나 선형이 변경되면서 옛길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로 정비 택지개발, 농경지 정리, 신시가지 개발, 공단의 조성, 댐의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서 많은 옛길이 사라지고 새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길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역시 개항 이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침략 과정에서 신작로가 개설되고 자동차가 도입되어 운행되면서 길의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합방 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와 수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도시의 가로망을 정비하고 전국에 지속적으로

신작로를 개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 경영되었던 성곽이 철폐되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도로의 모습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전주는 1907년 일제의 압력으로 대한제국 내부 치도국에서 전군간의 신작로를 개설을 시작으로 성곽이 철폐되면서 근대적 가로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제하에서 시행된 시구 개정사업으로 조선시대 가로를 근간으로 도심의 도로가 개설 정비되었다. 그리고 전주로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 이전에 존재하였던 전주의 옛길 중 일부는 일부 가로망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지만, 도시화 과정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일제기에 정비된 전주의 도로는 해방 후 상당기간 그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시가지 정비계획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를 보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도심구간에서는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도로개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외곽 지역에서는 농경지의 정리 임야 개간, 공장부지 조성, 그리고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 등으로 옛날의 길들이 사라져 왔다. 비록 일부 구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비율성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폐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지도 자료와 지리지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이전 전주 지역의 옛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주 부성내의 관아시설과 거주공간에 형성되었던 가로망을 검토하여 그것이 오늘날 전주의 가로망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알아보고, 나아가서 조선시대 역로제도 하에서 운영되었던 역로와 그 사이에 존재했던 소로 등을 중심으로 전주 주변의 옛길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II. 전주 부성의 옛길

1. 부성내의 옛길

(1) 관아 시설과 가로망

전주부성이 언제 처음 축성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명종 때 기두 죽동이 난을 일으켜 전주성을 점령하고 40일 동안 관군에 대항하였다고 하며, 1377년에 왜구 300여 기가 전주가 전주성을 점령하였다가 병마사 유실에게 쫓겨 귀신사로 물러났다는 기사 등이 있어 고려시대 전주목의 읍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영조 때 전주 부성을 개축한 조현명의 「명견루기」에서는 고려 우왕 14년(1388)에 전라관찰사 최유경이 전주성을 처음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전기 전주 부성에 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석축으로 둘레가 1,288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이 석축으로 5,356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주 부성은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는 등 이후 크게 퇴락하게 되었는데, 영조 10년(1734)에 전라감사 조현명이 이를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4대문을 고쳐 지어, 남문에는 3층의 문루를



그림 2. 풍남문(전주부성 남문)



그림 3. 오거리(전주부성 북문터)

세우고 명건루라 하였고, 서문은 상서문, 동문은 관동문, 북문은 중거문이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영조 43년(1767) 정해년 대화재로 민가 1천호와 문루가 다 소실되어 버렸는데, 그해 9월 감사 홍락인이 남문과 서문에 문루를 중건하여 각각 풍남문, 패서문으로 이름하였고, 그 뒤 영조 51년 감사 서호수가 동문과 북문을 중건하고 완동문, 공북문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중수된 전주부성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에 의하여 철폐될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였다. 오늘날은 풍남문만이 그 자리에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 동문이나 서문 북문은 물론 성곽은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전주 부성은 남쪽 성벽보다 북쪽 성벽이 약간 긴 사다리꼴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4개의 문이 있었다. 부성 중앙의 북쪽에 객사가 자리하고 있고, 객사의 남쪽의 우편(남문에서 볼 때 좌편)에 감영이, 그리고 우편에 전부 부영 등 관아 시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성의 남동쪽 우각에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동 우각 내에 옥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림 4. 동문사거리(전주부성 동문터)



그림 5. 다가동 파출소 앞 사거리(서문터)

전주 부성의 4대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남문인 풍남문만이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있으며, 서문인 패서문 자리는 다가동 파출소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고, 동문은 구 홍지서림이 자리하고 있던 동문사거리, 그리고 북문은 오거리 부근에 있었다. 오늘날 북문과 서문 동문 자리

에는 그 곳이 성문지였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성벽의 길이는 총 3,215km 정도였으며, 남북(남문과 북문사이) 길이 954m, 동서(동문과 서문사이)길이 815m 정도로 약 18만평 정도가 되었다. 한편 성 밖에는 동문으로부터 남문에 이르는 성곽의 남동쪽과 남문 밖, 그리고 남문에서 서문 밖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민가와 장터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 전주 부성의 모습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몇 점의 전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도가 작성된 시기에 따라 부성의 모습을 조금씩 차이가 나



그림 6. 남문-객사앞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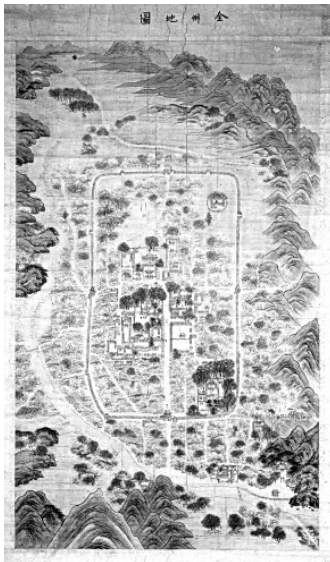


그림 7. 규장각 1700년대 전주지도

게 묘사하고 있다. 그 중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1700년대 전반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 채색지도인데, 이것은 조현명이 전주 부성을 중건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는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성곽 내의 객사, 감영과 부영, 경기전 등 관아시설은 물론 성곽 내외의 민가와 전주 주변의 산과 하천 등의 자연 지형까지 섬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지도에는 전주 부성의 안과 밖에 있었던 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먼저 성곽 안의 가로를 보면 남문으로부터 감영과 부영

사이를 지나 객사 앞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있고, 이 도로와 동문으로부터 섬문에 이르는 좁고 약간의 굴곡이 있는 도로가 객사 앞에서 만나 'T'자형의 가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문으로부터 객사의 북서편 뒤쪽을 지나 서문쪽을 향해 대각선 모양으로 지나는 길과, 남문 서편의 남쪽 성벽의 중간에서 서쪽 성벽의 서문 남쪽 중간으로 역시 대각선 모양으로 지나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성 밖으로는 각 문으로부터 4방으로 나가는 길과 성 밖의 민가 사이에 가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북문에서 동문 구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성벽의 안과 밖을 따라 도는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로 보면 성곽도시에서 나타나는 십자가형 가로나 격자형 가로망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전주 부성의 형편을 잘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도가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지도이다. 이 지도는 대원군 집권기에 전국 군현을 망라하여 제작한 지도 중의 하나로 전주부성 내의 모습 뿐만 아니라 당시 전주부의 관할 주변 지역의 가로망까지 잘 표현하고 있다. 부성 내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앞의 지도에서 보았던 'T'자형 가로망과 객사 뒤편의 대각선으로 연결된 길 외에도 남문에서 경기전으로 연결되는 가로와 경기전에서 조경묘를 거쳐 동문쪽 도로로 연결되는 가로와, 부영의 동북 우각에서 감옥이 있는 동북우각으로 곡선형의 가로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지도에서는 관아시설과 주요 가로망의 표시와는 달리 부성내의 민가와 민가에 연결되는 길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를



그림 8.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지도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아직 질서정연한 십자로 형태나 격자형 가로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 중에서 전부 부성내의 구조를 가장 세밀하게 전해 주는 것은 19세기 후반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국립박물관 소장 완산십곡병풍도이다. 이 지도는 전주부성과 남과 북쪽 인근 지역을 좌우로 전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전부 부성을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그려놓고 있는데, 전주 부성내에 위치한 전라감영과 전주 부영을 비롯한 관아 건물 뿐 만아니라, 부성 밖의 중진영이나 향교 등 관공서의 배치상태, 그리고 민가와 가로망을 설계도 수준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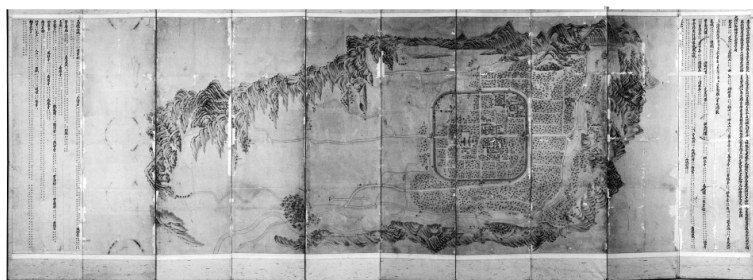


그림 9.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10곡병풍도

이 지도에서 보면 앞의 지도에서 보았던 부성내의 'T'자형 가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주목되는 가로는 남문에서 시작해 감영과 부영 사이를 지나 객사 앞까지 이르는 광로이다. 이 길은 풍남문에서 객사 옆을 지나 중앙시장으로 통하는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되는 길에 해당한다. 남문에서 시작된 길의 초입부분에는 양편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 편보다는 동쪽의 가로변에 민가가 길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옛날 남부 배차장에서 구 중앙초등학교 정문으로 연결하는 길과 만나는 사거리까지에 해당한다. 이 부근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전주 부영, 서쪽으로

는 전라감영을 인접하고 객사까지 연결된다. 이 길은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전부 부성의 중심도로였다고 보여진다.

동문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곧게 난 길은 좌우에 형성된 민가 사이를 지난 다음

전주부영의 북편을 따라 객사 앞에 이르러서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와 만난다. 그리고 서문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감영의 뒤편을 지나 객사 앞에 이르러서 역시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와 만난다. 그런데, 이 길은 서문에서 감영 부근까지는 직선을 이루다가 감영의 뒤편에서 북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선형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남문에서 시작된 광로는 동문과 서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객사 앞에서 만나 T자형 가로를 형성하였다.

반면 북문에서는 중앙의 객사 앞으로 직접 통하는 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북문에서 시작된 길은 객사 뒤편의 민가 지역에 이르러 서남쪽으로 비스듬히 지나가다가 객사의 서북우각에서 다시 남향하여 감영쪽으로 가다가 감

영의 서북우각에서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길과 합류하게 된다.

전주 부성의 주요 관아 건물들은 이 ‘T’자형 가로와 인접하여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객사와 감영, 부영이 자리하고 있는 부성의 중심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성의 중앙에 객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앞쪽의 서쪽에는 전라감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동쪽에 부영이 위치하고 부영의 남쪽에 민가와 더불어



그림 10. 전주부성 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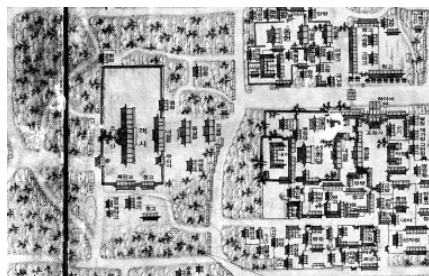


그림 11. 전주부성 관아구역 가로망



그림 12. 전주 부성 감영 자리

삼문 좌우에 맹청과 무신사가 있고, 서쪽 담장에 책판고와 창고에 있으며 담너머에 군기고와 화약고가 있었다. 따라서 객사의 범위는 동서관통도로를 지나 우체국 사거리까지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였다. 객사의 세개의 삼문 좌우의 공간에는 민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가는 이어지는 감영의 북쪽 담장으로부터 동서 간선도로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감영과 객사 사이에는 동서도로와 약간의 민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아마도 옛 공보관 건물(현 가족회관) 뒤쪽 골목길이 위치한 부분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사와 연결되는 가로를 보면, 외삼문 바로 밖에서 대로가 직선으로 남문으로 나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동문이 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난다. 이렇게 보면 전주 부성내의 'T'형 가로망의 머리 부분에 '□'자 형 객사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3. 전주부성 전주부영 자리

어 영저리청이 있고, 동쪽 담장 안으로 경기전과 조경묘가 위치하고 있다.

객사는 주관 앞으로 내삼문과 담장이 둘러져 있고, 내삼문 앞에 중삼문 외삼문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었다. 내

부지와 아울러 그 앞의 도로는 물론 상무관자리인 완산경찰서 본관과 민원실들을 포함한 중앙동 일대로 전체 부지는 약 1만 2천여 평에 달하였다. 감영의 주요시설로는 관찰사의 집무청인 선화당과 내삼문, 중삼문, 외삼문, 포정

루 등 각종 관사 건물 등이 있었다. 감영구역은 'T'형 가로망 내 좌측에 '□'형 구획을 이루고 있었다.

전주부를 관장하는 전주 부영은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감영의 동편에 위치하였다. 부영의 중심 건물은 전주 부윤의 집무소인 동헌으로 현재의 중소기업은행자리에 있었다. 동헌으로 들어오는 길은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남북로에서 동편으로 들어 오면 북쪽으로 외삼문, 내삼문 동헌으로 일직선상으로 길이 나 있었다. 동헌의 외삼문의 자리는 구 도청 후문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헌의 서편으로 내아가 있었으며, 내아 앞으로 역시 여러 개의 관청 건물이 있었다. 동헌의 동쪽은 내공고 형청 등이 있었고, 다시 그 동쪽에는 작청과 향청 등이 있었다. 전주 부영의 면적은 약 7천여평에 이르렀다. 전주 부영의 부지는 오늘날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예술회관과 팔달로 반대편의 전북은행과 피카디리 극장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영구역은 'T'자형 가로망 내 우측에 역시 '□'자형 구획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객사 감영 부영 구역을 둘러싼 전체적인 구역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각 영역은 외곽을 둘러싼 도로와 중앙의 'T'자형 가로망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는 '品'자형의 가로구획을 보이고 있다.

전주부성에는 감영과 부영 외에 경기전과 조경묘 등 국가의 주요 제사시설이 있었다. 경기전은 남문 동쪽의 남쪽 담장으로부터 동쪽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서의 동남우각에 위치하였고, 조경묘는 경기전 북쪽에서 동쪽 담장에 인접해 있었다. 경기전과 조경묘의 부지



그림 14. 경기전 전경

는 오늘날 경기전 복원 공사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부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경기전과 조경묘로 이어지는 길도 있었다. 남문에서 곧바로 성벽을 따라 경기전의 홍살문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경기전의 서쪽 담장 밖을 지나 조경묘의 홍살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조경묘의 서쪽 담장 밖을 지나서 동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길과 만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객사와 감영 부영 그리고 경기전과 조경묘는 민가와 구별되는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설은 그 것이 위치한 구획을 둘러싼 길과 내부의 기관들을 연결하는 동선을 확보하는 길이 있었다.

이외에도 부성내에 분산되어 있는 관아시설도 있었다. 부영과 남문 사이에 있던 영저리청이나, 각지에 존재했던 옥사, 진북정 등의 누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민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각종의 관아 시설과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건물이나 기관을 연결하는 길과,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2) 부성내 거주공간과 가로망

전주부성 내에는 관아시설이나 공적인 기관 외에도 많은 민가와 점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해년의 화재로 민가 1,000호가 불탔다는 기록이 있으며, 190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감영지』에 의하면 당시 전주 부성에는 3천7백호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성 내에 민가가 주로 형성된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T'자형 간선 가로망 양편은 물론, 남문으로부터 부영 남쪽까지 이르는 경기전 서쪽 지역,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와 서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의 부성 내의 남쪽지역에서 감영 구역을 제외한 'ㄱ'자형 지역, 객사 서쪽과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문의 북쪽 성벽과 북문의 서쪽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동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과 북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부성의 동북지역 중 저습지를 제외한 지역에 민가가

분포하고 있었다.

민가가 형성된 주거 공간에는 당연히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길이 생성되어 있었다. 부성에 거주하는 관리나 아전들의 왕래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관청 출입, 그리고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각종의 길들이 있었다. 1872년 지도로 보면 전주 부중의 민가는 무질서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10곡병풍도를 통해서 보면 민가 지역에는 격자형으로 구획된 가로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로망 속에는 민가의 형편에 따른 골목길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산 10곡 병풍도를 통해서 조선 후기 전주부성내 민가 지역과 여기에 만들어졌던 길의 윤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의 남쪽, 그리고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의 서쪽 편에 해당하는 전주 부성의 서남부 지역을 보면, 감영의 남쪽과 서쪽을 지나는 가로망과 남문으로부터 성곽을 따라 서문까지의 난 길과 서문과 객사로 이어지는 길 사이에 ‘』’ 형의 민가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남쪽 편은 남문으로 성벽을 따라 서쪽 성벽에 이르는 길과 감영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동서 가로망에 의해서 하나의 구획을 이루는데, 감영 앞 길의 중간과 서쪽 두 곳에서 곡선의 갈림길이 남쪽 성벽을 향해 올라오다가 남쪽 성벽 길의 중앙에서 합해져 3개의 구획을 이루었다. 그리고 감영의 서쪽부분은 감영 서쪽



그림 15. 전주부성내 남서쪽 가로망

편 길과 성곽의 서쪽길 사이에 또 하나의 남북 및 동서 가로망에 의해서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졌다.

이 구역의 동서가로를 살펴보면, 먼저 감영 앞을 지나가는 동서가로는 구 중앙초등학교에서 구 남부배차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해당하며, 그 바로 북쪽에 위치한 동서가로는 후에 감영자리를 관통하여 개설한 구 도청 앞 도로와 연결되어 완산동으로 나가는 도로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감영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동서도로는 서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오늘날의 웨딩거리에 해당한다.

남북가로를 보면, 전라감영의 서편을 지나가는 가로는 오늘날 매곡로로서 구 도청민원실 옆을 지나 매곡교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 다음 서쪽의 남북가로는 현재의 전주영화제작소(구 완산보건소) 앞에서 구 남부배차장으로 이어지는 소주가 거리에 해당한다.

다음, 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도로의 동편과 동문에서 객사를 잇는 도로의 남쪽에 해당하는 부성의 동남쪽 구역은 경기전과 전주부영이 있는 곳으로 북문에서 남문을 잇는 대각선 형태의 민가 지역이 형성되었다. 동쪽 성벽의 가로와 남북대로 사이에 남북으로 2개의 가로, 쪽 성벽과 동문과 객사를 잇는 도로 사이에 역시 2개의 가로는 형성되어 크게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조정묘의 북쪽과 남쪽에서 부영의 동편길로 이어지는 길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구간 남북 가로망은 직선을 이루지 못하며, 경기전 북쪽 중간에서 조정묘 북쪽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길에 의해서 구획이 나누어졌다. 그



그림 16. 구 도청 민원실 옆길(매곡로)



그림 17. 중앙로(전라감영 앞 동서 가로)

리고 경묘 뒤 중간에서 북쪽으로 작은 샛길이 동서도로와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길 중에서 경기전 서쪽 담장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조경묘 부근에서 구부러져 가는 남북방향의 가로는 현재의 경기전 서쪽 담장을 따라가는 도로와 선형이 같다. 그리고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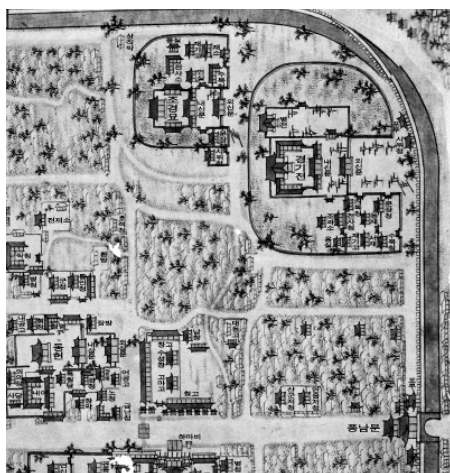


그림 18. 전주부성내 동남쪽 가로망

쪽 성벽에서 전주부영의 동쪽 담장을 지나는 남북 방향의 가로는 현재의 팔달로와 같은 선형이다. 그리고 경기전 북쪽 담장과 조경묘 앞에서 남북간선로로 연결되는 동서가로는 구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팔달로를 지나 아관원에 이르는 길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쪽 성벽에서 조경묘 북쪽담장을 지나 전주부영 동편 담장 중간으로 연결되는 동서가로는 경기전 북쪽 담장에서 구 도청 후문에 이르는 도로의 선형에 해당한다.

서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의 북쪽, 객사에서 북문을 연결하는 선의 서쪽에 해당하는 서북쪽 지역을 보면, 객사를 중심으로 “ㄴ”자 형태의 민가 거주구역이 형성되었다. 객사와 서쪽 성벽 사이에는 2개의



그림 19. 경기전 서편 담장옆을 지나 남북 가로



그림 20. 조경묘 북쪽에서 감영으로 이어지는 동서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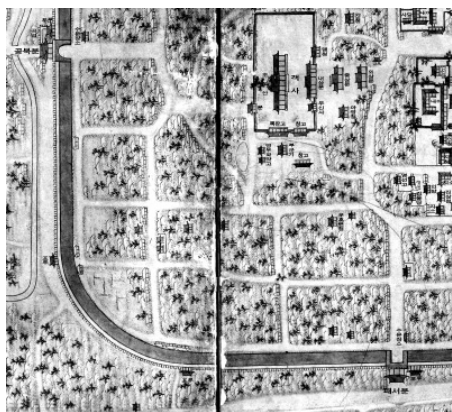


그림 21. 전주부성내서북쪽 지역 가로망

남북 가로가 지나고 있으며, 북쪽 성벽과 객사와 서문을 잇는 도로 사이에도 역시 2개의 가로가 지나고 있었다. 한편 객사와 북문 사이에는 하나의 동서 가로가 지남으로써 2개의 구역이 형성되었는데, 북문에서 객사 쪽으로 길이中间的의 동서 가로에 연결되고 있다.

먼저 동서축의 가로망을 보면 서문과 객사를 잇는 동서 가로 다음에 서쪽 성벽으로부터 객사구역 서쪽의 남북가로에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아마도 구법원 사거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선형이 비슷하다. 다음으로는 서쪽 성벽으로부터 객사를 포함한 구역의 북쪽을 지나는 가로로서 북문에서 객사 뒤쪽 방향으로 난 한 구간의 도로와 만나고 이어서 동쪽 성벽 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은 오늘날 한성여관 사거리로 연결되는 동서가로와 선형이 같다.

남북방향의 가로를 보면 북문으로부터 객사 영역 뒤편으로 연결된 가로망의 서쪽에서 남북방향으로 한 구간의 가로가 오늘날 한성여관 서쪽 편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서쪽으로는 북쪽 성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와 교차하면서 감영의



그림 22. 한성여관 부근의 동서가로



그림 23. 전주부성 서북쪽 남북가로

서쪽벽을 남북으로 지나는 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매곡로에 해당하는 길이다. 그 서쪽으로 이 길과 평행한 길이 북쪽 성벽으로부터 시작하여 객사앞 길을 지나 구 남부배차장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소주가’로 명명된 가로이다.

동문에서 객사를 잇는 길의 북쪽, 객사와 북문을 연결하는 선의 동쪽에 해당하는 부성의 동북쪽을 보면, 남쪽의 동서가로와 객사 동쪽의 영역을 지나는 가로 부분에 민가가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북문에서 동문으로 이어지는 사선의 북동쪽은 저습지로서 민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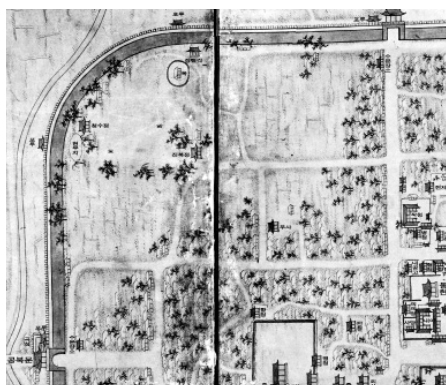


그림 24. 전주부성내 동북쪽 지역 가로망

북 동쪽 지역은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각각 3개의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하여 잘 갖추어지지 않아 감이 없지 않다. 객사 동쪽을 지나는 남북가로는 오늘날 팔달로에 해당하며, 그 동쪽에 있는 가로는 KT건물(구법원) 후문으로부터 구 도청(도립병원자리) 정문을 지나는 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가로 중 객사 구역 동편 중간에서 그 동쪽의 남북가로까지 한 구간 직선으로 연결되다가 다시 조금 북쪽에서 동쪽 성벽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는 길은 구 법원사거리로부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정문 앞을 지나는 도로와 선형은 비슷하지만 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북쪽의 동서가로는 팔달로의 신한은행을 지나 구 도2청사 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선형이 비슷하다.

한편 객사를 둘러싼 구획 내에는 부정형의 곡선형태의 샛길이 만 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그림 25. 구 법원사거리로부터 동쪽성벽으로
연결된 동서가로 자리

그림 26. KT 후문부근에서 구도청 제2청사 정
문으로 이어지는 남북가로

동문에서 서문으로 객사 앞을 지나는 도로와 전주 부영의 동쪽을 지나는 도로, 그리고 감영의 서쪽 편을 지나는 가로망과 북문과 객사 사이를 지나는 동서 가로에 의해서 구획된 비교적 큰 구역을 이루고, 이 가운데 객사 건물이 담장에 둘러 위치하고 있다.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감영과 전주 부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과 동서 거리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부성의 관아 시설인 감영과 부영 그리고 객사가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객사에는 정문 이외에도 감영과 부영을 이어주는 몇 개의 길이 만들어졌으며, 객사의 주변 지역에 민가가 형성되어 민가 사이로 다시 샛길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객사 주변은 다른 곳에 비하여 불규칙적인 소로가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전주 부성의 가로망은 남문으로부터 감영과 부영을 좌우에 두고 객사에 이르는 길이 동문에서 객사를 거쳐 서문으로 이어지는 길과 만나는 T형 가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아시설 지역은 객사와 감영 그리고 부영이 ‘品’ 자형 구획을 보이고 있으며, 관아시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객사 동쪽에 2개, 서쪽에 3개의 남북을 잇는 가로와 객사 남쪽 2개, 북쪽 2개의 동서 방향의 가로가 형성되어 격자형 구획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 구획마다 필요에 의한 소로나 샛길이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로망을 중심으로 부성 내의 여러 점포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객사 뒤편으로 주석전 거리, 쇠전 거리, 금은방 거리, 지전 거리 등이 성내의 옛길을 따라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내의 가로망과 거리는 부성내의 거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 가로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부성 옛길의 변천과 잔형



그림 27. 진북동 우성아파트 앞길(신작로 자리)



그림 28. 다기동 차이나 거리(본정거리 자리)

전주 부성의 성곽과 도시공간 구조, 가로망이 파괴되는 것은 1907년 전군간의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내부 치도국에서 시행한 전군도로 개설과정에서 덕진에서 금암광장을 거쳐 성곽 서문에 연결시킴으로써 전부 부성의 서쪽 성곽의 절반이 철거되었다. 합방 이후 1911년 조선총독부 훈령 제51호에 의해 도로규칙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912년 10월 가로의 개설과 정비를 목적으로 한 “시구개정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가로개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동서남북 문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이도로와 각지에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수하거나 신설하였다.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기존의 간선도로의 노폭을 7.9m확장하고 하수도를 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영과 부영 등 관아시설의 동서가로를 연결함으로써 전주 시내의 가로망이 격자형 가로구조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 29. 웨딩 거리(대정정거리 자리)



그림 30. 웨딩거리 박다옥 건물

그리고 서문 부근 일본인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정거리와 대정정거리 등 일본인들에 의한 도로명이 등장하게 된다. 본정거리는 서문 부근의 남북으로 형성된 가로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늘날 다가동(청석동) 파출소 부근의 다가동 우체국에서 관관호텔로 이어지는 차이나 거리에 해당한다. 대정정거리는 객사에서 서문에 이르는 가로가 확장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태평동 파출소로부터 우체국에 이르는 소위 웨딩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가 확장되면서 일본인들의 점포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중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박다옥 건물이다. 박다옥은 일제강점기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음식점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우동집으로 운영되었던 건물이다.

그 후 1913년부터 1923년까지 시행된 제2기 시구개정사업기에 서문에서 북문,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구간, 남문에서 경기전에 이르는 구간 등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전주 익산간 경편 철도가 개통되면서 구 전매청 자리에 역이 설치되고, 고사로가 개설되었다. 1929년에는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전주역은 지금의 시청자리로 이전하고 북문에서 역에 이르는 역전로를 개설되었다. 제3기 시구 개정기에도 경원동에서 고사동 다가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전동에서 중앙동 고사동에 이르는 도로가 개수되는 등 전주시내의 가로망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일제시대 가로망 정비는 비록 일부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 후기 전주 부성의 가로망을 근간으로

협소한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굴곡이 많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화하고 연장함으로써 격자형 가로망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전주의 시가지의 도로 개수와 개설이 추진되어 팔달로, 동서관통로, 기린로 등 많은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동서관통도로와 기린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정비된 가로망을 확장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전주 구 도심 대부분의 격자형 간선 도로는 조선후기의 부성내의 가로와 일정구간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확장과 더불어 건물의 개축과 신축 등 계속되는 시가지 정비 사업에 의하여 전주 부성내의 옛길은 그 원형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한편 격자형 가로망 속에서 도로로 정비되지 않은 민가 지역에 존재했던 소로나 사이길의 선형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곳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도에서 보는 감영의 남쪽 민가 지역에 있었던 조선 후기의 곡선형 갈림길의 자리는 오늘날 남문거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감영 서쪽 길이 민가 지역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제 때 남쪽 성벽 자리까지 연결되고 매곡교를 거쳐 완산칠봉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전주초등학교로부터 구 전매서 서쪽, 그리고 구 남부배차장 자리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선 도로가 곡선을 그리며 남문 서쪽의 성벽으로 향하면서 중간에 전라감영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남문시장길의 중간에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면 갈림



그림 31. 1960년대 전주중양시가지도 중 도심부분(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2. 남문 옆 매곡로 명산약국 골목

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완산경찰서 뒤편 고사동 파출소 옆의 골목으로 나오고, 또 한쪽 길은 반야돌술밥집 남쪽 명산약국 옆으로 나와 남북도로와 만나는데, 여기에서 다시 골목길로 들어가면 구 남부배차장 자리로 이어진다. 이 길이 바로 지도에 나오는 그 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옛길의 흔적은 중앙동 우체국 부근에서도 찾아진다. 우체국 앞에서 성미당 앞을 지나는 골목길이나, 구 전신전화국 뒷골목도 조선시대 도로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객사 뒤 한일관 골목이나 한성 여관 부근의 복잡한 골목길도 조선 후기 전주 부성의 옛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림 33. 우체국 앞 성미당 골목



그림 34. 한성여관 골목

III. 전주 주변의 역로와 옛길

1. 전주 부근의 역로와 역원

각 고을을 연결하는 옛길은 본래 통치의 목적으로 닦은 것이었지만 사업이 발달하면서 중부·남부 지방의 도로들은 점차 민간교역로의 기능을 맡게 되었고, 북부지방의 도로는 변방의 경비나 사신왕래 등을 위한 군사적·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신라시대부터 역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전국에 역도가 조성되었다. 이 교통 통신망이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대로·의주대로·산남대로·관동대로 등의 간선도로가 전국을 사방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도로를 중요도에 따라 대로·중로·소로로 나누고, 각각의 도로 폭은 대로 12보, 중로9보, 소로6보로 정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지방마다 지형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었다.

도로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이정표가 세워졌다. 조선시대에는 도로의 거리는 주척 6척을 1보, 360보를 1리, 30리를 1식이라 하였고, 10리마다 소후(小垸), 30리마다 대후(大垸)를 세우고 거리와 지명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사방으로 통하는 길의 거리와 지명을 기록했고, 주요도로에는 얇은 돌판을 깔거나 작은돌, 모래, 황토 등으로 포장을 했다.

도로변의 시설로는 대략30리마다 관리들을 위해 관, 역, 원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했고, 여행자와 상인들은 점·주막·객주 등을 이용했다. ‘원’ 또는 ‘점’ 들과 같은 지명은 과거에 도로에 인접한 마을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있던 역은 다음과 같다.

역도명	소속 역명	역수
삼례도	삼례(전주)반석(전주) 오원(임실) 갈담(임실) 소안(임피) 춘곡(함열)양재(여산) 앵곡(전주) 겨산(태인) 천원(정읍) 영원(고부)부흥(부안) 내재(김제)	13
오수도	오수(남원) 창활(남원) 동도(남원) 용령(남원) 인월(운봉) 잔수(구례) 지신(곡성) 양율(순천) 낙수(순천) 덕양(순천) 익신(광양) 섭거(광양)	12
청암도	청암(나주) 단암(장성) 영신(장성) 선암(광주) 신안(나주) 녹사(영광) 가리(함평) 영보(영암) 경신(무안) 광리(남평) 오림(남평) 청송(무장)	12
경양도	경양(광주) 덕기(담양) 가림(화순) 인물(능주) 검부(동북) 창신(순창) 대부(옥과)	7
백사도	백사(장흥) 가신(보성) 청파(보성) 양강(홍양) 낙승(무안) 진원(강진) 통로(강진) 녹산(해남) 별진(해남) 남리(해남)	10
제원도	제원(금산) 소천(무주) 달계(용담) 단령(진안) 옥포(고산)	5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 지역에는 삼례역, 반석역, 앵곡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례역은 찰방 1인을 두었는데 문관 종6품이었다. 그 아래에 역리 596명, 노 191명, 비 51명, 일수 31명, 말 15필이 속해 있었으며, 삼례역에는 반석역과 앵곡역 등 전라도 지역의 12개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반석역은 부의 남쪽 3리에 있었는데, 역리 75명, 노 97명, 비 38명, 일수 60명, 말 15필이 속해 있었으며, 앵곡역은 부의 서쪽 30리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장곡역이라 불리었다. 역리 94명, 노 64명, 비 13명, 말 15필이 속해 있었다.

한편 각 역로 상에는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인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주 주변에는 금광원(부 북 50리), 숙점원(서 35리), 안덕원(동



그림 35. 삼례역터(삼례동부교회 부근)



그림 36. 반석역터(전주교육대학교 부근)

10리), 사대원(남 5리), 허고원(북 30리), 장신원(남 21리). 상관원(남 40리), 추천원(서 11리), 신원(동 31리), 월당원(동 4리), 피계원(남 11리), 보산원(동 30리), 대초원(서 25리), 광제원(북 30



그림 37. 전주 안덕원터

리), 탄현원(서 16리), 모로원(북 17리), 남북원(남 8리), 모지원(남 35리), 내현원(북 40리) 등의 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안덕원, 사대원, 허고원, 금광원, 숙점원, 창신원, 상관원, 추천원, 월당원, 즐지원, 대초원, 광제원, 탄현원, 모로원, 남북원, 나현원 등이 폐지되었고, 부의 동남 쪽 25리에 신원이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난다.

전주는 호남의 수부로서 수도인 한양은 물론 전라도의 각 군현으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부터 전국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었는데, 조선 후기 전국의 도로망이 더욱 정비되어 『신증문헌비고』에는 전국의 9개의 역로를 설정하고 있다. 이중에 전라도를 지나는 역로는 제6로인 서울 통영간 대로와 제7로인 서울 제주간을 연결하는 역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제6로 통영대로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경기 충청도 은진을 전라도의 여산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탄현을 거쳐 삼례로 들어오는 간선과 벌치를 거쳐 고산으로 가는 길, 익산, 울포 만경으로 가는 길, 그리고 황등장 임피 옥구로 가는 길 등 3개의 지선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6로의 본선은 삼례역에서는 김제 동진 부안으로 연결되는 지선과 갈려 전주로 연결되고, 전주에서는 웅치를 거쳐 진안 울치 장수로 나가는 길과 염암 운암진 본역 순창을 거쳐 담양 창평으로 가는 길과 옥과 염현 동북으로 나가는 길 등 3개의 지선과 갈라지면서 만마동을

거쳐 오원역에 이르게 된다. 오원역에서 다시 임실 갈담으로 갈라지는 길과 갈려 마치 오수역을 지난 다음 율현을 거쳐 남원에 이르게 된다. 남원에서는 다시 곡성 이남 전라도와 하동 남해의 경상도로 연결되는 역로와 갈리면서 여원치 운봉 팔랑치를 거쳐 함양으로 넘어가 통영까지 연결된다.

제7로인 서울 제주간 역로는 6로를 거쳐 삼례역까지 온 뒤 이곳에서 통영대로와 갈라져 금구를 거쳐 태인을 거쳐 정읍 천원참 청암역 장성 북창 나주 영암 월남참을 지나 해남 관두량에서 수로로 제주에 이르러 대정 정의로 연결되는 길이다. 이 길에서는 태인에서 고부로, 그리고 정읍에서 흥덕 무장 영광 가리역 함평 무안으로 나가는 길과 고창으로 가는 길이 갈리고, 장성에서는 속창 광주 화순 능주 웅치 보림사 장흥 등지로 연결되는 길이 나누어 지며, 영암에서는 병영으로, 월남참에서는 강진으로 해남에서는 남리역 우수영 벽파진을 거쳐 진도로 가는 길이 나누어진다.

이러한 역로제도 하에서 전주부성의 외곽의 도로와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역로를 구체적으로 가장 잘 알려주는 자료가 앞에서 보았던 규장각 소장 1872년 전주지도이다. 물론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나 몇 개의 전주지도가 있지만, 옛길의 실태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1872년 지도는 조선 후기 전주부 관내의 마을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각지역을 지나는 옛길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제부터 이지도를 통해서 전주부성으로부터 다른지역으로 연결되는 옛길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전주 북쪽 방면의 옛길

전주로부터 한양을 나가는 길은 삼례역을 거쳐 여산 황화정에서 충청도 은진으로 넘어가 통영대로를 따라 북상하게 된다. 황화정은 지금의 논산 육군훈련소 부근에 있던 정자로 신구 전라감사가 임무교대를 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1963년 1월 1일부로 충청남도 논산군 연

무음으로 편입되었다.

이 때 전부 부성에서 삼례역에 이르는 옛길은 어떠했을까? 우선 부성의 정문인 남문에서 출발한다고 보



그림 38. 1872년 전주지도 중 전주부성 북쪽 부분

면, 남문으로부터 남쪽 성벽을 따라 서쪽으로 우회하여 옛날 황외과 뒤편 약전거리 골목을 경과하여 현재의 서문교회 뒷편을 지나면서 서문에서 시작하는 길과 만나서 전주천을 따라 내려가 숲정이를 지나 떡전거리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주 부중 북문에서는 비석거리(태평동 파출소 옆)을 지나 숲정이를 지나서 떡전거리로 이어지게 된다.

떡전거리에서는 사평리를 지나 가련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가리



그림 39. 황화정 자리(충남 연무읍)



그림 40. 황화정비

를 지나서 추천 거너 신보리(팔복동), 감수리(북전주역 부근)를 지나 주엽쟁이(평리, 삼화동)를 지나서 한내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은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남원으로 내려갈 때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 유명하다. 평리 마을 입구에는 ‘춘향전에 이도령이 한양갈 때 밟고 간 다리’라는 글이 새겨진 입석이 세워져 있다. 한편으로는



그림 41. 숲정이



그림 42. 떡전거리(고속버스터미널 앞)

떡전거리에서 하가리를 거치지 않고 가련산 동쪽을 통해 추천을 건너 감수리를 거쳐 한내에 이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내에는 전주천과 고산천이 만나는 조금 아랫부분에 합천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내를 건너 비비정을 왼쪽에 두고 북상하여 여수코빼기의 찰방다리를 건너 삼례역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주북성 북쪽방면의 옛길로는 서울로 올라가는 삼례역로의 중간인 숲정이 부근에서 분기하여 덕진 연못앞 가련산을 넘어 회포면에서 고산천을 넘어 오백조면을 거쳐 북상하는 소로가 있었다. 그리고 삼례 방향으로 가다가 추천을 지난 다음 감수리에서 고랑리를 거쳐 이북면 대초원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있었다. 그 한 갈래는 사천진에서 만경강을 건너 오늘날 익산시인 동일면 석탄리 석불리를 지나 오늘날의 익산 부근에서 오산리 쪽으로 이어졌다. 대초원 부근에서 갈라진 또 한 갈래의 길은 이북면을 거쳐 만경강을 따라 신창진으로 이어지는 대로였다. 한편 삼례에서 김제 쪽으



그림 43. 추천대에서 바라본 전주천



그림 44. 평리마을 입석

로 내려가는 제7로는 한내천을 건넌 뒤 용정리를 지나 도로공사 수목원 부근을 지나 원동을 거쳐 앵곡역으로 이어진다.

3. 전주 남쪽 방면의 옛길

전주에서 남쪽 방면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동문과 남문에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문에서는 곧바로 전주천을 향해 남진하다가 전주천에서 전주



그림 45. 1872년 전주지도 중 전주부성 남쪽 부분

천 우안을 따라 중진영 앞의 남천교에 이르게 되고, 동문에서는 장터를 왼쪽에 두고 동쪽 성벽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중진영 동쪽 담장을 돌아 역시 남천교에 이르게 된다. 남원 방면으로 가는 길은 남천교를 건너 반석역을 지나면서 남고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오른쪽에 두고 동쪽으로 가다가 좁은 목을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주천을 다시 건넌 다음 객사동과 은석리를 거쳐 상관면의 신원을 거쳐 만마관 슬치 고개를 넘어 임실 방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운암 순창 방면으로 가는 길은 반석역에서 읍양정(교대부속 초등학교 자리)을 오른쪽에 두고 올라가다가 공수내를 건너서 장승백이



그림 46. 전주천과 다리



그림 47.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목

와 꽃밭정이를 지나 난전면의 삼천리와 추동리를 지나 구이동면의 염암리, 유점을 지나 임실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공수내에서 흑석골을 지나 보광치를 넘어서 평촌으로 연결되는 고갯길이 있어서 태실리를 지나 불재를 넘어 운암이나 임실쪽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평촌에 예종대왕 태실과 경복사와 보광사 등 큰 절이 있어 왕래가 번번하였던 옛길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이동에서는 삼천을 따라 우림곡면의 거마리까지 소로가 있어서 전주에서 태인과 금구로 가는 역로와 연결되었다.



그림 48. 공수내 다리



그림 49. 꽃밭정이사거리

4. 전주의 동쪽 방면의 옛길

전주에서 진안이나 고산으로 나가던 옛길은 대체로 안덕원을 경유하였다. 동문에서 시작한 길은 동문밖 민가와 장터를 지나 관선암 부근까지 나온 다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인봉리를 지나 서낭댕이 고개를 넘어서 진안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도마다리를 지나면 안덕원에 이르게 된다. 북문에서는 바로 동쪽으로 향하여 연무정을 왼쪽에 두고 가다가 진안 삼거리에서 동문에서 시작된 길과 합류하여 안덕원에 이르게 된다.

진안으로 나가는 길은 안덕원에서 상중리를 지나 단암사 앞에서 소양천을 건너 소양면 국촌리(화심)을 지나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몇

갈래 고개길에 이르게 된다. 먼저 구진리에서 조약치길이 갈라지는데, 이 길은 오늘날 소태정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의 고개길 부근이다. 이어서 신원리를 거쳐 삼중리에서 경래재길이 갈라지고, 이어서 두목리에서 덕봉재길이 갈라지며, 마지막으로 웅치리(웅상)에 이르러 곰티재길이 나오게 된다. 경래재와 덕봉재, 곰티재길은 각각 고개너머에서 오늘날의 모래재길과 만나 진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고개길은 임진왜란 때 전주와 호남을 지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웅치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 길 외에 전주부성에서 서낭댕이와 안덕원을 거쳐지 않고 진안방면으로 나가는 소로도 있었다. 동문밖 관선암을 오른편에 두고 전주상고 자리인 인봉리 마당재를 지나면 가재미 한범리를 거쳐서 아중골에 이른다. 여기에서 아중천을 넘어 지금 아중역 부근의 행치마을을 왼편에 두고 행치를 넘으면, 이방간의 묘가 있는 용진면 금상리가소리를 지나 신주리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전주



그림 50. 1872년 전주지도 동쪽 부분



그림 51. 서낭댕이 고개



그림 52. 도매다리 자리

에서 진안으로 나가는 길과 만나게 된다.

전주에서 고산으로 가는 길은 안덕원에서 장재리를 거쳐 초곡면 상일리와 이리를 지나 초포에서 용진면 쪽으로 고산천을 건너 봉상면의 봉강리(오늘날 봉동)의 장터를 지나서 북상하면 고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에서 소양면 국촌리(오늘날 화심) 부근에서 왼편으로 소로가 갈라져 송광사를 왼쪽에 두고 올라 가게 되면 위봉산성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만리 음수동과 대아리를 거쳐 고산 삼기리로 연결된다.



그림 53. 마당재



그림 54. 행치전경(이중역 동편)

5. 전주 서쪽 방면의 옛길

전주에서 태인이나 금구로 나가는 옛길은 서천교를 경유하였다. 남문과 서문에서 나온 길은 각각 성벽을 따라 전주 부성 남서쪽 모퉁이에서 합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주천을 향하여 가면 서천에 이른



그림 55. 1872년 전주지도 중 전주부성 서남쪽 부분

다. 여기에서 서천교를 건너 군자정(현재의 기령당)을 왼쪽에 두고 용머리고개를 넘어서 우림곡면의 거마리에 이르게 된다. 거마리를



그림 56. 서천교사적비와 서천교



그림 57. 용머리 고개

조금 지나 삼천을 건너 정동리를 거쳐 황소리에 이르게 된다. 이어서 독배 계곡을 지나 술재 고개를 넘으면 청도원에 이르고, 여기에서 귀신사를 오른쪽에 두고 계곡과 계류를 따라 내려가면 동곡에 이른다. 여기에서 금평저수지를 지나 곧장 내려가면 원평을 거쳐 태인에 다다르게 된다. 이 길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퇴한 동학군이 전주부성을 점령하기 위해 지나갔던 길이라고 한다.

전주에서 금구로 가는 길은 앞에서 설명한 태인으로 가는 길의 거마리에서 갈라져 쌍룡동, 태평리를 지나 석산리에 이르러 삼천을 건너고, 이어서 신덕리를 지나 숲고개(쑤고개)를 넘으면 금구에 이르게 된다. 김제로 나가는 길은 거마리에서 금구방향으로 조금 가면 쌍룡동 길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남면 개태리를 지나서 이서를 거쳐 김제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서문 밖에서 사마교를 지나 다가정과 회현당을 왼쪽에 두고



그림 58. 선너마길(사내방향)



그림 59. 화산서원비

화산치를 넘으면 화산리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화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너머(선너머)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부근의 길을 선너머 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동면을 거쳐 이북면 전주에서 신창진으로 가는 대로와 만나며, 남쪽으로는 이서면을 거쳐 김제로 가는 대로와 만나게 된다.

III.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이전의 전주의 옛길을 살펴보았다. 전주의 옛길은 전주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서려 있고, 기쁨과 눈물, 그리고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러한 전주의 옛길은 전주의 역사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변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주는 전라도 지방의 통치 거점으로서 감영과 부영이 위치한 성곽도시였다. 전주부성 안에는 4대문과 각종 관아시설 및 민가를 연결하는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주의 도시구조와 가로망은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성곽이 파괴되고 강제적으로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수차에 걸쳐 도로의 폭이 확장되고 구부러진 길이 직선화되고, 또 도로 포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성내의 옛길은 비록 그 선형은 조선시대 도로망을 근간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주의 구도심 지역에는 옛날 전주 부성의 가로망의 잔형을 찾아 볼 수 있는 골목길이 아직 남아 있다.

전주부성 주변 지역의 옛길 또한 전주의 도시 팽창과정에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도시구획정비 사업으로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택지개발이나 도로의 신설 등으로 옛길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외곽에는 옛길의 선형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전주 외곽으로는 서울은 물론 주변 군현을 연결하는 역로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역로는 또한 다양한 소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옛길은 일제 침략기 전후 신작로 개설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의 옛길이 신작로로 개수되기도 하고, 일부는 선형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철도나 고속도로 등 새로운 교통로가 건설되면서 버려지고, 또한 농지의 정리, 공단의 건설 등 토목공사로 옛길의 형태는 거의 사라져 버렸고 그 옛길의 선형마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사회 발전 과정에서 길의 변천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길의 변천과 발달은 필연적인 것이다. 역사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옛길이 버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옛길이 없어짐으로서 그 길 위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소중한 자취가 함께 사라지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편리성 속에서 너무도 쉽게 옛것을 버린다.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적 발전에 따른 풍요로움 속에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부성을 기점으로 하는 옛길은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주의 옛길은 전주인의 삶의 흔적과 역사의 자취가 서려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주에 남아 있는 옛길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옛길의 자취를 찾아내고 보존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오늘날 길은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의 하나이다. 능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경제 사회에 있어서 빠르고 편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인의 역사와 추억이 서려있는 소중한 옛길의 자취를 찾아내고 보존함으로써 전주가 경제발전과 아울러 역사문화가 숨쉬는 진정한 전통문화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지도』, 규장각 소장 18세기 전반
 『전주지도』, 전주국립박물관 소장 19세기 후반
 『전주지도』, 규장각 소장 1872년
 『오만분의일 전주지도』, 조선총독부, 1916
 『오천분의일 전주지도』, 국립지리원, 1981
 『완산지』, 여지도서 소수, 19세기
 『전라감영지』, 필사본, 1909경
 『전라북도지』, 전라북도, 1989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전주사』, 전주시, 1997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전주역사박물관, 2007
 이철수, 『전주야사』, 전주시관광협회, 1967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한국예총 전주지부, 1994
 조법중 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전주의 물길 - 개발과 보전

송경언 (전북대학교 쌀·삶·문화연구원 HK교수)



I. 만경강의 개발

II. 전주의 삶이었던 전주천

III. 전주천의 개발

IV. 전주천의 자연화

V. 전주 물길의 개발과 보전

1. 도시의 구조를 고려한다
2.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다
3. 물길은 생태축의 하나이다
4. 공간이용을 치밀화 한다

I. 만경강의 개발

하천은 생활권이 구분되도록 한다. 하천을 따라 문화도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북 민요권의 범위들(김익두, 1996)은 금강유역권(무진장 지구), 만경강유역권, 동진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임순남 지구) 등의 범위와 유사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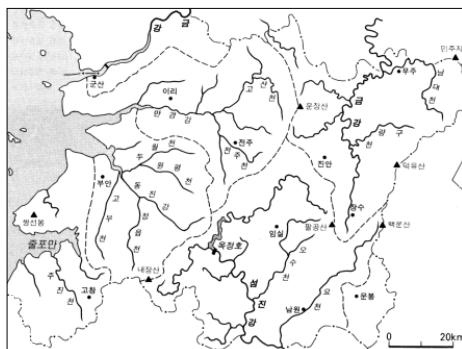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북도의 하천 유역 구분
- 출처: 권혁재, 1995, p.294.

호남평야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형성되어 있는 호남평야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바다에 의해 형성된 간석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의 물이 호남평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등고선은 100m를 나타낸 것이므로 지도상의 대부분은 고도가 100m 이하인 곳에 해당된다. 동부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서부의 낮은 평야지대에서 여러 물길로 나누어지게 된다. 성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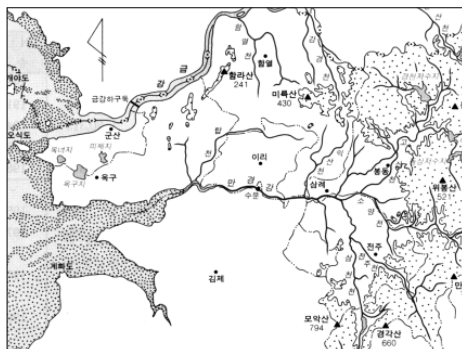


그림 2. 전주천과 만경강 지역의 지형
- 출처: 권혁재, 1995, p.302.



그림 3. 만경강 유역의 대간선 수로
-출처: 조성욱 2007, p. 192.

익은 전라북도의 물길에 대해 산발사하(散髮四下)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최창조, 2000: 117). 여러 물길은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한다¹⁾.

전주 지역의 물길들은 만경강으로 모여든다. 만경강은 호남평야를 만들었고, 전주는 호남평야에 자리 잡고 있다. 만경강의 개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와 농업용수의 개발은 함께 이루어졌다. 일제시기의 군산 지역 간척은 옥구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북쪽은 미면 간척지, 남쪽은 옥구 간척지로 구분된다(남궁봉, 2000: 330). 두 지역의 간척은 1920-1923년에 이루어졌고, 이곳의 농업용수는 1922년에 축조된 대아댐에서 수로를 통해 이동한다. 대아댐과 옥구저수지를 연결하는 대간선 수로는 약 60km에 이른다(그림 3). 간선 수로는 농업용수를 위한 물길로 이용되었고, 만경강은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물길이 되었다.

만경강의 직강화는 1926-1940년의 하천개수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만경강 중·하류 지역의 농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하천 범람을 막고자 하였다. 자연재해를 막음으로써 농지를 확보하고자한 셈이다. 만경강은 직강공사(그림 4)로 그 길이가 99km에서 82km로 17km나 줄어들었다(이형석, 1990: 367).

만경강과 연관된 개발이 농업활동이나 공간조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경강과 연관된 수리와 농지 개발의

1) 바다의 물까지도 고려해보면 전주는 한국에서 해수욕과 스키를 즐기기에 1시간 정도만 이동해도 되는 유일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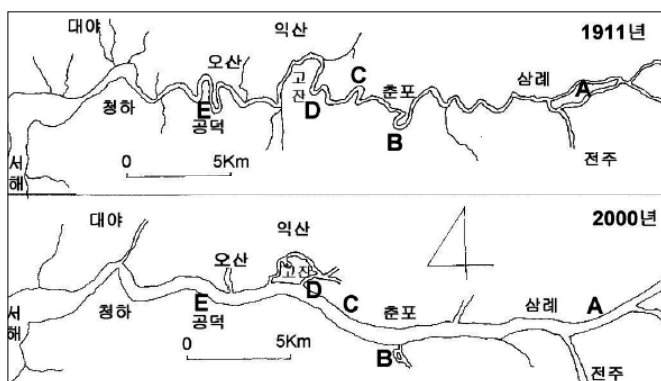


그림 4. 만경강 유로의 변화
- 출처: 조성옥, 2007, p. 195.

내용은 그 시기 한국의 개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개발 정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국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은 급하지 않은 개발을 가져오거나 지역과의 연관성을 줄일 수 있다. 급하지 않은 개발은 토지이용과 공간조직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은 미단작을 지향했고, 공간조직은 이중구조를 나타냈다. 호남평야의 농지개발이 하천 범람원이나 해안의 간석지에서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단작의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논농사는 하천유역에서 대체로 상류보다는 하류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중구조의 문제는 군산이 급격히 개발되고 철도의 중심이 됨으로써 기존에 전주 중심의 도로망과는 유리된 새로운 공간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 의한 적극적 개발이 초래하는 두 번째의 문제인 지역 연관성의 감소는 파급효과 대신 역류효과를 초래했다.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목표는 해당 지역으로의 파급효과이나 오히려 역류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Song, 2009: 21-22).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각 장의 공간적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전북 전체와 관련된

만경강, 전주라는 도시 속에서의 전주천, 전주천과 그 주변, 전주천 등으로 점차 그 공간적 범위가 대체로 작아진다. 이들은 시기적으로도 순차적으로 전개되는데, 공간적 범위가 작을수록 오늘날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낸다.

II. 전주의 삶이었던 전주천

도시는 하천을 끼고 발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주천은 전주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다. 전주천의 발원지는 임실군 실치재이고, 전주시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길은 전주의 남쪽 좁은목에서 시작된다. 전주천은 길게는 발원지에서 만경강으로의 합류 지점까지이지만, 짧게는 한벽당에서 삼천과 만나는 지점까지를 가리킨다(홍성덕, 2007: 25). 이 글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가지 사이에 있는 전주천 즉, 한벽당에서 삼천 합류 지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천은 예로부터 서천과 남천으로 구분해왔다. 이는 전주의 옛 중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주천은 범람하면서 주변의 평지를 만들어냈다. 진밭뜰, 장제뜰, 용산뜰, 사평뜰, 가르내뜰 등의 지명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분지라기 보다는 선상지(扇狀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주시사, 1974: 18-20).

후백제까지도 중바위에서 칼바위에 이르는 전주의 동쪽 구릉이 주요 삶의 터전이었고, 퇴적층인 구도심은 농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사람들이 전주천에 보다 가까이 거주하게 된 것은 전

주성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중엽 이후이다(전북일보, 2006년 7월 24일자).

전주천의 물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물길이 하천 외부로 바뀌는 경우와 하천 내부에서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첫번째이다. 현재의 전주천 외부로의 유로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전주천의 물줄기가 지금과 달리 전주의 동쪽구릉 아래를 따라 북쪽으로 곧바로 흘러들어 갔었는데, 점차 서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상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볼때 인공적으로 물길이 고정되기 이전까지는 유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전주시사, 1974: 18-20). 발원지에서 토사를 운반해오던 전주천은 좁은목을 지나면서 가지고온 토사를 한벽당 부근부터 퇴적시키기 시작했다. 선상지는 음료수를 얻기가 쉽고, 배수가 양호한 반면, 홍수의 피해를 입기가 쉽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1936년에 시가지의 대부분이 침수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제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물길이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진 1-1. 한벽당 지역의 변화(1960년대)



사진 1-2. 한벽당 지역의 변화(2009년대)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27.

한벽당이 자리잡은 지역은 전주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사진 1). 이는 전주천이 전주시가지로 들어오며 방향을 바꾸면서 만들어낸 경관이다. 한벽당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의



사진 2-1. 한벽보에서의 빨래와 수영



사진 2-2. 둔치의 남부시장



사진 2-3. 둔치의 웅기점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110.

미하는 한벽청연(寒碧晴烟)이 그려지게 된다. 전주천에서의 추억을 사진에 담고 있는 무대 중에 제일로 꼽히는 곳이 한벽당 경관이었다.

전주천과 천변에서 여인네들은 빨래하고, 어린이들은 먹을 감으며, 상인들은 점포를 열었다(사진 2). 빨래는 우수에 오수를 더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정도가 하천의 자연정화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남천교에서 빨래하는 풍경은 남천표모(南川漂母)라 하여 완산 8경의 하나였다. 1950년대 전후에는 빨래하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교동과 서학동을 잇는 남천교, 다가동과 화산동을 잇는 다가교 등의 부근이 빨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었다. 빨래하러 전주천에 나오는 길은 이웃들과 얘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기도 하는 길이었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은 냇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였다(송영상, 2000: 296-297).

조선시대에 전주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통치했던 전라감영이 있었고, 전주천 일대에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9일자). 전주천 변에서는 시장이 열렸다. 조선시대 전주 부성 사방의 성문 밖에는 정기시장이 있었다. 서문밖 시장과 남문밖

시장은 전주천변에까지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서문밖 시장은 7일 장으로 소금과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거래되었고, 남문밖 시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물이 거래되었다(홍성덕, 2007: 27-28)

전주천의 삶은 다리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시가지의 확대에 따라 다리들은 도심의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도 놓여졌다. 오늘날 시가지를 끼고 있는 전주천의 다리들도 그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심의 남쪽에 위치하는 다리들은 남천교, 전주교(짜전다리), 매향교(연죽교), 서천교, 완산교(염전교), 다가교 등 남천교에서 다가교까지이다(그림 5). 이들은 전주부성 시기부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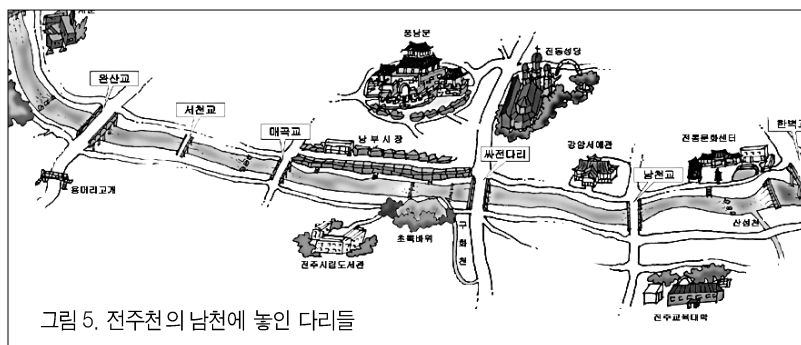


그림 5. 전주천의 남천에 놓인 다리들

- 출처: 전북일보, 2006년 7월 12일자

다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장이 열렸는데, 이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전주교에서 완산교 사이의 천변에는 여러 곳에서 장들이 열렸다. 다리 주변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점과 전주천변의 너른 공터가 있었기 때문이다(홍성덕, 2007: 29). 이곳은 오늘날에도 남부시장이 위치하고, 둔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며 다리 아래에는 노년층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김규남·이길재, 2002: 34).

전주교는 싸전 거리 옆이어서 싸전다리라 불리었다. 매곡교는 연죽교라 불리었는데, 이는 서척교까지 담배장수들이 좌판을 벌인 것

에서 연유한다. 매곡교 아래쪽은 우시장이 열려 쇠전천변이라 일컬어졌다(송영상, 2000: 292-293). 완산교가 염전교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조선시대에 소금이 귀했는데 소금장수들이 장사판을 벌인 것에서 연유한다. 완산교는 용머리고개를 통해 경목선(京木線)과 이어졌다. 이는 전남지방에서 공급되었던 소금이 완산교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곡교에서 서천교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책방거리가 있었다. 전주천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는 둔치에 장옥과 초가집들이 있었는데, 책방거리는 물길에 가장 가깝게 위치했었다고 한다. 서천교는 전주부성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성벽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는데, 서문박장과 남문박장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숙박기능들이 위치했다. 매곡교는 완산다리라고도 불리었는데, 남부시장권은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매곡교의 동쪽은 북적뎠고, 서쪽은 주택지였다. 전주천 너머 완산동은 나무전이 있었고, 매곡교 넘기전 전주교 중간지점까지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섰다. 판자촌에는 종이방, 주점, 국수집, 수제비집, 옷전, 기름집, 개고기집 등이 양쪽으로 밀집해 있었다. 다리 주변에는 번데기장수, 우뭇가시장수, 개떡장수, 풀떼기장수 등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김규남·이길재, 2002: 35-37). 이러한 삶이 어어져 오는 것이 오늘날 남부시장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천에서의 빨래, 떡, 상거래 등은 전주천에 제방이 쌓이면서 점차 옛 모습을 잃어 갔다(김규남·이길재, 2002: 30).

남천교는 짜전다리가 나무로 엮은 임시다리일때 풍남문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다리였다. 짜전다리가 전주의 중심 다리로 부각된 것은 1910년 홍수로 남천교가 무너지고 1922년 짜전다리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면서이다. 짜전다리와 함께 1922년에 콘크리트로 놓여진 완산교는 서문박시장과 연결되었다. 짜전다리와 완산교는 물자 집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적 교통로도 이 다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홍성덕, 2007: 29).

전주천에는 배도 떠 있었으며, 천변에서는 활쏘기도 이루어졌다. 전주기전대학과 어은골 사이에 배마울(舟洞)이라는 지명도 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홍성덕, 2007: 27). 전주팔경의 하나인 다가사후(多佳射候)는 다가천변에서의 활쏘는 풍경을 가리킨다.

풍남동의 건너편에는 수탈과 선교, 파란의 역사가 있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풍남동 일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신사참배와 예수병원·신흥학교·기전학교, 동학군 활동 등의 역사를 담고 있다(전북일보, 2006년 8월 8일자).

하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업활동도 존재하였다. 전주의 대표적 제조품 가운데 하나인 한지는 만경강의 지류인 소양천과 전주천의 지류인 공수내 인근에서 생산되었다. 공수내가 흐르고 있는 흑석골은 한지 생산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었다. 현재는 도로로 복개된 공수내와 자연하천이 만나는 부분에 한지 제조업체가 한 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흑석골의 물은 마르는 일이 없고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더욱 한지 생산에 적합하다고 한다. 전주의 한지 생산은 풍남동에서 시작되었는데, 해방 이후 도심의 확대에 따라 물이 깨끗한 흑석골로 이동하였다. 1960년대 초에는 하천수를 이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천수가 부족하고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80년대 초에는 14개 업체 모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김재희, 1983: 36-37). 한편 조선시대에는 도토리골 천변에 외지소(外紙所)가 있어 종이를 만들었다고 한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9일자).

III. 전주천의 개발

전주천을 개발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재해가 있었다. 1936년에 발생한 홍수는 전주천의 옛 모습과 다리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언급하는 내용이다. 서학동과 완산동, 교동과 다가동 일대가 물에 잠겼고, 다리 가운데서는 전주교만 남게 되었다(송영상, 2000: 292-293). 전주천의 다리는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왔다. 홍수가 다리를 무너뜨려도 다리들은 다시 세워졌다. 전주천 제방들도 홍수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왔다.

1960년대 중반의 신문기사에서는 전주천의 하상개수공사가 물이 멋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언급되고 있다(제5회 강의 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8). 이는 하천 내부에서의 물길 변경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전주천의 물길은 대부분 고정되었다. 물이 범람하는 것은 제방에 의해 막혔지만, 하천 안에서는 집중호우가 지난 다음 깊이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물길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 물길의 개발은 가까이는 둔치와 친변, 멀리는 시가지 개발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전주의 시가지 개발과 전주 물길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시가지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이고, 그 시기는 1900년대 중반, 1910년대 중반, 1950년대 중반,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등이다. 이 가운데 시가지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형도의 시기는 190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등이다(그림 6). 1900년대 중반의 시가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동쪽과 북쪽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0



1900년대 중반 - 출처: 남영우, 1996.



1970년대 중반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6-1. 시기별 전주 시가지와 전주천



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그림 6-2. 시기별 전주 시가지와 전주천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년대 중반에는 건산천 북쪽에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기존 시가지의 동쪽뿐만 아니라 전주천의 남쪽과 서쪽에서도 시가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에는 전주천 남쪽과 서쪽의 시가지가 그 반대편 시가지의 규모에 못지않을 정도로 형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주천이 시가지 양쪽을 비슷한 규모로 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가지 개발에 대해 동별과 개발지구별로 보면 1960, 1970년대에는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인후동의 일부가 개발되어 전주를 둘러싼 산자락 안쪽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는 전주 시가지 확대의 1차 시기로 남북 방향의 도시개발이었다. 2차의 시가지 확대는 전주 외곽의 동쪽과 서쪽이 개발되는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삼천지구와 효자지구, 1990년대 중반에는 서신지구와 아중지구가 개발되기에 이른다(김규남 · 이길재, 2002: 100).

전주천의 남쪽과 서쪽은 주거기능 중심에서 사무기능과 상업기능

도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양 쪽 지역은 점차 기능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가지는 확대되는 반면, 물길은 복개되어 축소되어 있다.

전주의 시가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전주천 지류의 복개이다²⁾. 시가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70년대에는 금암천과 노송동의 무명하천과 노송천, 1980년대에는 중앙시장 하천, 1990년대에는 건산천(모래내)과 공수내(사진 3, 4) 등이 차례대로 복개되었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9-81). 모래내와 노송천의 경우는 1990년대 말에 복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는 전주천의 복원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비슷하다. 지류의 물이 전주천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하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복개, 다른 한 쪽은 복원이 이루어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천이 복개된 곳에서 지상공간은 도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



사진 3. 공수내와 공수내 다리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61.



사진 4. 공수내 복개로 만들어진 도로



사진 5-1. 전주천의 지류들(건산천)



사진 5-2. 전주천의 지류들(산성천)

2) 한편 시가지를 끼고 있는 전주천의 물길 자체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 지하공간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곳은 지상과 지하 모두 비생태적인 공간에 해당된다. 도시 하천의 복개는 물길을 덮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화와 기억들을 묻는 것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전주천 가운데 남천으로 흘러드는 산성천, 원당천, 객사천 등은 복개되지 않고 흐르고 있다(사진 5).

천변과 둔치에 대해 살펴보는데, 다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둔치와 천변은 구분하고자 한다. 둔치는 하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반면, 천변은 둔치를 포함하는 하천의 옆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방이 온전하게 쌓이기 이전에 둔치와 천변의 구분은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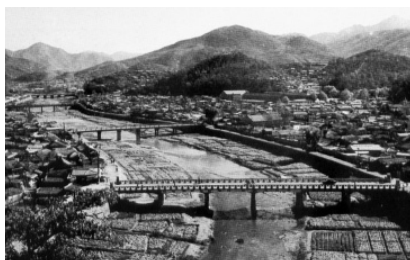


사진 6. 1960년대의 둔치와 천변도로



사진 7. 1970년대 말에 개설된 천변도로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15, p.66.

전주천변에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었다. 이는 기존의 간선도로가 전주천과 수직이었던 것에 평행인 간선도로가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도로가 하천과 수직이면 하천의 양쪽 지역은 통합이 되지만, 큰 도로가 하천과 평행이면 두 곳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변도로가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바뀐 것은 1970년대 말이다(사진 6, 7).

둔치는 개발되기 이전에는 서민들의 생존공간이었다. 도심과 가까이 거주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들은 둔치를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매곡교 상류 전주천 바닥과 한벽당 상부 및 다사고 천변에 총 1백여호의 판자집들이 매년 여름이면 홍수에 휩쓸릴 것을 각오하고 하루살이를 계속하고 있었

그림 7. 전주천의 서천에 놓인 다리들

- 출처: 전북일보, 2006년 7월 12일자.

1970년대에 전주천의 다리는 전주부성 시기의 6개에다 진북교와 서신교가 추가된 8개였다(송영상, 2000: 292-293). 이시기에 서신교는 전주시에서 서신동 지역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다(김규남·이길재, 2002: 41). 오늘날 전주천의 다리들 가운데 서천에 위치한 것은 도토리골교에서 가련교까지이다(그림 7). 이들은 도심과는 거리가 있으며 개설 시기에 있어서도 남천의 다리들에 비해 대부분 늦다고 할 수 있다.

IV. 전주천의 자연화

바야흐로 생태를 개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은 반드시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행위이다. 개발이 파괴를 의미하게 된 것은 과거의 개발 즉 잠재력의 실현이 주로 파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 복원에서 ‘청계천 복원’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데, 도시의 규모에 따라 그 복원의 성격은 적지않은 차이를 보인다. 거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하천 복원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전주천 자연하천형 조성사업은 지방중심도시의 하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선거 공약에서 특히 도시의 경우 과거에는 도로, 공장 등의 건설이었으나 오늘날은 물길 복원, 숲 조성 등을 많이 내세우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물길 복원은 생태공간의 개발에 해당된다³⁾. 그러나 생태의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

전주의 물길에 대한 개발의 과정을 그 대상 공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시기에는 하천의 길 및 제방으로 하천을 선적으로 대하였고, 산업화시대에는 초기의 둔치 및 제방과 후기의 천변으로 하천을 면적으로 관리하였다. 친환경시대에는 하천 줄기와 둔치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하천의 선들과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태를 위한 개발’ 또는 ‘개발을 위한 생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주 지역 개발을 위한 전주천 자연화 사업은 개발을 위한 생태인 반면, 전주천 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주천이라는 생태의 유지를 위한 개발에 해당된다.

이른바 전주천 복원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공업화 시대에 물자의 이동을 위한 도로가 중시됨으로써 무시되었던 물길이 다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2000-2002년 동안 한벽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학훈, 2004⁴⁾. 구체적인 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특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사업의 주요 대상 공간은 물길의 바닥과 벽, 둔치였고, 주요 내용은 하천의 자연화와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천의 자연화를 위해서는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바닥에는 여울과 소⁴⁾를 만들고, 가능하면 곡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둔치는 녹지화를 추진하였다. 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물길에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둔치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자연화 사업을 통해 전주천에는 1급수에 서식하는 쉬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하천 위쪽에만 있어왔으나 물길 자체에도 징검다리 형태로 놓이게 되었다. 하천 위쪽의 다리들은 개발된 곳을 이어주는 반면, 물길에 놓인 징검다리들은 생태공간을 이어준다. 위의 다리들은 일상적인 공간으로 하천 외부의 큰 도로와 연결되는 반면, 밑의 다리들은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하천 외부의 작은 도로와 연결된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천의 자연화를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덕진보의 철거라고 할 수 있다. 덕진보는 하가마을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놓여온공사가 1958년도에 설치한 것이다(사진 8). 물

4) 여울은 자갈이 쌓여 있는 부분으로 물이 얇고 바닥의 경사가 급하며, 물이 소리를 내면서 빨리 흐른다. 여울과 여울 사이에서는 물이 조용히 흐르고, 깊으며 바닥에 모래가 있어 먹 감기에 적당하다. 여울과 대응되는 용어는 풀(pool)이다. 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곡류하므로 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천 양쪽에 번갈아 나타난다. 물이 아주 깊은 곳은 소(沼)라고 한다(권혁재, 2005: 99).

에 대한 관리의 시기를 치수, 이수, 친수 등으로 구분한다면, 덕진보는 이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친수의 시기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덕진보에 의한 물길 차단으로 사평마을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2일자). 결국 덕진보는 2007년에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사진 8. 옛 덕진보 -전북일보, 2006년 12월 12일자.

이러한 공간이용의 변화는 치수와 이수 시기에 이용했던 것을 친수 시기에는 이에 알맞은 용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화 사업후에 장마시 하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자연형 하천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둔치는 전주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친수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 전주천 하류의 천변은 개발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주천 북쪽에 비해 자연조건상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천을 자연화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적지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천의 개발 방안들에 대한 수정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하류의 물을 정화하고 상류로 끌어들이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안과 한백당 부근에 보트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되었다(신진철, 2007: 31).

전주천에 이어 그 지류들에 대한 자연화 사업도 논의되거나 시작되고 있다. 중앙시장 북개구간, 노송광장에 덮혀있는 노송천 등의 복원과 건산천의 미북개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26일자). 전주천을 끼고 있는 시가지의 확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물길은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V. 전주 물길의 개발과 보전

전주천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의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천의 자연화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하천은 도시 속에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하천을 축으로 형성되고, 도시의 문화는 하천과 긴밀하다. 하천의 생태는 물길의 체계와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는다. 하천의 개발은 그 생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 도시의 구조를 고려한다.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도시의 구조를 검토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도시의 규모이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개발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친환경적 개발의 전략들도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 제목은 규모 자체가 친환경적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모가 작을 수록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이다. 자전거가 도시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규모에 달려 있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개설 가능성과 자전거 이용자의 대기 오염 노출 정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의 도시 규모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전주 시가지는 전주천을 끼고 있다. 따라서 전주천에 대한 논의에는 전주 시가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전주 시가지에 대한 논의에는 전주천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들간의 관계이다. 전주천이 그

양쪽 지역들을 통합하는가 또는 분리하는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시가지가 전주천의 한쪽에서만 형성되었던 1960년대 이전에 전주천은 양쪽 지역을 강하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물자들은 가까이와 멀리서 집산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생활은 전주천과 긴밀하였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기능들은 점차 줄어들거나 소멸되어갔다. 친환경시대에는 전주천의 생태와 문화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

둘째, 전주천의 개발 내용은 주변 시가지의 기능에 어울리게 하고, 주변 시가지의 개발은 전주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천과 아파트와 공장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사진 9). 전주천은 개발시대



사진 9. 전주천과 아파트와 공장 굴뚝

에는 버려져 있었으나 보전시대에는 복원을 지향하고 있다. 아파트가 자리잡은 곳은 개발시대에는 매립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친환경시대에는 거주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공업단지는 산업화시대에 입지하였으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주천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서도 하천과 도시의 기능을 연관시키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인접한 둔치에 생태 체험을 위한 실개천이 만들어지고 신시가지 인근에 수변무대가 마련된 것들을 수 있다(신진철, 2007: 32).

셋째, 전주 시가지와 하천에서의 흐름을 대상으로 한다. 옛부터 전주천의 양쪽에 시가지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전주천의 남쪽에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전주천의 오염정도는 자연정화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가지에서 물길은 바람길 역할까지 한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많

이 들어서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물길이기 때문이다. 전주의 경우 공업단지가 시가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바람길이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장 굴뚝의 매연 배출 시기가 바람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어 매연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생태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에는 시청에 도시 기후와 연관된 부서를 두고 있다. 바람길 지도도 이 부서에서 만들어진다.

2.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다.

생태에 해당되는 하천 개발의 방향은 그 생태와 연관되는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의 복원은 일차적으로는 방치했던 생태의 복구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묻혀졌던 문화의 복원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 내용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더욱이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전주 시민의 삶은 전주천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전주의 문화 가운데는 전주천과 연관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사업 가운데 전주천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첫째, 전주천의 문화를 반영해왔던 것 중에 다리와 이와 인접한 시장들은 가장 중요하다. 다리와 연관된 공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특색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리 밑의 공간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주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들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전주천의 물길에 가장 인접한 활동으로는 물을 직접 이용하는 빨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연화 사업을 통해 다가고 부근의 빨래터로 나타났다. 물을 이용하는 활동이지만 전주천 본류 보다는 지류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한지 제조를 들 수 있다. 한지 제조업체는 전주에 많이 분포하는데, 전주천 지류가 흐르는 흑석골에 입지했던 업체들이 팔복동의 산업단지로 이동해 갔다. 한지제조업의 입지는

과거에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물이 알맞은 곳이었으나, 친환경시대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었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전주천과 관련되었던 한지 문화를 전주천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전주한옥마을의 한지체험은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셋째, 전주천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중요한 자산이다. 이 밖에 음식 가운데서도 전주와 전북의 물길과 연관된 것이 적지 않다. 콩나물국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나물은 물로 재배되는데, 전주 지역의 물이 적합하다고 한다. 한벽당 부근에서 기른 콩나물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당했다고 한다(송영상, 1995: 282) 비빔밥은 다양한 음식의 조화를 추구한 것인데, 다양한 음식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나온다. 전라북도의 여러 갈래의 물길은 자연환경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물과 소리의 결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소리는 전주천이라는 자연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도 나온다. 백제교 인근에 공연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3. 물길은 생태축의 하나이다.

물길 자체에 대한 것과 물길과 다른 생태축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물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천은 물길로 이어져 있으므로 그 자체가 생태축에 해당된다. 물은 공기와 함께 대표적인 환경매체에 해당된다. 깨끗한 물이나 공기가 흐르면 그 곳의 환경도 깨끗해진다. 또한 물이나 공기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흐르는 경우가 그 곳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도록 한다.

생태축은 발전축과는 대비된다. 축은 지역개발에서 주요 공간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 의미는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생태축은 집중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분산에 따른 환경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길 자체가 생태축이 된다는 점은 숲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하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천의 수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옛날부터 전주천을 보아 왔던 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천은 수량이 감소하면서 수질도 악화되었다. 물이 많으면 전주천을 보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 차원에서도 물이 보다 많아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일찍이 섬진강의 물을 전주천으로 옮기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961년에 전주시장은 전주천에 섬진강 상류의 물을 끌어들여 베니스처럼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8).

전주천의 수량은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수량은 매우 많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을 없애면 원래의 수량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기간이 짧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물의 양이 일정하면 이를 어느정도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여울과 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물 속에서 서식하는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시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물길은 자연하천의 경우 유역의 우수가 하천에 흘러들어 가므로 그 환경의 오염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반면에 인공하천은 유역의 우수가 하천수와는 분리되어 있어 유역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 자연하천은 보이는 곳의 환경뿐만 아니라 복개되어 보이지 않게된 곳의 환경도 반영한다. 흐르는 물의 오염정도는 그 지역의 친환경의 정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보이지 않는 곳의 오염 정도까지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여름 장마철에 전주천의 수질은 평소와는 차이를 보인다. 수질은

색깔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필자는 전주천의 사평교 부근에서 장마철을 거치면서 하천 색깔은 네가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 이전의 평상시 보여주는 색, 장마가 시작된 직후 물길을 씻어내는 검정색, 장마 중에 검정색이 소멸된 다음 산에서 흘러온 황토색,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1급수의 색 등으로 바뀌어갔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색깔은 하천 수질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천 본류의 물은 지류에서 오는 것이기에 본류의 수질을 위해서는 지류의 수질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에서 개발은 중심부터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변은 중심에 비해 더 보전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보전은 어디부터 시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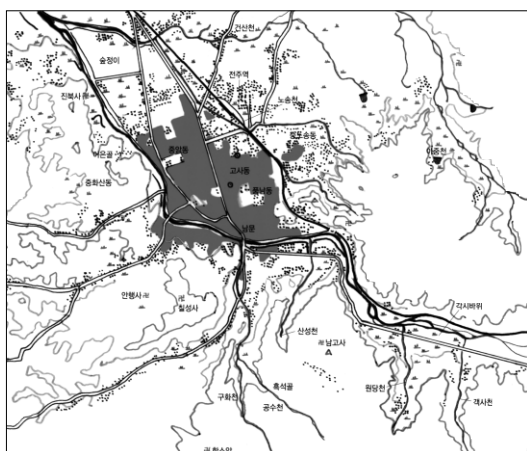


그림 8. 1970년대 전주의 물길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4.

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변은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중심에서 확장되는 개발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는 주변 하천의 물들이 도심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물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지류의 물이 본류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류가 복개된 경우는 물길이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주민들은 전주천의 개발(복개, 인공화)과 보전(복원, 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본류와 지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

다. 도심을 통과하는 전주천 본류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은 복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류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복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가치지향에서 생활인가 생존인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전북일보, 2006년 10월 10일자).

수질은 하천 복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핵심 지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복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류들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된다면 사평교 부근에서도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이다. 건산천은 부분적으로 복개되었는데,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복개된 곳에서는 더 이상 복개되지 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수와 오수는 분리되어야 한다.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우수와 오수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하수관거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수를 분리시킴으로써 전주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물길과 이와 연관된 생태축에 대한 것이다. 하천과 연관된 생태축은 물길 자체뿐만 아니라 둔치, 하천의 내부와 외부 간 연결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과 천변을 이어주는 곳에는 인공적인 옹벽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과 둔치를 이어주는 곳에는 가급적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과 천변의 경우 천변은 이미 도로 등으로 생태가 단절되어 있어 하천과 천변을 이어주는 옹벽이 설치되어도 생태축을 단절하게 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하



사진 10-1. 둔치의 길들



사진 10-2. 둔치의 길들

천과 둔치를 이어주는 곳을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하천과 둔치라는 두 생태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둔치의 인도 및 자전 거길은 대개 생태공간을 잠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급적이면 필요한 길들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지에서는 전주천과 인근 녹지가 연결되는 생태축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축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축에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길도 있다. 물과 공기는 대표적인 환경매체에 해당된다. 물과 공기가 그 지역의 환경의 질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4. 공간이용을 치밀화한다.

보전을 지향하면서도 수요자의 다양한 이용을 반영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천과 그 천변은 개발시대 이전에는 물자와 사람이 모이도록 했고, 보전시대에는 사람이 모이고 있다. 전주천은 복합공간화되고 있다. 여가, 통근·학, 쇼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가는 하천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통근·통학이나 쇼핑을 위해서는 하천에 인접한 목적지로 이동한다. 통근·통학이나 쇼핑의 경우는 여가활동도 어느정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물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전주천변에는 간선도로가 놓여 있다. 이는 하천의 물길에 가까울 수록 자연적이고, 멀어질 수록 인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물길이라는 생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길에 가까운 곳일 수록 친환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해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수해는 곧 물길로 가까운 곳부터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 경우 보다 자연적인 곳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 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로도 필요하다. 현재는 물과 가까이 하려면 다리를 이용해야 하나, 다리는 건너기 위한 것이지 머물며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동일한 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용 목적은 다양하다. 물을 응시하고자 하는 이도 있고, 물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물을 관찰하고자 하는 이도 있다.

한벽보는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할 때에 바람직한 높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시간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공간을 놓고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그 곳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해당된다.

하천의 물은 전체적으로는 흘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나 사람에게 모두 바람직하다. 생물은 물이 어느정도 고여 있어야 그 곳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은 특히 어린이들은 그러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사진 12). 친환경적 개발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둔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둔치의 토지이용은 바뀌어 왔다. 산업화에 따라 생존공간에서 버려진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친환경시대에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서 개발된 것 중에 다가교 인근의 빨래터가 있다. 빨래터는 여러 연령층으로부터 발길을 끌고 있다. 노년층에게는 빨래를 할 수 있거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



사진 11. 노년층의 빨래터



사진 12. 어린이들의 학습공간

러 일으키는 곳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이 여러가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그 공간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과 생태를 결합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생태에 도움을 주는 개발의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해야한다. 이는 공간과 시간과 방법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유우익, 2005). 이용의 공간과 보전의 공간, 이용의 시간과 보전의 시간, 그 정도 등을 조합하는 것이다. 전주천의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생태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이용하도록 한다. 공간과 시간과 방법의 조합에서는 순서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 이용의 시간이나 공간 이용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권혁재, 1995,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지방편·법문사.
2005, 우리 자연 우리의 삶: 남기고 싶은 지리 이야기, 법문사.
- 김규남·이길재, 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 김익두, 1996, 전북 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 국어국문학, 116, 127-156.
- 김재희, 1983, 한지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전주한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봉, 2000, 곡창 김제-만경평야, 한국지리, 제29차 세계지리학회대회 조직위원회, 321-336, 교학사.
-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2007, 땅과 생명 만경강이 흐른다.
- 송영상, 1995, 전주천변, 전주문화원.
2000, 전라도풍물기, 신아출판사.
- 신진철, 2007, 쉬리가 사는 도심하천 전주천, 하천과 문화, 겨울호, 30-34.
- 유우익, 2005, 관광개발과 환경파괴: 좁은문으로 들어가라, 한국관광정책, 20, 50-57.
- 이명우, 2007, 전주시 자연형 하천의 구간별 특성 및 효과분석,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이학훈, 2004, 전주천 자연형하천 추진경과 및 향후관리방안, 춘천물포럼 발표논문.
- 이형석, 1990, 한국의 산하, 홍익재.
- 전북일보, 2006, 도시와 삶 그리고 생명 전주천, 5월 17일자 - 12월 27일자.
- 전주시, 1974, 전주시사.
- 전주역사박물관, 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 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 신아출판사.
- 제5회 강의날래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장릉속 전주천 추억찾기, 세종C&C.
- 조성욱, 2007, 만경강의 역할과 의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87-200.
- 최창조, 2000, 땅의 눈물 땅의 희망, 공리출판.
- 홍성덕, 2007, 전주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겨울호, 24-29.
- Song, K. E., 2009,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s and Redamations of the Honam Plain in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3(1), 13-23.
-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1:50,000, 전주.
- 남영우, 1996,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50,000, 성지문화사.

진안고원으로 가는 뜻

김병용 (소설가전북대 연구원)

김병용 / 1966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전북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사·박사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그들의 총”, “개는 어떻게 웃는가” 등의 소설집과 “길은 길을 묻는다”, “길 위의 풍경”과 기행산문집을 펴냈으며, “최명희소설의 근원과 유역”이라는 연구서도 발간한 바 있다.



1. 진안고원

2. 거기, 또 길이 뚫리고 있었다

3. 마이산, 그득한 바람의 산

4. 물의 근원을 찾아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이 여섯 시·군은 역사·지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지만, 길과 길을 이어주는 또 다른 길, 즉 우리들의 답사 도정을 미리 그리기는 쉽지 않았다. 첩첩산중 그리고 ‘산은 물을 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산수관 등을 배려하고, 또 도보 여행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도를 비끼는 코스를 그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답사자들이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발지를 전주로 삼는다는 원칙엔 쉽게 동의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초엽을 사는 우리들의 지리 감각은 이미 차선에 익숙해진지라, 이 여섯 개 지역을 한 번에 휘도는 코스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각기 분절된 형태의 답사로만이 머리에 떠올랐다.

고심 끝에 진안-무주-장수-남원-순창-임실 순으로 답사 순서를 정하였다. 이같이 정한 데에는 1권이 서해안 지역이고 2권이 동남부 지역이라면 동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답사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추후 3권(전주, 익산, 정읍) 답사와의 연계를 감안한 까닭이 가장 크다. 또, 덕유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종주 산행 코스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점,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과 유역 탐사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해야 바로 전주에서 ‘진안고원(鎭安高原)’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1. 진안고원

흔히 ‘무진장’ 불리는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 전역을 대개 아우르는 말로, ‘개마고원’이 한반도의 지붕이라면, 진안고원은 흔히 ‘호

남의 지붕'으로 불리운다. 290킬로 평방미터의 면적에 평균 해발 290미터, 북류하는 금강과 남류하는 섬진강이 바로 여기서 발원하며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용트림하듯 흘러가는 백두대간으로부터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분기하는 영취산, 주줄산(혹은 주화산)이 모두 여기 자리 잡고 있다. 마이산, 덕태산, 성수산, 장안산 등... 진안고원이 자랑하는 명산들은 헤아리기 힘들만큼 수도룩하다.

무엇보다도 '진안고원'은 평균 해발 60미터 내외의 전주 쪽에서 출발할 때 확실한 표고차를 실감하게 해준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저 더 높은 산봉우리만 열리는 땅, 길고 긴 강물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전북으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에는 해가 뜨는 동쪽으로가는 길이다.

물 흐르고 산 흐르고 사람 흘러 / 지금 어찌지 새로 만나는 설레임 가득하구나
 물이 낮은 데로만 흘러서 / 개울과 내와 강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듯
 이 산은 높은 데로 흘러서 / 더 높은 산줄기를 만나 백두로 들어간다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 산은 위로 치솟는다
 흘러가는 것들 그냥 아무 곳으로나 흐르는 것 / 아님을 내 비로소 알겠구나!
 사람들 어디에서 와서 / 어디로들 흘러가는지
 산에 올라 산줄기 혹은 물줄기 / 바라보면 잘 보인다
 빈 손바닥에 얹은 슬픔 같은 것들 / 바람소리 슬바람소리 같은 것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저 보인다(이성부, '산경표 공부' 전문)

시인이 노래한 경지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보 답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체감을 얻기에는 이만한 길도 없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전주 출발 진안 방향 노선은 모두 다섯 갈래가 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①곰티재 ②모래재 ③보룡재를 넘는 길이 있고, 크게 우회하는 길로는 완주군 동상면을 거쳐 윤일암반일암 방향으로 진행하는 ④피암목재 길이 몇 년 전에 개통됐다. 그리고, 소양면 ⑤연석산을 넘어 운장산, 구봉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제법 알려져 있다.

우리는 곰티재 길을 걷기로 하였다. 곰티재 길은 조선 시대에도 쓰

인 옛길로 임진왜란의 격전지로 잘 알려진 ‘웅치 전투’의 현장일뿐더러, 모래재와 보룡재의 잇따른 개통으로 차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다. 집결지는 소양면 화심. 순두부찌개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GPS를 켰다. 출발점 좌표가 드러났다.

- 35° 50' 35" N / 127° 16' 16" E.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좌표의 분초는 시시각각 달라질 것이다. 새삼 인간은 시공간적 연속성의 지배를 받는 유기체라는 생각이 퍼뜩 든다. 우리들의 도보 여행은 또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이 길에 돌아올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가. 분명한 건 오늘의 이 모습이 내일의 이 모습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점...

지금 현재 우리는 단지 한 점(點)일 뿐, 이제 또 다른 한 점을 향해 발을 떼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선조(線條)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 ‘점(點)-선(線)-면(面)’ 으로부터 ‘공간(空間)’을 얻는 과정이... 어쩌면 살아가는 일, 문학하는 일의 메타포라는 생각도 들었다.

2. 거기, 또 길이 뚫리고 있었다

언제나 예측은 기대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신촌 마을¹⁾을 통과하자 본격적으로 이제 산길이 된 옛 신작로가 펼쳐지긴 했지만, 그 길이 보여주는 풍경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다. 좀 한적한 산길에 들어섰는가 싶자, 이내 시선의 왼쪽 편으로 거대한 교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궁금증이 해소되기까지 많은 시간도 필요치 않았다.

우리가 걷는 길, 그 위로 엄청난 규모의 교각들이 건설되는 장면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났다.



곰티재 초입. 흐릿하게 교각이 보이기 시작한다.

1) 곰티재를 가려면, 전주 우아동 파출소를 기점으로 11킬로쯤 진안 방향으로 간 뒤, 거기서 보룡재 길(보룡재까지는 6.1킬로미터 정도) 아닌, 왼편으로 빠지는 모래재 쪽 도로로 들어서야 한다. 다시 거기서, 700미터쯤 모래재 방향으로 가다보면 “기도원” 간판이 붙어 있는 우회전 길이 나타난다. 거기서 3.2킬로미터쯤 쪽 길을 따라 가다 신촌마을을 막 지나면 거기서부터 비포장도로이다.

길을 덮는 또 하나의 길이 까마득한 허공 위에 건설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득한 낭패감, 딱히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쉬그르르… 김 빠지는 느낌. 교각을 본 첫 심정은 그랬다.

그 교각은 마치 ‘지금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것인지는 아느냐’ 힐난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충분히 위압적이었다.

이 길을 차로 통과하면서 저 교각을 보았다면 또 어땠을까, 아마도 빨리 완공되길 바라지나 않았을까… 처한 환경이 그 의식을 결정한다던가. 막 도보 횡단을 시작한 우리 앞에 나타난, 이 교각은 마침 그 진행 방향이 우리들의 도보 코스와 겹치는 통에 잇을 만 하면 나타나 ‘너희들 아직도 걷고 있느냐’, 시멘트 내음 묵중한 목소리로 묻곤 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원치 않았지만 이 교각은 우리 도보 횡단의 동행자이자 감시자이며 이룰테면, 자기 검열의 즉물적 현시와 같은 것이었다. 때로 우리를 맥 빠지게 하고, 때로는 오기가 치솟게 하기도 하고… 그저 길에 취해 걷다가도 이 교각만 만나면 우리는 한없이 막막해지거나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야 했다.

저렇게 드문드문 이어진 교각들을 만날 때마다 문득 문득 TV 화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한 철학자가 ‘지금, 여기’ 사는 우리를 이끌어 인류 역사에 처음이자 단 한 번만 나타날 ‘이정표(里程標) 세대’라고 칭한 일이 떠올랐다. 선사시대 이래 이제껏 큰 변화가 없었던 삶의 방식이 현재 급격히 바뀌고 있고,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불가역적인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혹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방식은 영구히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 이룰테면 고조선 그 이전부터 땅에 기반한 삶의 양식을 누리던 이들, 대고적부터 한 3~40년 전까지 ‘똑같이’ 전기라곤 모르던 ‘구들장 위’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영구히 사라진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상 유일하게 노출된 잔존과 전이의 세대라는 이야기…

이처럼 사람이 이정표인 때도 저런 도로 교각이 이정표로 기억되

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문화가, 어떤 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우리는 어느 이정표를 보고 출발해 어느 이정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저 거대한 미완성의 교각들은 어느 곳을 지향하는가? 도대체 우리 앞에 새로운 이정표는 나타나거나 한단 말인가…’ 저 거대한 교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도록 만들었다.

교각 앞에서 문득,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았던 두 사람의 말이 떠올랐다.

스페인이 낳은 건축계의 거장 가우디의 말 “곡선은 신의 것이고, 직선은 인간의 것이다”, 한국 이갑수 시인의 짧은 시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 인간은 도시를 건설했다 / 신은 망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에 순응해 구부러진 길들을 반듯반듯하게 펴고 지워가면서 대로(大路)는 건설된다. 꿈티재에서 모래재로 보통재로, 다시 저 고속도로로 길은 더욱 반듯해진다. 저 새로운 길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수천 년 사람들이 살았던 터전도 내어주고, 거기 배어 있는 마을의 사연 켜,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외면한다. 그렇게 대로에 치어버린 작은 마을들, 언젠가는 대로의 문학이 발생할 날도 있을 지 모르지만, 그동안 문학의 싹터는 이같이 작은 마을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왔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직선은 인간의 꿈… 직선의 극치라 할 항공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너에게 닿는 길을 획구해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꿈의 실현이 때로는 현실을 억압한다. 이제 도로를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에 탄 사람들이 도로 위에 있으나, 도로의 실제 주인은 인간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고안했던 자동차들이다. 주객전도. 최정례의 시 “햇빛 속의 호랑이”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의 몸은 자동차에 매였고, 길은 자동차들이 점령해버렸다.

그런 생각의 말미에 문득 아주 오래 전에 읽었던 마르쿠스 아우렐

리우스의 “명상록”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확실한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음울한 뉘앙스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헐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나 “로보캅” 등등이 보여주는 참혹한 묵시록의 풍경들이 그 말꼬리에 연이어서 있다. 꿈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또 다른 꿈… 인간의 꿈은 인간을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을 구원하기도 한다.

“꿈꾸는 한, 인간은 끝없이 방황하리라”고 말했던 이는 또 누구인가 괴테였던가 단테였던가… 길에 나선 우리들의 꿈 또한 마찬가지이다. 돌아가기 위해 결별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꾸며 그 꿈의 실현을 두 발에 의지하는 것.

다만 분명한 것은 저 길이 완성되면 예전의 길들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사용되던 길은 망각 속에서 풍화된다는 것. 이른 바 ‘자연의 회귀’이다. 20세기 최대의 고고학학적 발굴 중 하나로 알려진 과테말라 끼칼의 마야 문명지의 경우 수십만은 족히 거주했을 규모의 도시가 어느 순간부터 정글에 잠식당해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졌었다. 한 때, 사람들의 수송로로 이용됐을 묵은 길들은 이제 새로운 길에게 그 역할을 양도하고 다시 자연의 품에 안겨 피로했던 심신의 노고를 다스



사진 2. 첩첩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교각들. 새롭게 개통될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릴 일이다.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한창인 이 길 또한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자동차 바퀴에 짓눌렸던 지표면이 날 근날근 그 길을 덮어오는 잡초더미 속에서 다시 평안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길이 넓혀져 그야말로 ‘주름 잡듯’ 이 산하를 누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거인증후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길이 넓고 빠를수록 우리 국토는 그만큼 더 조그마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좁혀놓은 이 국토를 다시 넓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도보 밖에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걸어서 국토를 넓히는 일 이게 우리 도보 기행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걷는 내내 서로가 서로에게 강조하고 재확인해왔다. 20여 년 전, 필자는 18박 19일 동안 1번 국도를 따라 목포에서부터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걸어본 일이 있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 지금, 자동차로는 네다섯 시간이면 족히 주파할 거리였다. 그 여름 19일의 기간은 내게 참기 힘든 시간이었다. 햇빛을 오래 받으면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당시에 이미 이 나라의 길들은 자동차 운행 거리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날은 저물고 두 다리는 더 걷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찾아든 마을이 텅텅 비어 있을 때, 몸은 피로에 울고 마음은 그 적막한 시대 때문에 울었다.

- 35° 47' 52" N / 127° 17' 53" E.

해발 405미터. 우리는 한 시간여를 걸어 곰티재 완주-진안간 경계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동안 동쪽으로 1' 37" 를 움직였다. GPS에 기록된 이동 거리 4.4 킬로미터.

사람과 길에 대한 상견례라고 시작하고 걷기 시작한 것인데, 의외로 대학생들이 좀 힘겨워 했다. 30대 이상인 회원들끼리 ‘저 대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안 걸어서 다녔기 때문’ 일 거라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급격한 도시화, 급증하는 교통량과 빈발하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요즘 학교를 걸어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보기가 힘들다.

곰티재는 흔히 임진왜란 시, ‘이치(梨峙)’ 전투와 더불어 왜군의 호남 침탈을 가로막은 역사적 전투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이 길은 호남의 도성인 전주와 동북 산간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궁벽지고 험한 산길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대로였을 것이다. 산과 고개를 넘는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곳. 1960년대까지도 간선도로였던 이 길은 시외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겪은 뒤 1970년대부터 모래재에 간선도로의 역할을 넘기게 된다.

1.3 킬로미터쯤 걸어 내려오니 비포장도로가 끝났다. 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난다는 뜻. 장승삼거리까지 1.7 킬로미터를 더 걸어가는 동안 부암, 방각 마을을 지나쳤다. 장승삼거리에서 우리는 잠시 방향을 틀어, 모래재 터널 쪽으로 향했다.

현재 전주-진안 간 도로는 보통재를 넘는 길이 주 간선도로라 할 수 있다. 1997년 전주·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해 개통된 보통재 길 이전까지, 모래재 를 넘는 길은 곰티재를 대체, 20년 넘게 전주와 동부 산간부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였었다.

여기 모래재 터널은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은 느낌을 주는 터널이다. 특히, 전주에서 진안 쪽으로 넘어 올 때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진다.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출세작

「설국(雪國)」은 ‘국경의 터널을 지나자, 그곳은 설국이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그와 흡사한 느낌을 주는 곳이 이곳 모래재 터널이었다.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봄에도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눈 천지가 펼쳐졌었다. 진



사진 3. 진안 쪽에서 바라본 모래재 터널. 이 터널을 지나면 바로 완주군 소양면이다.

안을 처음 찾는 이에게는 ‘나는 확실히 다른 곳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었고, 전주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북 산간부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하는 안도감을 안겨주던 터널. 모래재 터널은 모든 관객



사진 4. 모래재 터널에서 장승삼거리 사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들에게 문학에서 말하는 ‘통과의례’의 느낌을 주었던 곳이다. 모래재 터널에서 구름재 생가까지는 메타세콰이어²⁾ 길로도 유명하다.

이름에서 짐작되듯, 이 가로수는 이국종이다. 하니 그것들이 연출하는 풍경 또한 이국적일 수밖에 없다. 메타세콰이어 가도로 유명한 곳이 전국에 여러 곳 있지만 이곳을 거울이나 초봄에 오면, 눈을 맞고 서 있는 이 거목들의 행렬이 주는 느낌은 눈이 시릴 만큼 이국적이다. 청청한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 나가는 어깨 높은 거인들의 묵묵한 행렬 같은 느낌… 물론, 메타세콰이어 가도는 봄부터 가을까지 찾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런 탓인가, 이제 찾는 이 없는 이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으며 묵묵히 눈을 맞고 서 있는 한겨울의 메타세콰이어 길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를 멀고 먼 시원의 시간이나 공간으로 금방이라도 인도해줄 것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메타세콰이어 가도를 따라 걸던 우리는 금세 시조 시인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생가 앞에 당도했다.

구름재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전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배출한 제자 중 하나로, 현재 한국 시조 문학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퇴직 후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시조 보급 운동을 펼치는 시인으로 이름이 높다. 경인 지역을

2) 낙엽수종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중국 고산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한 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1940~50년경 중국 자생군락이 발견된 뒤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 용으로 주로 쓰인다.



사진 5. 구름재 생가. 전주 방향에서 봤을 때, 모래재 터널 통과 후 2km 정도 장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도로 왼편으로 보인다. 생가 바로 옆으로 동생 내외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 찾기 쉽다.

중심으로 구름재 산하에서 배출된 시조 시인들이 또한 ‘구름처럼’ 많다. 이대규 선생이 대학생들에게 가람 이병기의 문학과 그 제자들에 관해 설명을 하는 사이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왜 아호를 ‘구름재’라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생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자못 그 유래가 짐작되기도 한다. 청명한 날이나 흐린 날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늘이 탁 트인 곳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출세의 꿈을 ‘청운(靑雲)’에 비유했고, 속세간을 떠나고자 하는 자유 의지를 ‘백운(白雲)’이란 말에 기탁하곤 했다. 우리가 오늘 중으로 가야할 방향에 ‘백운’이란 지명이 존재한다. 여기서 태어난 한 시인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는 다시 길을 돌아나섰다.

3. 마이산, 그득한 바람의 산

간단히 점심 요기를 한 뒤, 우리는 마이산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대학생 두어 명이 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여학생이 벌에 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사이 우리 앞에는 마이산의 웅자가 드러나고 있었다.

마이산(馬耳山).

‘천연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타포니(tafoni) 암괴가 각기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형상도 기묘하거니와, 조성 연대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늘 떠나지 않는 마이산 탐군 등으로 인해 제법 널리 알려진 산이다. ‘서다산’, ‘용출산’, ‘토끼봉’, ‘귀때기산’이라 불리기도 하



사진 6. 진안읍 쪽에서 바라본 마이산 전경. 왼쪽이 숫마이산, 오른쪽이 암마이산이다. 해발 668m지만 경사가 심해 암벽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숫마이산은 등반이 불가능하다.

는데, 모두 그 형세에서 기인한 이름일 것이다. 마이산에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전설이 있다.

조물주께서 어느날 금강산 1만 2천봉을 조성할 작정으로 국토의 전 산봉우리를 소집했다고 한다. 부부지간인 숫마이봉과 암마이봉도 금강산을 목적지로 길 위에 섰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길을 나선 이 부부 산이 여기 진안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암마이봉은 이곳 진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만 여기서 정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금강산은 너무 멀고, 거기 당도한다고 해도 1만 2천 봉우리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니 차라리 예서 우뚝한 봉우리로 남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여, 암마이봉은 길 채비를 서두르는 남편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늑장을 부렸단다. 그렇게 남편의 인내심이 바닥날 즈음에야 암마이봉은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다던가... 한데, 벌써 닭이 울고 미명이 건힐 때가 된 데다가 어느 부지런한 표모(漂母)가 꼭두새벽부터 냇가에 나왔던 모양...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만 뒤로 발짝 넘어가며 “저기 산이 다 움직이네” 소리를 지르고 말았단다. 대저 영물들에게는 영물의 시간과 공간이 있는 법 이를 하세의 인간들에게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 게다가 인간의 말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말로 내뱉으면 모든 건 현실로 굳어진다. ‘넌 사랑한다’, 속으로 백번 외는 것과 막상 그 말을 누군가에게 건넨 뒤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이다. 꿈과 현실의 엄연한 경계 같은 것… 그렇게 이 부부는 그만 거기 못박혀버렸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 화가 난 남편이 앵토라제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그대로 화석이 되는 바람에 저처럼 등진 형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단순히 진안의 산천경개가 수려하단 것 이상 복잡다단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산이 움직인다는 상상은 지극히 애니미즘적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원초적 상상력에 가깝다. 저 육중한 산이 한 발 한 발 뒤통뒤통 움직인다고 생각한 선인들의 호방한 상상력은 이야기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유쾌하다. 하지만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더한 무게가 이를 짓눌러 이 산을 주저앉혔다. 선사(先史)의 어느 경계를 넘어서면 분명 우리도 유민 생활을 했겠지만 역사 이래 우리는 이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국사 시간마다 자랑스럽게 배우는 수천 번의 외침(外侵) 속에서 이 땅, 이 겨레를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참기 힘들만큼 슬픈 이야기였다. 왜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우리와 핏줄이 닿았다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처럼 ‘확 싸질러 버리고’ 왜 이주하지 않았을까… 이주할 수 없었던 역사 지리적 배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민족적 심성이 분명히 있을테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가련하게도 잠시 피난했다가 완전히 파괴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고 또 일구었다.

이주하지 못한 역사… 끝끝내 여기 눌러 붙어 살아야 했던 농경 정착민족의 슬픈 역사가 마이산 전설 속에는 담겨 있다.

실제로, 여행의 자유란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는 것이 사계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경제적 토대의 근본적 변화, 신분제의 변동, 근대적 교통 수단의 탄생이 있기 전까지 일반인들로서는 태어난 그 땅에 다시 파묻힐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살아가는 것을 견뎌야 할

뿐 이주의 자유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했다. 근대적 시민권의 확립의 한 요소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 예상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토지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고대~중세 경제는 노동력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호패를 버린 뒤 갈 수 있는 곳은 깊은 산중의 초적이 되는 길 밖에 없던 시대… 아마, 저 산 너머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어떤 이들의 환상을 보았든 꿈을 꾸었던 했을 것이다.

“야! 저기 산이 걸어간다!”

또, 이 전설 속에서는 욕망과 사랑이 대립한다. 얼핏 이 이야기는 이주하고자 하는 남편의 욕망과 그만 쉬기를 원했던 아내의 욕망의 사이 제삼자가 개입하여 엉뚱한 결말에 이른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갈등은 욕망 대 욕망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사랑 사이의 대립에 있다. 남편이 표상하는 욕망과 그 아내가 표상하는 욕망의 사이에 부부간 사랑은 끼어들 틈이 없다. 공동의 사랑보다 강한 개인의 욕망…

그래서 그런가. 마이산에는 또 다른 욕망의 전설이 있다. 조선 건국과 관련된 ‘금척(金尺)’의 전설이 그것이다. 고려말 야심만만한 무장이었던 이성계는 어느 밤, 어느 신비한 산에서 선인이 자기에게 금척을 내리는 꿈을 꿴다고 한다. 공민왕의 죽음에 연이어진 고려의 내우외환을 생각하면 그런 꿈은 이성계가 아닌 다른 이의 백일몽이기도 했을 것. 욕망이 투사된 꿈을 통해 이성계는 자신의 욕망 깊숙한 곳을 내려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꿈을 꾸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자신의 욕망에 자못 놀라워했을지도 모른다.

금으로 된 잣대… 중국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복희(伏羲)와 여와(女媧)가 구척(矩尺)을 들고 세상에 나와 혼란스러운 문물과 제도를 정비했다던가. 이성계가 꿈에서 본 금척이란 바로 이 같은 혁명 의지의 물화(物化)였을 것이다.

그런 이성계에게 전라도 지역에 출몰하는 왜구를 섬멸하라는 왕명

이 떨어지고, 남원에서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개경으로 귀환하는 길에 자신의 본향인 전주에 들르기 위해 이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승전장군 이성계 앞에 나타난 마이산…!

이성계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아… 꿈인 줄 알았더니 그게 꿈이 아니었던가! 내 욕망에 천지신명이 감응했는가…

마이산이란 호칭은 이때 이성계가 하사(?)한 이름이라고, 진안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이를 기려 ‘금척문화제’라는 것도 열고 있다. ‘마니산’, ‘백두산(흰머리산)’ 등을 감안할 때는 우뚝하게 솟은 산봉우리란 어원 추정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것이다. 격변 속에 몸을 솟구친 한 야심가는 영적인 힘을 빌어 자신의 권력욕을 정당화한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가 개창한 왕조의 신민으로 500년 세월을 살았다.



사진 7. 화엄굴을 지나 탐사 쪽으로 갈 때 볼 수 있는 마이산의 뒷모습. 전형적인 타포니 지형이라고 한다. 산도 풍화를 겪는다.

여기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결심을 굳힌 이성계는 전주 이목대, 종친들이 마련한 환영연에서 한고조 유방이 지었다는 대풍가(大風歌)를 소리 높여 불렀다던가. 종군 문관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포은 정몽주는 그때 이성계의 야심을 눈치채고, 홀로

남고산 만장대에 올라 기울어가는 사직을 향해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했다는 이야기… 남원에서 진안, 전주로 이어지는 이성계에 관한 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남정맥이 통과하고, 숫마이봉과 암마이봉의 분기하는 지점, 그곳은 일종의 고갯마루로 숫마이봉 중턱에 자리한 화엄굴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잠시 땀을 식힌 일행은 다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다.

올라섰는가 하면 바로 내려가는 것, 이것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는 이도 있고 또 싫어하는 이도 있다. 산에는 평지가 없다. 오직 정상 부분에만 손바닥만한 평지가 허락될 뿐 계속 오르내리는 일, 머물지 못하고 또 길을 재촉하는 일... ‘은수사’라는 작은 사찰을 지나, ‘탑사(塔寺)’로 걸음을 옮기는 사이 헉헉대며 자기 숨소리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의 호흡이 좀 편안해졌다. 누군가 내게 걷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기 숨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이산이라는 산과 ‘탑사’라는 절집...

나는 아직까지 이곳처럼 자연과 인공의 풍경이 조화를 이룬 곳을 보지 못 했다. 산을 닮은 탑...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모방한다’고 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역설을 나는 이 산을 찾을 때마다 되새기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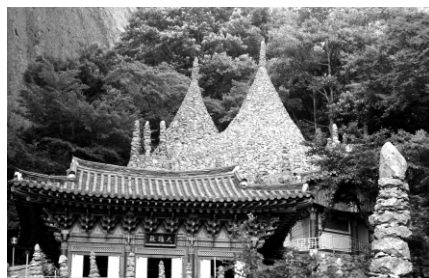


사진 9. 암마이봉의 밑둥치에 자리한 탑사. 대웅전 뒤의 우뚝한 두 개의 탑이 일월탑(日月塔)이다.

나는 아직까지 이곳처럼 자연과 인공의 풍경이 조화를 이룬 곳을 보지 못 했다. 산을 닮은 탑...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모방한다’고 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역설을, 나는 이 산을 찾을 때마다 되새기곤 한다.

저 탑을 누가 세웠는지 진안 사람들 간에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탑은 이 산의 형세를 닮았다는 것. 산을 보며 산을 닮고 싶었거나, 산의 영력을 필요로 했던 이들이 이 산을 모방했을 것이다. 이 지역 출신으로 9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던 김종록의 소설 “풍수”는 이 탑이 조선의 비보처(裨補處)를 지키는 탑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반도의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의 기운이 바로 여

기서 휘몰아치고, 여기서 발원한다는 것이다. 한 작가의 상상력을 두고, 그 진위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 여기서 나고 자란 한 작가는 왜 그와 같은 상상을 하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 보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산은 지상에 속한 것 중 가장 하늘에 가깝다. 뽕족한 산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하늘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안테나처럼 보일 때가 많다. 대학 시절 내게 철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는 중간고사에 ‘산 정상에서 제자리뽕을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하는가, 땅에 속하는가’라는 문항을 출제해 학생들을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었다. 난 그때도 답을 적지 못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하늘은 진공(眞空)이어서 하늘(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완벽한 공허는 그를 채우고픈 욕망을 부채질한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산봉우리를 보며 누군가는 그 빈 틈(空間)에 답을 세웠고, 누구는 역사와 상상이 교차하는 빈틈을 소설로 채워나갔다. 따라서 이는 진위 여부로 판가름되지 않는다. “풍수” 이전에도 누군가는 그와 같은 상상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와 같은 상상에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풍수(風水)’라는 동양 특유의 인문지리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실증적 누계를 가진 동양 과학이라고 믿는 것도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물길과 바람의 길로 비유코자 했던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곳이 장풍지처(藏風之處)라면 그와 같이 보는 사람의 바람이 여기 머문 것일 게다. 최근에는 조선의 국왕을 앞 배경으로 세워두고 있는 병풍 곤륜일월도(崑崙日月圖)가 실은 마이산을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상상을 현현(顯現)케 하려는 욕망은 당대의 욕망과 조우함으로써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탑사를 벗어난 우리는 곧 또 다른 우리 시대의 상징을 만나게 되었다.

‘금당사(金塘寺)’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물 전체에 ‘금물을 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있었을 것이다. 불심이나 정성을 어떻게든 드러내

고 싶은 것을 누가 닳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와 같은 한 개인의 희망이 조우한 시대의 욕망에 있다. ‘절집에 금물을 들여야 한다’ 내지는 ‘금물을 들여도 된다’는 응답을 한 주인공은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일 것이다. 간혹 찌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경탄하고, 성원하는 이들이 더 많을 거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고 서야 누가 저런 개칠불사에 착수할 수 있겠는가. 부처의 소상(塑像)에 금칠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부처를 모신 집에 금칠을 하는 것이 무에 그리 대수겠는가 교회가 자신의 교세를 넓이와 높이로 보여주려는 것이나 불광을 금색으로 드러내겠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묻는다면, 지금 누가 나서 분명히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다수가 아닌 한 저 금색 찬연한 절집은 후세 21세기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종교 의식과 미감을 증거하는 역사적 기념물이 될 것이다.

오래 된 욕망과 당대의 욕망이 교차하여 드러나는 마이산을 빠져 나가는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탑사에서부터 조금씩 뒤쳐지기 시작한 학생 몇몇이 영 대열에 합류하지 못 한다. 하는 수 없이 우리끼리 먼저 김삼의당(金三宜堂) 시비를 둘러보기로 했다.

김삼의당은 우리 고전문학사상에 회유한 조선시대 여성 문인이다. 조선 영조 연간에 남원(8)에서 태어나, 우연찮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난 동향의 담락당(湛樂堂) 하옥과 혼인 후, 마이산 자락으로 이주해 이곳에서 종생하였다 한다. 삼의당이란 아호는 부군인 하옥이 지어준 것으로 그녀의 시·서·화가 모두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진안 내부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삼의당 추모 작업이



사진 9. 금당사의 모습.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간헐적이나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이후로 전북대 이월영 교수의 “김삼의당유고”와 같은 저작물이 나오기에 이른다.

아름답고 다소 낭만적으로 보이는 주변 이야기와는 달리 이 책에 실려 있는 삼의당의 서한들은 고음(苦吟)들이다. 숙종-영조-정조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화의 진경(眞景)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도정치의 장막이 조선의 하늘을 뒤덮어가고 있을 무렵 입신양명에 뜻을 둔 시골 선비의 반려로 산다는 것… 그것이 삼의당이 안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었다.

집을 떠나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으나 번번히 낙방하는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애정어린 격려를 하면서도 불안감을 숨길 수 없는, 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한 여인의 고뇌… 남편인 담락당은 퇴락한 시대 속에 방황과 좌절을 거듭하면 할수록 같은 하층의 고뇌를 하여야 되고, 더불어 당대의 윤리였던 삼종지도에 묶여 그런 남편의 좌절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중의 고뇌… 그런 면에서, 삼의당은 진정으로 시대와 불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학업에 매진하라고 할 수도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신세…

이 부부가 평안을 찾은 것은 남편인 담락당이 ‘청운’의 꿈을 접고, 마이산 자락으로 이주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담락당으로서는 좌절 끝에 찾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삼의당은 진정으로 이곳을 ‘별유천지’로 여긴 듯 하다. 마



사진 10. 담락당과 삼의당의 부부 시비.

치 부부 산신의 오랜 앙금을 풀어주기 위해 작정하고 이곳으로 이주해온 양, 담락당과 삼의당은 화락한 부부지애로 이곳을 자신들의 출세간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삼의당의 시 “대화(對花)”를 읊조려보는 것도 별난 맛이다. 한 번 돌로 굳은 형상은 돌이킬 수 없으나 두 산신 또한 이 부부의 화답을 듣고 있었을 당시에는 단단한 마음 한켠 반짝 붉은 빛이 돌았을지, 누가 알겠는가.

붉으레한 내 얼굴에 꽃 또한 붉고 붉어	顏紅花亦紅
두 붉은 게 서로 마주 열심히만 보나니	相對兩相紅
붉고 붉고 더 붉고 붉어지다간	一色復一色
내 얼굴이 꽃보다 한결 붉어지겠네	顏紅勝花紅

욕망은 높이를 갖는다. 욕망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 낙폭도 크다. 그 키를 낮춰 꽃과 눈맞춤하는 순간, 거기서 새로운 꽃이 핀다고 이시는 말하고 있는 듯 하다. 문인들에게 있어, 자신을 투사할 대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지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이전의 자유에 대한 원망과 좌절의 표상으로 보았든, 권력욕의 구체적 현시로 보았든, 분열을 극복한 자기 합일의 장소로 보았든… 마이산은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낳았고, 또 낳고 있는 곳이다.

4. 물의 근원을 찾아서-데미샘

마이산 공원 지역을 빠져나와 마령면에 면한 남부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그때까지 도보 거리 15킬로미터. 아직 더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걸기 힘든 사람도 있었다. 걷고자 하는 자만 걸으면 쉬운 일이나, 오늘은 사람과 사람이 면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길과의 대면도 중요한 일.

오늘 우리에게는 가야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다.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이 그곳이다. 소양면-진안읍-마령면을 거친 우리는 최

중 목적지인 백운면 원신암마을로 향해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 도대체 평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얼 하고 놀고, 무얼 보고 지내나... 저욕이 궁금했었다. 세상에 어떻게 산이 없는 마을이 있나... 아마 내가 평야부에서 나고 자랐다면 그와 반대로 물었을 것이다. 산골 아이들은 이런 들판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뛰어 노나...

차량의 속도로 인해 바깥 풍경들이 추상화처럼 몽개지거나 서로 겹쳐진다. 나는 동승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천천히 가면, 저 산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과 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그야말로 발대식 자청해 우리를 찾아온 저 학생들 또한 산하를 바라보다가 어느날 자신 내면의 풍경에 눈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간섭으로 이루어져선 안 될 일이다.

산중에서 자란 나는 어느 날 집 앞산이 낙타의 혹을 닮았다고 여긴 적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산이 코끼리의 단단하고 높은 이마 같다고 내 인상을 수정했다... 그림책을 통해 낮모를 동물의 형상을 접하는 순간 순간, 내 집 앞산은 늘 그렇게 내게 다른 형상을 보여줬다. 내게 우리 집 앞산은 또 하나의 그림책이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그림책의 동물들 책장을 덮으면 흐릿해졌다가 눈을 들어 앞산을 보면 거기 그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앞산이 내 마음을 읽어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내 상념의 속도보다 더 빨리 차량은 원신암마을 입구9)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서 하차를 한 우리는 해가 지기 전, 데미샘을 왕복할 요량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이곳은 최근 들어 섬진강의 발원지로 인정된 곳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섬진강의 발원은 진안읍과 부귀면 사이에 있는 부귀산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장수군 쪽에서는 팔공산이 섬진강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나, 의아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하구 쪽에서 보자면 거대한 유역을 가진 강이지만,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물은 수없이 분기하여 시냇물이 되고 또랑물이 되었다가 샘물이 된다. 즉, 하나의 강은 수십 개의 개천과 수백의 실개천, 수천의 샘물이 모여 이루어진 것, 그 모두가 발원이라면 발원이다. 아니, 그렇게 더 거슬러 오르면 저 강 하구에서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리는 세상의 모든 물들... 내가 나 스템로 나의 근원이다. 아비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이 순환의 고리는 너무 거대하고 몽환적이다. ... 사람들은 결국 물길의 길이를 재어, 가장 긴 쪽을 발원지로 삼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렇게 대대적인 재조사 끝에 이곳 데미샘이 섬진강의 가장 길고 먼 발원으로 판가를 났다. 수학적 산술은 너무나 명명백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일체의 잡티 없는 단순한 추상... 인간의 꿈은 어쩌면 수학 속에도 있다.

데미샘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다.

진안군에서 이곳을 일종의 도보 산책 코스로 개발하려는 모양, 강의 생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자연학습장을 지나면, 창포 군락이 나타난다. 창포야말로 물이 있는 곳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잘 정비한 자연 보도가 나타난다.

마을 입구부터 계속 오르막이었던지라, 어차피 되돌아 나올 거면 갈 사람만 갔다 읍시다, 하는 얼굴을 하고 있던 몇몇 일행의 얼굴에서 피로한 기색을 단박에 씻어낸 청량함이 느껴질 정도이다. 그동안 우리는 등산객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 여기저기 허물고 새로 길을 낸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대개의 산길이란 그 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짐승과 초부들이 뚫은 길,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사진 11. 데미샘 입구 노랑창포 군락



사진 12. 데미샘으로 가는 자연 보도.



사진 13. 데미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 가장 편안하고 피로도 적다. 다행히 이 길은 지반이 약하거나 울퉁불퉁한 곳만 보강한 수준에서 자연 보도를 정비, 보는 이마저 산뜻해지는 느낌이다.

그야말로, 물길을 따라 걷는 산길이다.

‘뭘, 발원지라고 대수랴’ 하는 심정으로 이 길에 접어들었던 이들 몇몇이 주고 받는 대화가 내 귀에 들려왔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정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 우리를 대표하게 된 것, 네가 우리 섬진강의 청정함을 좀 뽐내 달라.’

마치 섬진강 모든 물줄기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시리게 찰랑이는 물소리... 숲속이라 그런지 GPS 수신률이 불량해 하늘을 올려다 본 순간, 나뭇가지들이 뻗곡하게 들어찬 틈 틈,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데미샘이란 독특한 이름은 ‘더미’의 이 지역이 방언인 데미와 샘이 결합하여 나온 것이다. 산데미, 흙데미 등 무언가 높이 쌓아올린 모양을 나타내는 ‘데미’는 이 지역 사람들이 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마이산, 덕태산이라고 하면 단일한 일정 공간 좌표가 떠오르지만 산데미라고 부르면 그 산을 이루는 모든 돌멩이, 흙 알갱이들과 나무와 풀들을 총합하여 부르는 느낌이 난다. 이곳을 이곳 사람들은 ‘천상데미’라 부른다. 天上일 수도 있고, 川上으로 새겨도

무방할 텐데… 과연 섬진강의 발원지를 품을만한 이름이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샘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섬진강의 모든 물줄기들이 거슬러 올라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형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산정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굽어보면 문득 세상의 모든 흙과 돌이 이 정점을 향해 기어오른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근원예의 그리움 같은 것… 도보 답사를 나선 우리들의 참고서 중에, 1980년대에 나온 박태순의 “국토기행”이 있다. 소설가 박태순은 어느 사석에서 산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원래 산꼭대기에서 살다가 벌판으로 흩어진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보통은 벌판에 살던 사람들의 경계가 넓어져 산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지만, 박태순의 상상력의 아주 엉뚱한 것도 아니다. 수렵은 텅 빈 벌판보다 산중에 더 잘 어울린다.

박태건 시인, 최기우 작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앞지른 대학생들이 “여기에요, 여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샘 곁에 둥그렇게 모인 우리는 잠시 말을 잃고 샘을 응시했다. 계속해서 행수가 솟아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투명하게 응결된 느낌, 잠시 여기 서 있는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지나가는 시간도 맑은 결정이 된 듯한 착각…



사진 14.데미샘

이 물이 흘러 또 다른 물을 부르고 합수에 합수를 더해가며 마침내 섬진강이 된다. 3개도 10개 시군의 들을 적시며 마침내 광양만 하

구에서 더 큰 바다, 남해 그 너머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강의 길이 220킬로미터 남한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 첫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유강희 시인이 침묵을 깼다. “절을 올립시다!”

도대체 이 강은 몇 만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의 젖줄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절을 올리는 일이 마땅했다. 물 한 컵을 받아든 박태건 시인이 꽤주처럼, 의식을 주관했다.

“오-! 어머니…”

유강희 시인의 짧은 탄성이 거기서 그쳤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 모두들 벽찬 눈시울로 무릎을 꿇었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흥분과 감격이 가라앉을 즈음,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깨달은 대학생들이 취재수첩을 꺼내들고 묻기 시작한다.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이 강이 더 오래토록 청정할 것과 이 물줄기의 유역에 사는 마을들의 안녕과 이제 시작된 우리 도보의 무사 완수 등등… 답변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말은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자 경력이 있는 최기우 작가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조언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길을 옆으로 돌렸다.

거기,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일행중 오늘 도정을 가장 힘겹게 받아들였던 학생 하나가 내 눈길을 쫓다가 묻는다. “선생님! 저기도 가야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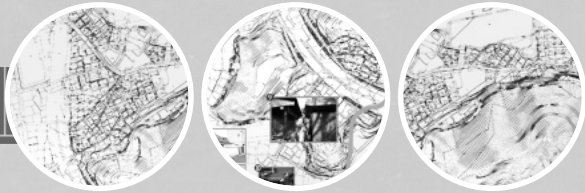
어디 우리가 갈 길이 저렇듯 외줄기 한 길이겠는가… 우리는 이제야 길에 나섰다.



사진 15. 데미샘 바로 옆으로 천상데미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다

전주의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문창현 (전북대 BK 연구교수)



I. 서언

II.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의 개념적 특성

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과 형성 과정
2. 장소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III. 전주 한옥마을의 장소성

1.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적 특색
 - (1) 살아있는 거대한 역사박물관
 - (2)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정치적 상징성
 - (3) old boy의 추억 어린 노스텔지어의 공간
 - (4) 지조있는 선비정신의 투영되어 있는 “선비의 길”
 - (5) 역사·문화적인 헤비티지의 보고
 - (6) 군세사의 역사적 현장

IV.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장소마케팅 전략의 방향

1. 지역적 장소자산의 네트워킹
1.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주체의협력적 네트워크
3.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웨어로
4. 장소에 대한 장기적인 마케팅 포인트와 타깃 설정
5.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

I. 서 언

고차적 도시기능이 중첩된 도심지역에서 현대성과 모순되는 고풍스러운 전통적인 공간이 병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옥 보존지구이다. 이 지역은 ‘개발’이 대세인 도시공간에서 유일하게 ‘보존’만이 허용되는, 다소 시대로부터 소외되고 정체된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한옥마을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추진을 계기로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한편 관광개발이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성을 진솔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개발 전략과 장소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관광개발의 잠재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전시관이나 체험관의 증축 등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보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역적 장소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성의 발굴 및 개발이나,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주시의 장소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주한옥마을을 선정하고,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의 개념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적 특색과 장소성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장소마케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의 개념적 특성

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과 형성과정

먼저 ‘공간’ (space)과 ‘장소’ (place)의 개념을 구분하여 보면, ‘공간’은 삶의 토대로서 보편성을 띤 개념으로 거리, 방향, 위치 등의 가치를 지니는 지구 표면의 공간이고, 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공간의 점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면 이는 ‘장소’가 된다. 이때 공간의 장소화 과정에서 점유자의 체험 행위와 가치 부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장소는 인간의 감각, 마음, 태도, 가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의 공간으로서, 공간이 소환경(setting)에 대한 물리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맥락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장소의 정의로는 “물리적인 공간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및 그들의 활동, 인간과 환경 간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 다중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인 실체”로 규정할 수 있다(이무용, 2006).

한편 특정 장소가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회자되거나 그 장소의 매력을 따라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인해 생동감이 넘친다면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성(placeness)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장소성은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인 요소나 그 장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적·역사적 함의에 따라 도출되는 것으로 각각의 장소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이진희, 2003).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이자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고, 인간의 체험

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장소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인간과 소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소가 성립되는데, 이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이 이루어진다. 이는 집단적 차원에서 시간적인 지속성을 가지는 장소정신(spirit of place)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소환경에 대한 인식인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 할 수 있으며. 장소성은 이러한 장소정신과 장소감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이석환, 1998). 즉 장소성은 개인의 지각적 국면과 집단적 인식, 그리고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장소가 지니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장소의 구성원, 문화적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소성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의식적 애착이며, 그 장소가 가진 정체성으로 구성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2. 장소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구체적인 물리적·추상적 실체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일반적인 마케팅과는 달리,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장소를 판촉대상으로서 고려한다. 즉 장소마케팅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특수적인 고유한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s)을 이용함으로써 장소를 상품으로 고려한다. 또한 장소를 단순히 다차원공간의 물리적인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역사적 함의를 내포하는 차별적이고 패키지화된 상품으로서 접근한다는 점에 초점이 집중된다(Ashworth and Voogd, 1990; Paddison, 1993).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정의로는 “장소를 관리하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업가와 같은 공적·사적 주체들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지역주민들에게 장소가 매력적으로 인식되도록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이며, 주요 목표는 주로 유동적인 첨단산업의 기업가와 자본을 입지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Kearns and Philo, 1993), 또는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터전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감동과 가치를 확산해서 마침내 내 고장의 번영을 가져오자는 노력으로서, 고장의 특산물을 외부시장에 판촉하거나 경쟁력 있는 양질의 생활환경과 관광자원을 개발 및 조성하여 외지인을 입지하도록 유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김형국, 2002).

장소마케팅 개념에는 기존의 논의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단순히 장소이미지의 홍보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목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마케팅은 광범위한 소비집단에 의해 추구되는 다양한 방식의 잠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즉 장소마케팅은 기업가, 관광객,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특정 이미지, 생활인프라, 하부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장소상품의 가치를 상승시켜, 장소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을 전략목표로 한다. 둘째, 시행주체적 측면에서 장소마케팅에는 공공복리와 경제적 이윤이라는 추구하려는 다양한 목표에 따라, 관치(官治), 제3섹터,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라는 신공사(新公私)제휴방식의 민·관파트너십 등과 같이,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체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경영, 재정, 통제·관리의 책임을 다양한 수준에서 분화시킨 협력관계 및 정치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장소마케팅은 표적시장의 선정,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상품·가격·유통·촉진의 마케팅시스템, 재정 관리 등과 같이, 전략목표의 실행을 위한 하위수단의 적용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조직체계로 발현된다. 넷째, 장소를 단순한 다차원공간의 물리적 객체로서 고려하지 않고, 장소특수적인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내포하는 차별적이고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접근한다(문창현, 2006).

장소마케팅은 관측도구인 장소특수적인 영역자산의 초점에 따라 첫째, 천연적 생태자연조건과 청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생태적 장소마케팅, 둘째,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독특한 전통적 민속·예술을 판촉도구로 이용한 문화적 장소마케팅, 셋째, 양질의 장소적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산업적 장소마케팅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판촉도구에 따른 장소마케팅의 유형과 특성

구 분	생태적 장소마케팅	문화적 장소마케팅	문화적 장소마케팅
하위 목표	○관광객 유치 ○외지인 유입 및 정착의 유도	○관광객 유치 ○문화 관련 산업 진흥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판매상품	○독특한 지역적 장소 고유성	○독특한 지역적 장소 고유성	○일반적으로 공인된 장소환경
판촉도구	○친연적 생태자연조건 ○정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전통적 민속·예술	○양질의 장소적 투자환경의 제공
실행 방식	○생태관광, 녹색관광 ○생태축제·이벤트 ○생태도시, 귀농마을	○문화이벤트 및 지역 향토·민속축제 개최 ○문화·예술진흥지구	○조국적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유치

출처: 문창현, 2006, 앞의 논문.

III.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성

1.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적 특색

(1) 살아있는 거대한 역사박물관: 전통생활문화의 재현

전주한옥마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와 교동 일원에 위치한 252,307m²의 한옥밀 집지역이다. 전주한옥마을의 지리적 범위는 광의적 측면에서는 전주시의 남북방향인 기린로와 팔달로, 동서방향의 충경로와 남천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이다. 또한 협의적 측면으로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전통한옥지구, 태조로지구, 향교지구, 전통문화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주한옥마을 내에는 2006년 현재 인구 3,903명, 가구수 1,299세대가 한옥 575채와 비한옥 136채 등 총 711채의 각종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에는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건축된 한옥 및 비한옥 건축물들이 입지해 있다. 2006년 현재 전주한옥마을에 보존되어 있는 총 711채의 건축물을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194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178채(25.0%), 1940~1959년 199채(28.0%), 1960~1979년 218채(30.7%), 1980~1999년 71채(10.0%), 2000년 이후는 45채(6.3%)로 구성되어 있다.(전주시, 2006)

전주한옥마을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전주시의 역사적 정체성이 압축되어 있는 전통생활문화사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주시의 지역정체성인 전통생활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계획」의 핵심이 되는 대상이다. 전주한옥마을 전체가 한옥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한옥의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도시 속

에 입지한 독특한 한옥밀 집지역으로서,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되어 잘 구현된 공간이다.

특히 역사·문화경관을 단순 관람하는 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 전통한옥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전통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고, 관광객이 직접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통생활문화사 박물관으로의 가치를 지닌 것이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 또한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시설도 전주한옥마을 관광개발과 더불어 활발하게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전통문화센터의 건립을 시작으로, 전통한옥지구에는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공예공방촌, 한방문화센터 등, 태조로지구에는 공예품전시관, 전주명품관, 한옥마을문화마당 등, 전통문화지구에는 최명희문학관 등 각종 다양한 테마의 공공 및 민간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입지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은 부드러운 추녀, 나지막한 담, 그리고 장독대 등 고풍스러운 전통한옥의 정겨운 풍경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 및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독특한 지역적 장소자산(place assets)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진다.(문창현, 2008)

(2)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정치적 상징성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서, 전주 이씨의 시조는 통일신라 시대 문성왕 때에 사공(司空)이라는 벼슬을 지낸 이한이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객사, 풍남문, 전주사고 등과 같은 수많은 역사·문화유산들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는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보물 931호)을 봉안한 경기전(사적 339호)이 있고, 경기전 동편에는 1473년에 건립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가 비록 현존하지는 않지만 위치하고 있었

다. 경기전 북편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조정묘(지방유형문화재 16호)가 입지하고 있어, 건지산에 있는 조정단과 함께 전주가 조선왕조 발상지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풍패지향(豊沛之鄉)의 풍자를 따서 명명하여 이곳이 조선 왕조의 뿌리임을 분명히 한 전주성의 남문인 풍남문(보물 308호)과 함께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잔치를 벌였다는 오목대(지방기념물 16호), 이목대(지방기념물 16호) 등이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은 지역민에게 자긍심으로 작용하여 전주의 정신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예향으로서 전통과 예술에 대한 애착이 강한 전주의 정신문화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이동희, 2004).

(3) old boy의 추억 어린 노스텔 지어의 공간(전북대학교 고고문화 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8)

○ 남부시장

현재의 남부시장의 모태인 전주부성의 남문 밖의 장시는 우리나라 향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장이다. 전주부성의 외장인 남문 밖 장시는 2·7장으로 열어, 주로 생활용품과 곡식이 거래되었다. 당시에는 싸전다리 주변의 싸전, 매곡교 부근의 우시장, 매곡교와 서천교 사이의 담뱃대 장수들의 좌전, 완산교 일대의 소금장수들의 장터 등 천변 다리를 따라 공간별로 분화된 장시를 형성하였다.

당시 남밖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각종 농·수산물과 토산물로 넘쳐 났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해학과 애환도 역시 흠뻑 느껴질 정도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우리네의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풍물공간이었다. 즉 임실, 진안, 완주에서 모여드는 정겨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곳이기도 하였고, 배고픈 시절에는 허기를 달래주던 추억이 아련히 서려있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해방 이전부터 남부시장은 연 출입인원이 186만 명일 정도로 호남 최대의 물류집산지로서 번성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역시 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전라북도의 상업·금융·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심지어 부산이나 마산 등지에서도 쌀을 사갈 정도로 전국의 쌀 시세가 남부시장에서 결정되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대식 대형마트가 속속 들어서고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남부시장도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쇠락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배여 있는 옛날 기억 속 남밖장도 점차 희미한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갔다.

○ 전주천(싸전다리·남천교)

‘한벽청연(寒碧晴煙)’, ‘비비낙안(飛飛落雁)’, ‘남고모종(南固暮鐘)’, ‘다가사후(多佳射嶽)’ 등 전주 8경을 지니고 있는 전주천은 맑은 수채화처럼 포근한 삶의 배경과 동심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다. 즉 세상물정 모르는 개구쟁이들에게는 고기 잡고 떡 감고 놀던 놀이터로, 시집살이에 고달픈 아낙네들에게는 온갖 푸념도 털어 놓고 빨래 방망이질로 설움도 달래던 자리로서, 어떤 이들에게는 중요한 생업의 터전으로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채 도도히 흐르던 하천이었다.

전주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추운 겨울에도 시린 손을 호호 불어 가며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모습인 남천표모(南川漂母)의 풍경과 함께, 물 맑은 전주천에서 다슬기를 캐고 붕어나 피리를 잡으며 미역을 감던 광경이 아직도 아련하게 남아 있다. 그 기억 속에는 철철 흘러내려 깨끗한 전주천 위에서 한가로운 모습의 강태공들, 붕어나 피리 등을 잡아 보골보골 찌개를 끓여주던 오모가리집, 전주천에서 옷 벗고 목욕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1922년에 건설된 전주교는 당시에 완산교와 더불어 전북의 유일한 콘크리트 다리로서 근대식 교량이었다. 전주교는 이 교량의 좌우

에 싸전들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싸전다리”라고도 불렸다. 지지하는 교각이 팔 척 또는 십 척이나 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했던 남천교와 서천교는 1936년 대홍수에 유실되었고, 현재의 남천교는 1957년에 가설되어 1980년대 초반까지 전주-남원 간의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대보름에는 전주천 일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다양한 풍속과 각종 전래 놀이 등이 절기와 명절을 따라 행해졌던 장소이다. 우리 민족의 애환과 한의 정서를 내포하면서, 때로는 싸전다리를 경계로 위아래 동네가 패를 나누어 치열한 투석전을 벌이는 대동놀이로 함께 신명나기도 하였다.

○ 문화연필

문화연필은 1949년 5월 31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서 이석동 씨에 의해 창업되었다. 1963년 제비표 페인트로 넘어간 후, 1978년에 팔복동으로 옮겨가기까지 문화연필 공장은 교동의 풍경으로 자리하였었다. 처음엔 소나무 같은 나무로 연필을 만들다 피나무를 사서 공장마당에 제제소를 만들어 연필을 만들기 시작했다. 창고에서 공장을 시작하다가 해마다 불이 나곤 했었고, 처음 불이 났을 때는 오히려 득이 되어 공장을 새로 짓고 AID자금을 받아 기계를 들여왔다. 당시의 문화연필 직원들은 대부분이 오목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백삼십 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낙타표 문화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연필이 한국전쟁 직후 산업박람회 출품하면서 상표를 뭐로 할까 하다가 단봉 낙타가 밋밋해서 쌍봉을 그려 낙타표 문화연필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문화연필에는 디자인 실이 있었는데, 최초로 연필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하반영이다. 한옥마을에서 문화연필이 자리하면서 그 시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문화연필공장은 특별한 추억들을 안겨주었다. 연필 불량품으로 나오는 것들을 몽땅 내놓으면 동네 어린 아이들이 그걸 많이 가져다 썼다고 한다. 또한 동네 사람들을 위해 동네에서 영화 상영을

하기도 했으며,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등을 땀감으로 내놓기도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인심을 얻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지난 세월에 묻혀 문화연필공장의 모습은 남은 것이 없지만, 그 시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기억에는 문화연필공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 동락원

동락원의 한옥은 언제 지어진 한옥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50년대 한국은행 관사로 쓰이기 전에는 전북대학교 학장을 지낸 유성근 교수의 집이었다고 한다. 유성근 교수의 아버님께서 이 한옥 집에서 살면서 아들인 유성근 교수의 북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지금의 대문을 만들어 입학하는 날 그 문을 열도록 선물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한옥은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담과 소슬문이 있었고, 안채 마당에는 연못과 지하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행 관사로 이용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전주기전대학에서 매입한 이후 개보수 과정에서 사랑채에서 안채로 이어지는 담과 연못, 지하시설들은 없어지고, 지금의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개보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락원의 한옥은 이제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서, 한옥마을에서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채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거듭나고 있다.

○ 전주최씨 종대,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골목, 이 명칭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옥마을 내에서는 늘 그렇게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는 전주최씨 종대에 심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에서 유래한다. 예전에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었으나, 한옥마을이 변화되면서 이 은행나무 골목도 점차 그 길이 넓어져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

다.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는 골목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의 은행나무길이 되었다.

현재 전주최씨 종대는 종중의 행사나 모임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종대에는 화수각 1동, 관리사동, 루갈다원이라는 찻집과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최씨 종대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종중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것은 월당 최담 선생이 식재한 것으로 후학을 양성하였다는 설과 월당 최담 선생의 넷째 아들인 연촌공 최덕지가 식재한 것이라는 2가지 설이 있다.

한옥마을의 은행나무 골목 사이 사이에는 전주에서 명함을 내밀면 알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고, 또한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집들이 골목골목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만큼 이 은행나무 골목에는 한 시절을 풍미했던 역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는 새로운 한옥마을의 모습으로 한 장을 열어가고 있다.

(4)지조 있는 선비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선비의 길”

전주한옥마을은 간재 전주 선생을 중심으로 호남의 삼재로 불렸던 금재 최병심, 고재 이병은, 유재 송기면 선생이 불과 50~60년 전까지만 해도 향교 부근에 모여 살며 활발히 교류했던 장소이다. 염수당이라는 서당을 열어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전국의 여러 선비들이 배우기 위해 모이는 도학의 집결지였던 것이다. 경서를 읽고 강학을 하며, 연당의 못 물로 먹을 갈아 서예를 연마하던 곳으로, 길러낸 제자만도 천여 명에 이르며 선생이 타계한 후에는 손자가 대를 이어 1980년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다.

금재 최병심 선생은 당시 한국 유학의 1인자일 뿐 아니라, 동양의 대학자로 손꼽는 간재가 직접 지명한 수제자이다. 고재 이병은 선생은 한말의 마지막 나라의 기상을 간직하고자 하였던 항일정신이 투철한 유학자였다. 유재 송기면 선생은 ‘선비는 도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신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스스

로 그것을 실천한 학자였다. 글과 글씨를 잘 하고 행실이 가장 뛰어났던 그는 일제의 협박에도 선비정신을 잃지 않고 일관된 삶을 살았다.

“선비의 길”은 일제강점기 이전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하며 도학을 실천한 유학자들과 그들의 인적 교류 및 소통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망이다. 공간적으로 이 “선비의 길”은 월당공 최담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한벽당~월당 유허비~유학자들이 강학과 서당교육을 하던 금재의 옥류정사(염수당 터)~창암 이삼만의 글씨가 남겨진 비석~금재선생의 묘소와 비석이 있는 곳과 사우인 옥동사~금재의 제자 성당 박인규 선생이 제자들과 강학을 하던 구강재~조선시대 유생들을 길러내는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고재 이병은 선생이 고향에서 교동으로 옮겨와 제자들을 양성했던 남안재와 남양사~김학자의 집~이학자의 집~오산 이종림의 집~아석재의 경로로 이루어졌다(〈그림 1〉 참조).

전주한옥마을은 선비의 자세, 지조와 도덕, 양심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정신을 현대에 계승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사업단, 2009).

(5) 역사·문화적인 헤리티지(heritage)의 보고

전주한옥마을 주변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어 헤리티지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이 지역에는 보물 3점, 사적 3점 등 국가 지정 문화재 6점과 지방유형문화재 5점, 기념물 2점, 민속자료



〈그림 1〉 전주한옥마을의 “선비의 길”

2점, 문화재자료 2점 등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11점, 총 17점의 귀중한 역사적인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표 2〉 참조).

주요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보물로는 풍남문(제308호), 객사(제583호), 조선 태조왕 이성계 像(제931호), 사적으로는 전동성당(제288호), 경기전(제339호), 향교 일원(제379호), 지방유형문화재로는 경기전(제2호), 향교 대성전(제7호), 한벽당(제15호) 등, 기념물로는 오목대 이목대(제16호) 등, 민속자료로는 학인당(제8호), 예종대 왕태실 및 비(제26호), 문화재자료로는 동고사(제2호), 전동성당 사제관(제108호)이 소재하고 있다.

〈표 2〉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문화재 현황

국가 지정 문화재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총계
보물	사적	계	지방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계	
3	3	6	5	2	2	2	11	17

(6) 근세사의 역사적 현장

남밖장은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3·1운동 당시에 주요 연락처로 이용될 정도로 우리 민족 근세사의 생생한 현장이었다. 당시 3·1운동은 예수교 등 종교계와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일본 경찰의 감시로 당초 계획했던 3월 1일에 결행하지 못하고, 전주장날인 3월 13일에야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남문시장에서 시작된 만세행렬은 완산초등학교와 전동 일대를 지나 중앙동 앞까지 태극기와 독립만세의 물결로 넘쳐났다(전주시, 2004). 지금도 남부시장에는 3·1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임을 나타내는 기념탑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전주천 일대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한의 정서를 내포하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저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던

장소였다. 한편 동학혁명 때에는 동학군과 관군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전주한옥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수많은 역사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거쳐 간 곳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건국을 굳건히 하기 위해 태조의 용안을 봉안한 경기전이 위치해 있고, 일본인들에 의해 헐렸던 전주 성벽,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와 거주하면서 생긴 독특한 일본식 한옥, 식민사회를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생성된 흔적들, 땅을 빼앗으려는 일본인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이야기도 이곳에 담겨져 있다(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9).

2.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성에 대한 SWOT 분석

〈표 3〉 전주한옥마을의 장소성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전주의 맛, 멋, 소리 등 풍부한 문화적 코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장소자산과 복합적으로 연계가 가능함. ○외지인 및 일반인에 널리 구축된 전주의 전통문화 브랜드 인지도와 장소성과의 연계 활용으로 이미지 구축 및 홍보 활용에 유리함. ○지역 내에 풍부하게 산재한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관광마케팅전략의 적용이 가능함. ○전통문화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	○관광인프라 등 하드웨어 위주의 관광개발로 장소성 만들기와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발굴이 부족함. ○태조로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방향의 장소자산에 대한 개발에 치중되어 진행됨. ○지역적 장소자산의 동적 연계 및 네트워킹의 부족 ○늦게 착수된 개발로 인해 “선비의 길” 등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유산 및 장소자산이 오랫동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됨. ○서울의 북촌마을 등 다른 지역의 한옥보존 지구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상품의 부재
기회 요인(Opportunity)	제약 요인(Threat)
○진행 중인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계획」의 핵심이 되는 대상임. ○최근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소비시장이 다양화되는 경향임.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 일제도시형 한옥과 조선시대 전통한옥 사이 ○원주민과 유입민 간 개발사업에 대한 이견과 갈등

IV.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장소마케팅 전략의 방향

1. 지역적 장소자산의 네트워킹

전주한옥마을은 지역 내 장소자산을 “점”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 공간의 동선이 단절되고 장소자산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의 주요 아이템이 전통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령 전통문화라 해도 전통한옥이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관광객의 활동이 전통숙박 체험이나 관광쇼핑과는 별다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나 단일 아이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자산을 필두로 다른 장소자산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패키지화된 연계 관광상품을 판촉할 필요가 있다.

2.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때로는 장소마케팅이 내적으로 지역민과 함께 협업하여 공공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장소 간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그동안의 관광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일상과는 상관없이 이들을 배제시키고 외부 소비자 즉 관광객의 구미에 맞도록 이미지를 개발하여 장소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급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9).

따라서 관광개발과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주민조직과 행정기관이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경영, 재정, 통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화시킨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스토리텔링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전시관이나 체험관의 증축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관광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장소성 만들기과 새로운 문화콘텐츠에 대한 발굴 작업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 하드웨어적인 투자만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관광사업의 성장에는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의 전통한옥마을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차별화된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관광상품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기법을 통해 실제 전주한옥마을과 그 속의 주민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시간적인 맥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 등 사실에 기반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주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이 전주를 독창성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4. 장소에 대한 장기적인 마케팅 포인트와 타깃 설정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소판촉을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촉대상인 장소의 장기 비전과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한 후,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포인트와 타깃이 되는 표적시장 및 소비계층을 설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5.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

서울의 북촌마을이나 안동 하회마을과 유사한 전통한옥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주한옥마을만의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된 지역 고유성이 담보된 특화된 장소마케팅은 장소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과 다름없다.

가령 전주한옥마을의 전주천, 남부시장, 마을 골목, 가로 등에 담겨져 있는 오래전 장년층의 추억으로부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스텔지어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 고유의 장소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는 한식, 판소리, 전주한지 등 전주의 고유한 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오감 마케팅을 장소관측에 적용한다면, 이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장소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판촉: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 길」, 학고재.
- 문창현 (2006), 「순천만지역의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2008), 「전통문화구역의 관광명소개발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22(1), 31 ~ 5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a), 「2002 월드컵 계기 북촌 장소마케팅 방안 연구: 한옥 민박체계 확립을 통한 전통문화지역 활성화」.
- (2001b),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 이동희 (2004),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 이정덕 외, 「전주의 문화 정체성」, 신아출판사, 43 ~ 63.
- 이무웅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41(1), 39 ~ 57.
- 이석환 (1998), 「도시 가로·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도시·환경설계 전공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 (2003), 「장소마케팅」, 대왕사.
- 전주시 (2004), 「아해! 그렇군요 전주」.
- (2006),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 보완」.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2008), 「전주시 한옥마을 스토리텔링개발사업 결과보고서」.
- (2009), 「전통문화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소비자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Ashworth, G. J. and Voogd, H.(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es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London: Belhaven Press.
- G Griffiths, R.(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253 ~ 265.
- Kearns, G. and Philo, C.(1993), "Culture, history, capital: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selling of places," in Kearns, G. and Philo, C., (eds.),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New York: Pergamon Press, 1 ~ 32.
- Paddison, R.(1993), "City marketing, image reconstruction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30(2), 339 ~ 349.

전주의 종교경관



최진성 (한별고등학교 교사)



I. 시작하면서

II. 텍스트로서의 치명자산과 코드로서의 장소관성

III. 치명자산의 종교경관과 장소성

1. 후백제 도읍지와 불교경관의 장소
2. 유교경관의 장소
3. 천주교 경관의 장소

IV. 끝내면서

I. 시작하면서

전주에서 종교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꼽으라면 승암산(僧岩山, 현재는 치명자산이라고 함)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를 예로 들자면, 1890년대에 치명자산 정상에 성지가 조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이전에 전동성당을 처음 세우려던 장소가 승암산의 산줄기 끝자락인 오목대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예선전이 치러지면서 승암산의 지명이 치명자산(致命者山)으로 바뀌었으며, 작년 봄에는 천주교 전주교구청이 오목대와 인접한 간납대(諫納臺)에 완공되었다.

장소성을 논하기 전에 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이 치명자산을 배경으로 터전을 잡았던 이전 시기의 다른 종교들을 기억해내려는 것이다. 승암산은 후백제시대부터 건훤이 구축한 도읍지의 중심지로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 도량의 명맥을 이어왔다. 이것은 승암산에 분포하는 여러 사찰들의 사적기(사찰의 유래와 발전 과정을 적어 놓은 기록물)와 ‘승암산’이라는 지명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산에서 이어지는 발산(鉢山, 또는 發李山) 끝자락의 이목대와 오목대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穆祖)가 거주했던 자만동과 관련된 언덕이다. 그리고 이 언덕들 주변에 경기전과 전주향교가 위치한 것은 풍수적 이유와 함께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 또는 고향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종교경관은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경관상의 이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핵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전동성당을 비롯한 초창기 개신교 선교부들 역시 언덕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치명자산에 되풀이되어 세워지

는 종교경관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종교의 주체들이 치명자산이라는 특정 장소를 계속해서 선호하면서 종교경관들을 세우는 데에는 그 장소성(장소적 의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장소성이 시대를 달리 하면서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경관이나 장소를 텍스트(text)로 삼고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II. 텍스트로서의 치명자산과 코드로서의 장소관성

여기에서 텍스트(text)라는 용어는 단순히 도서관 서고에 꽂혀 있는 인쇄물이나 서적, 교재 등의 전통적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나 소설 또는 수필 등의 문학 텍스트처럼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경관이나 장소를 해석 또는 읽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문학적 은유(metaphor)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기호학과 해석학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과 광고 및 조형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텍스트로 삼아 접근하였다.

그렇다면 경관이나 장소를 텍스트에 비유했을 때, 다음 순서는 그것을 만들거나 이용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또는 그것이 언어처럼 의사소통 체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등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어

떤 경관이나 장소의 의미나 역할 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코드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예로, 화폐가 교환의 수단이 되기 위한 가치 공감대가 없으면 화폐는 종이에 불과하다. 이 가치공감대가 체계화된 것이 바로 코드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로 삼은 치명자산은 텍스트가 되고 그것의 의미를 생산하고 읽는데 공유되던 코드는 장소 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치명자산 일대는 역사적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서로 다른 종교경관들이 형성되어 왔다. 즉 후백제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도종교들이 등장하면서 각기 다른 유형의 종교경관들을 치명자산 일대에 세웠다. 따라서 이 치명자산 일대(텍스트)가 제도종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유를 장소 관성이라는 코드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이미지가 순환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까지를 알고 노력하였다.

도 관측된다. 이 산으로부터 기린봉(麒麟峰, 260m)과 발산(鉢山)이 산세를 이루는데, 기린봉은 전주팔경의 하나이고 발산에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상징경관인 오목대(梧木臺)와 이목대(梨木臺)가 위치하고 있다.

치명자산 일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후백제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견훤에 의해 무진주(光州)에서 전주로 후백제의 도읍지가 천도된 다음에 도성을 쌓은 곳이 바로 치명자산 일대로 현재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주성의 형태와 규모를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치명자산의 산지에서 평지의 토성(土城, 전주고등학교와 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성곽)까지 이어지는 상성·내성·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토성의 총 길이는 약 18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1 참고)

또한 치명자산의 정상 부근의 동고산성(東固山城)에서 나온 기와편의 명문(銘文)에 ‘全州城’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기와에 성의 이름을 새긴 예는 경주 월성(月城)에서 나온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와당은 불교사찰과 왕궁성 건물 이외에는 쓰이지 않는 신라 말에서 고려시대의 연꽃무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와에 새겨진 명문이나 연꽃무늬, 또는 토성의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백제시대의 전주성은 왕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정황들로 미루어 치명자산 일대는 후백제의 왕궁인 전주성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려던 거점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전주성은 연꽃무늬의 와당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불토국가를 이루려던 이상향, 즉 성지(聖地)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주성의 거점이었던 치명자산 일대는 신라의 경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일국가를 달성하려던 본거지이자 불교의 성지였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치명자산 일대에 전주성이 세워진 지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전주라는 도시의 발생 기원지를 치명자산 일대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전주성이 치명자산을 배경으로 산지에서 평지까지의 토성 안에 왕궁과 일반 민가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토성 밖에도 자연스럽게 일반 촌락들이 분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불교경관들 역시 치명자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둘째, 도읍지로서의 전주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백제시대의 한성, 공주, 부여와 같은 차원의 도읍지로서의 이미지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천도(遷都)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전주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도읍지라는 인식들이 지역민들에게 계승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치명자산 일대의 장소성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정치적 차원에서 전라도는 점차 배제된 지역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의 역할이 더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불교를 이용해서 이 지역민들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시대에도 치명자산 일대는 대부분 불교 도량들이 분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고산성(東固山城)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동고사(東固寺)를 포함해서 현재에도 승암사(僧岩寺), 보석사(普石寺), 성불사(成佛寺), 일광암(日光庵), 동고암(東固庵), 수고암(修道庵) 등의 불교경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승암사나 동고사 등은 사적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백제시대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찰들이며, 특히 ‘승암산(중바우)’이라는 지명의 존재가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암산’이라는 지명은 이 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들의 모습이 마치 스님들이 염불을 하는 모양을 닮았다 하여 생긴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당시에 불교 신자들의 눈에 승암산의 회백색 규암 바위들이 스님들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은 이들에게 승암산이 일종의 불교적 상징물로 해석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성불을 염원하던 신자들에게 승암산은 해탈을 가져다주는 성산(聖山)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상

정물이었던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승암산 정상에 노출된 바위들이 스님들의 머리 모습을 연상시켰고, 노출된 바위들의 무리는 스님들이 무리지어 사는 불교도량을, 그리고 이 도량은 결국 부처님이 계시는 장소이자 성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승암산 자체가 불자들에게는 불교도량이자 일종의 룸비니 동산을 연상케 하였던 상징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주요 종교경관들은 비록 없어졌거나 그 위상이 약화되었더라도 대부분 지명을 통해서 그 장소의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서낭당이(성황사), 교동(향교), 전동(경기전), 진북동(진북사), 서원로(서원) 등의 지명들에서 종교경관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경관들이 세워졌던 장소와 연관된 지명이 잔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탁월한 종교경관의 이미지가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명의 회자는 종교경관과 함께 그 장소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암산이라는 지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승암산 일대에 배치되었던 불교경관들은 대부분 진표계(眞表系)의 미륵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라도가 백제시대부터 미륵사를 포함해 금산사로 이어지는 미륵신앙의 본산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주 역시 같은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백제의 왕도였다는 점과, 고려에 복속된 초기에 옛 땅의 회복을 희망하는 이 지역민들의 민중 신앙적 기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현재까지 전라도 일대에 유난히 많은 미륵신앙의 흔적들이 찾아지는 연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제부흥의 꿈이 후백제까지 이어지다가 좌절되고 난 후 다시 미륵신앙으로 이어짐으로써 승암산의 종교적 장소의 역할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조성된 동고사를 포함해 고려시대에 조성되었

다고 추정되는 세 군데의 사찰들, 즉 북고사(北固寺 또는 鎮北寺라고도 함, 완산), 남고사(南固寺, 남고산), 서고사(西固寺, 황방산) 등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북고사를 진북사라고 불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보풍수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사찰들의 성격을 비보사찰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주의 지세로 볼 때 북쪽이 허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숲을 조성했다는 숲정이(현 전주시 진북동 소재)와 덕진 연못(현 전주시 덕진동 소재) 등은 앞의 사찰들과 더불어 전주에 존재하였던 비보경관들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발달한 비보풍수라는 관점에서 사방에 세워진 사찰들은 전주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비보경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승암산 일대는 불교도량이자 비보풍수적 기능이 중첩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후백제의 전주성은 승암산을 배경으로 형성됨으로써 전주의 발생 기원지를 승암산 일대라고 추정 가능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사찰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정치권력에서 배제됨으로써 종교적 장소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한양과 비교할 때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와 현대까지 정치사회적 이념이 바뀌어도 수도로서의 장소성이 계승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2. 유교경관의 장소

조선시대에는 승암산에서 이어지는 발산(鉢山, 또는 發李山이라고도 함)의 산기슭에 오목대와 이목대가 세워졌고, 여기에서 조선왕조 창업의 전설 및 설화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경관들이 배치되었다. 먼저 이목대는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李安社)가 살았다는 발산 기슭으로 자만동(滋滿洞)이라고 하며 목조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목조와 관련된 설화에 나오는 경관으로는 장군수(將軍樹)와 호운석(虎隕石)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모두 목조가 전주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들 설화와 관련해 고종(高宗)은 1900년에 「穆祖大王舊居遺址」라고 적은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이 설화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발산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 내용들을 모두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목조의 세거지가 발산 아래 자만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오목대는 약 70m 정도의 낮은 언덕으로 이목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 건국 12년 전인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전라도 운봉 전투에서 뛰어난 활솜씨로 왜적의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 일가들을 만나 축연을 벌였다는 전설 등이 용비어천가에 수록되어 있다. 1900년에 고종은 이목대와 마찬가지로 「太祖高皇帝駐蹕遺址」라고 적힌 비석을 세워 전주의 왕조 발상지로서의 장소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완산지(完山誌, 19세기로 추정)에 ‘발산(鉢山)’이라는 지명 대신에 ‘발리산(發李山)’이라고 기록된 것 역시 왕가의 정책에 호응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들이 탁발을 떠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발산’에서 전주 이씨(李)가 흥성한 다(發)는 의미로 바꾸어 놓은 것은 마치 승암산이 치명자산으로 바뀐 것과 같은 권력 작용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시대 초기에 발산 기슭의 오목대와 이목대는 일종의 구릉으로 그 기슭인 자만동 역시 승암산 일대에 형성되었던 주요 마을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전주읍성이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평지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볼 때, 이러한 평지 중심의 체제에서는 자만동과 같은 구릉 입지형 촌락들은 지배 계층의 세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에서야 전주읍성과 같은 평지 중심의 지배 체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의 토성에서 평지성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구릉들은 아직까지 지배계층들의 세거지로서의 의미가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산 일대의 구릉지대는 조선시대에 왕조를 위한 발상지이자 성역으로서의 장소성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근거이다.



그림 2. 승암산과 경기전 및 오목대

이러한 승암산 일대의 왕조 발상지로서의 장소성은 고지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全州地圖」에서는 승암산이 전주의 주산(主山)처럼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전과 맞닿아 있는 오목대가 잘 묘사되어 있다. 즉 승암산에서 내려오는 맥세를 경기

전과 이어지도록 그려 보임으로써 왕조 발상지의 근거를 승암산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승암산은 적어도 조선 후기에 주산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다.(그림 2 참고)

이상에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유교경관들이 승암산 일대, 특히 발산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경기전을 비롯한 오목대와 이목대 또는 고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럼으로써 전주는 조선왕조의 기원지로서 확실한 장소성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행정중심지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 거주하던 유림들을 비롯한 지배계층들의 유대 강화라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얻음으로써 정권유지의 충실한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전주의 승암산 일대에 배치된 유교경관들은 국가의 통치이념에 따른 생산물들이지만, 그 내적인 의미는 왕조의 발상지를 성

역화 함으로써 얻게 되는 권력의 효과 때문에 지배계층이 의도적으로 구성한 일종의 상징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승암산 일대가 갖는 장소적 특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산지에서 평지로 전주의 도시체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왕조 및 종교사회적 주체의 등장에 따라 승암산 일대는 왕궁에서 불교의 도량으로, 또는 새로운 왕조의 발상지로 변하면서 장소의 종교적 의미 또한 순환적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천주교경관의 장소

전주에서 천주교 경관들이 입지한 장소들은 일종의 종교담론에 의해 재구성된 경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먼저 전라도 천주교 교우촌들은 종교자유가 없던 조선 후기(1784년 - 1886년)에 지배계층의 정치·종교적 해계모니가 끼어들 여지가 적었던 전라도 산간벽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전주읍성과 그 주변에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종교자유를 얻은 이후에 세워진 한옥성당들 역시 기존의 교우촌 중심지에 세워졌다. 유생들의 담론에 의해 전주읍성 안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한 것은 물론, 서양식 전동성당은 그 읍성 밖에 겨우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전주읍성의 성벽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해체된 뒤에도 읍성 안에는 성당은 세우지 못하였다. 다른 성당을 세울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비해 유달리 강한 유교담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91년에 전주 담임 신부였던 보두네(尹, X. Baudounet) 신부가 전주읍성으로 진출하면서 전동성당을 세우려고 할 때 읍성의 안쪽이 아닌 차선택이 바로 오목대였다. 보두네 신부에게 있어 오목대는 읍성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약 70m 정도의 언덕으로 전망이 좋은 장소로 성당의 입지로는 제격이었다. 왜냐하면 유럽 개념의 맥락에서 아크로폴리스적 전통과, 전망이 좋은 언덕

에 성당을 세우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승리의 상징으로서 선포(Kerigma)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목대에 성당이 세워졌다면, 읍성 안팎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이 읍성의 남서쪽에 인접한 언덕위의 성당을 항상 마주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마침 전동성당의 오목대 입지와 관련된 유생들의 반발을 감안한 전라감영의 관리들은 1900년도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목조와 이태조에 관한 고종의 친필 비석과 정각 등의 왕조경관을 오목대와 이목대에 세워버려 오목대의 성당건축은 자연스럽게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모두네 신부는 경기전 바로 앞에 전동성당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장소는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이 사형당한 곳일뿐더러, 이 장소의 선택에는 관리들 및 유생들의 반대 여론이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이 장소는 당시에 전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남문시장과 인접해 위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라서 선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이로써 유교와 천주교는 같은 장소를 놓고 종교담론 또는 종교적 헤게모니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보두네 신부는 또한 전주교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죽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묘역을 치명자산 중턱에 조성하였다. 그리고 1914년에 전라도에 천주교를 처음 전파하다가 신유박해 때 죽은 유항검(柳恒儉)과 그의 일가족 7명을 치명자산 정상에 묘역을 조성해 묻음으로써 치명자산 일대는 천주교 묘지경관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에는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 일가족의 묘역도 조성했겠으나 더욱 직접적 이유는 상징적이면서 종교적인 이유들이 작용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모두네 신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유항검 일가족의 치명자들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산을 오르는 고통을 통해 순교자들의 죽음의 고통을 체험시키려던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네 신부



그림 3. 전동성당 전경(1914년)
- 자료: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994, P36, 그림설명

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치명자산 정상은 전주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신자들을 역적으로 죽인 권력주체들이 살던 곳을 내려다보는 위치가 가져오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 결국 치명자산의 천주교 묘지경관은 천주교의 위상이 복권되었음과 아울러, 유교담론의 효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던 상징경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참고)

한편 1984년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 된지 200주년이 되며, 1987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교구가 자치교구로 설정 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로 한국인 성인들의 배출과 아울러, 이들이 묻혀 있던 성지들의 조성과 관리가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에서도 성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치명자산은 전주교구의 신앙의 메카로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에서 성지순례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

재작년 초에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에서는 이목대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학교(전주공업전문대학교) 부지를 구입하여 교구청을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구청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주차장이 비좁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작년 봄에 완공되었다. 여기에서 간담

대가 천주교에 의해 주목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모두네 신부에 의해 전동성당의 입지 장소로 결정되었다가 실패한지 약 100년 뒤에 오목대와 이웃한 간납대가 다시 새교구청의 이전 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주요 경관들이 치명자산 일대를 중심으로 배치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전주읍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당시의 현실을 극복하려던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선택으로 읍성과 가까우면서도 높기 때문에 성당의 입지로 적합했던 오목대 역시 종교담론에 의해 좌절되면서 당시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경기전 앞의 사형터가 최종 입지로 선택되었다. 그런 후에 전동성당을 담당한 모두네 신부는 치명자산 중턱과 정상 부근에 각각 선교사 묘역과 순교자 묘역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평지 중심의 도시체계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던 장소, 즉 산지와 함께 평지라 하더라도 사형터 등은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천주교 경관들은 이처럼 기존의 유교담론과의 경쟁관계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이전 시기의 다른 종교경관들이 배치되었던 치명자산 일대를 주요 무대로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서 천주교 역시 치명자산 일대에 대한 장소 관성이라는 코드에서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명자산 일대는 특정 시기에 형성된 장소성이 후대의 사회·정치적 관계가 달라지더라도 시대별로 종교경관의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장소성이 계승된다고 할 수 있다.

IV. 끝내면서

지금까지 전주시 남쪽에 위치하는 치명자산 일대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주체들이 바뀔에 따라 종교경관이 재구성됨으로써 장소의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주의 치명자산 일대는 도읍지(후백제시대) → 불교 도량(고려시대) →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성역(조선시대) → 천주교 성지 및 선교 중심지(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등으로 그 장소성이 변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치명자산 일대는 국가 권력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의미를 반영해 주목받으며 계속 선택되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치명자산에 되풀이되어 장소 관성이라는 코드가 작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치명자산 = 성지’라는 장소성이 지역민들에게 계승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치명자산의 일차적인 장소의 의미는 후백제의 전주성이 형성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차적으로는 이런 장소성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도시의 발달 단계와 맞물려 치명자산의 성지로서의 장소 이미지가 계속 주목받았다. 따라서 시대를 초월해 계승되어 온 성지로서의 치명자산 일대는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의 변동과 더불어 종교의 형태는 달랐지만, 성지라는 장소성은 동일하게 작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치명자산 일대는 오랜 역사적 층위 속에 그 장소성이 종교경관들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져 성지로서의 장소성이 재생산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종교경관들이 치명자산 기슭에 세워지는 장소성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여느 종교경관들도 치명자산의 성지라는 장소성을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치명자산처럼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갖는 장소는 종교적으로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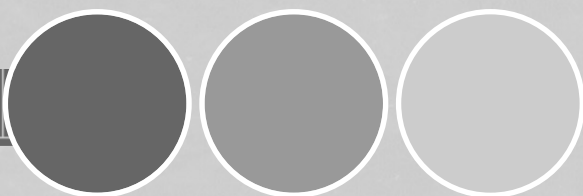
돈의 세계에 대한 고별을 의미하며 종착점 또는 절대적인 의지처를 제시하기 위한 장소이다. 따라서 그 장소는 어떤 징표만으로도 장소의 거룩함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 징표는 풍수지리적 관점일 수도 있고, 불교적 이상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일 수도 있다. 종교적 인간은 성화된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전주사』, 1986, 전주시, 569-571.
- 권선정, 2003,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기초한 경관 및 장소 해석,”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경웅, 2001, 기호학의 즐거움 민음사.
- 김규남, 이길재, 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 김진소, 1987, 신바람 사는보람, 한국교회사연구소.
- 김형진 역(Georges Jean 저), 1997, 기호의 언어, 정교한 상징의 세계, 시공사.
- 김희영 옮김, 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 멀치아 엘리아데 저, 이동하 역, 1983, 성과 속, 학민사.
- 새전북신문, 2004년 4월 22일자.
- 서해숙 외 공저, 2001, 우리전주 전주설화, 전주문화원, 신아출판사.
- 송효섭, 2000, 문화기호학, 아르케.
- 신철하, 2001, 상징과 해석, 이화.
- 윤여성, 1998, “신라 진표와 진표계 불교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 이상훈 외 5인 공저, 2003, 한국문화와 종교적 다양성, 한국정신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1998, 모드의 체계, 동문선.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전영래, 조병희 외 공저, 1984, 향토전주사, 전주문화원.
- 정시호 옮김(반 데이크 저), 2000, 텍스트학, 아르케.
- 조 흠, 2001, 의미만들기와 의미찾기, 개마고원.
- 천민영, 2000, “전라북도 미륵산상의 지역적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성, 2003, “종교경관의 지리적 해석, 천주교경관과 선교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성, 2003, “천주교경관의 해석, 전통성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 최진성, 2009, “종교의 장소상: 전주, 목포, 군산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1호,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 한국종교연구회, 1999, 종교 다시 읽기, 청년사.
- Barns, T. J., and J. S. Duncan, 1992, “Introduction,”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edited by T. J. Barns and J. S. Duncan, New York: Routledge, 1-17.
- Duncan, J., and N. Dunca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al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6, 117-126.
- Norton, W., 2000, Cultural Geography: themes, concepts, analyses,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H. Schein, 1997, “The Place of Landscape: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 American Scen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7, No. 4, 660-680.

조선시대의 옛길

신정일 (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I. 제주에서 서울까지 삼남대로

1. 여행에 필요한 것들
2. 조촌포의 조천관
3. 삼남대로의 출발지 이진항
4. 월출산 자락의 누릿재
5. 역사속의 고개 갈재
6. 통영대로와 삼남대로가 나뉘던 삼례
7. 호남의 요충지인 삼례
8. 전라도 감찰사가 임무를 교대하던 황화정
9. 남태령을 넘으면 서울

II.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남대로

1. 밀양의 가곡동
2. 조선의 3대 누정인 영남루
3. 청도읍의 납작바우
4. 번성했던 낙동마루
5. 문경새재는 웬 고개인가

III. 대관령 넘어가는 관동대로

I. 제주에서 서울까지 삼남대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개경중심의 도로망이 이제 한양중심으로 재편되고 전국 도로망의 기준점을 성문(城門)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전국도로의 기점은 돈화문이었고, 극소에서 각 성문인 4대문으로 이어졌다. 4대문인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흥인문(興仁門. 동대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까지는 경복궁의 광화문 또는 창덕궁의 돈화문이 그 기점이고, 전국 각 지방으로 뻗는 의주로(義州路. 한양·의주), 우로(右路. 한양·해남), 중로(中路. 한양·통영) 그리고 강화로 이어지는 도로는 숭례문이 그 시작점이었다.

대개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대문은 도성의 남대문인 숭례문과 동대문인 흥인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방면의 출발이 전국의 도로망과 연결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문헌비고 文獻備考》에는 9대 간선도로로 기술하고 있다.

제1호로 서울에서 의주를 연결하는 도로. 연행로 또는 사행로라고 부른다. 전국의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 이 도로는 명나라와 청나라 사신들의 내왕로였기 때문에 정비가 가장 잘 된 도로였다.

제2호로 서울에서 원산을 거쳐 함경북도 서수리로 연결되는 도로.

제3호로 서울에서 동해안의 평해로 연결되는 도로. 관동대로라는 별칭이 있다.

제4호로 서울에서 용인과 충주, 문경새재, 상주, 밀양을 거쳐 부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영남좌도 또는 영남중도라고도 부른다.

제5호로 서울에서 경상도 김천을 거쳐 통영으로 이어진 도로. 중로라고도 부른다.

제6호로 서울에서 경상도 통영을 잇는 도로. 삼례와 전주, 오수를 거쳐 통영으로 가는 길이었다.

제7호로 서울에서 삼례, 전주, 태인, 정읍, 나주, 강진을 거쳐 해남의 이진항에서 제주에 이르는 도로. 삼남대로라고 부른다.

제 8호로는 서울에서 평택의 소사까지는 같고, 소사, 평택, 요로원, 곡교천, 신창, 신례원을 거쳐 충청수영에 이르는 길이다.

제 9호로는 서울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서울 양화도 양천, 김포, 통진, 강화이다.

그러나 김정호는 <대동지지>에서 10대 간선도로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원별로와 서울 봉화를 잇는 간선도로를 추가하고 있다. 수원별로는 정조임금이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오갔던 길의 중요성과 함께 조선 초기부터 제사를 지냈던 태백산에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

도로에는 여러 가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던 도로들이 있어서 그곳에 지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한을 가하던 도로들이 있었다. 그 중 첫 번째가 우리나라와 중국 사신들의 내왕이 빈번하였던 입경로인데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에 있었으므로 연경로라고 하였다. 이 도로는 넓은 의미에서 서울에서 연경(燕京, 北京)까지의 도로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의 도로를 말한다.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거리가 대체로 3,130리였고, 서울에서 의주까지는 1천리였다. 연평균 5회에 걸쳐 사신들이 오고갔으며, 중국의 내왕 사절까지 오가던 길이었다. 청나라와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1644년부터 평균 매월 1회씩 대규모 국사(國使) 행렬의 통과가 있었으므로 국내 도로 가운데 가장 잘 닦인 도로였고 중시되었던 도로가 의주로였다.

두 번째가 일본 사신들이 서울로 들어오던 길로서 왜사(倭使)입경로라고 하였다. 일본 사신이 3포(부산포, 염포, 제포)에 도착하여 각기 정해진 노선으로만 서울까지 오고 가는 도로를 말한다.

세 번째가 파발로(擺撥路)이다. 파발은 통신만을 위주로 하는 기구로서 변방의 급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파발에는 기발(騎撥)과 보발(步撥)이 있으며, 기발은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서 급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보발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급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임금이 능, 원, 묘에 거동할 때 지나던 능행로(陵行路), 임금이 온천에 다녔던 온천로(溫泉路)등이 있었다.

이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은 여러 가지였고 그 길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채 생성과 소멸을 거듭해 온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옛길을 걷는 마음은 처연하다 못해 서러울 때가 많이 있다. 그 서러움과 안쓰러움이 지금껏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앓기 때문에 나의 발길이 지금껏 이 땅을 떠돌게 하는지도 모른다.

삼남대로는 원래 서울 숭례문(崇禮門)에서부터 제주시 삼도 2동에 자리 잡은 관덕정(觀德亭)까지에 이르는 길이었다. 제주도 내에서는 관덕정에서 약 25리 길을 걸어가 조천관에 도착한 다음, 그곳 나루에서 배를 타고 전라남도 해남의 이진항으로 갔으며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이어졌다.

이 길은 조선시대의 9대 간선로 가운데 제7호로로서 주요 노정을 서울에서부터 살펴보면 동작나루, 과천, 유천, 청호역(수원), 진위, 성환역, 천안, 차령, 공주, 노성, 은진, 여산, 삼례역, 태인, 정읍, 갈재, 장성, 나주, 영암 그리고 해남에서 이진 또는 관두량을 통해 배를 타고 제주 조천포로 간 다음 최종적으로 관덕정(觀德亭)에 이르는 길이었다.

1. 여행에 필요한 것들

옛 사람들도 어딘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것을 다 갖춘 다음에야 길을 나섰다.

무릇 도(道)란 길과 같으니, 청컨대 길을 들어 비유해보겠다. 동서남북 각처로 가는 나그네는 반드시 어떤 목적지까지 노정이 몇 리나 되고, 필요한 양식이 얼마나 되며, 거쳐 가는 정자·나루, 역참, 봉후(烽候)의 거리와 차례를 자세히 물어 눈으로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다리로 실지(實地)를 밟고 평소의 발걸음으로 평탄한 길을 가는 법이다.

먼저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바르지 못한 샛길로 달려가거나 엉뚱한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으며, 또 지름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을 만날 위험이나 중

도에 포기해 버릴 걱정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知)와 행(行)이 겹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박지원, 『연암집』,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

지금은 그때와 달리 길도 이미 나와 있고 양식이나 숙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의 여행자들은 수많은 일들의 연장선상 속에 있으므로 시간을 내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각오해야 길을 나설 수가 있으니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왕조에는 대략 300여명에 이르는 국사범들이 산 설고 물 설은 이 섬으로 보내져 한 맺힌 유배생활을 했다. 그 중에 일러진 사람들이 인조반정으로 밀려 난 광해군과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세 아들과 손자들이었고, 김정·보우·정온·송시열·최익현·김정희·박영효·김윤식이 이 땅에 유배된 사람들이었다.

2. 조천포의 조천관

조천포는 금당포(金塘浦)라고도 했는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떠나는 배는 모두 이곳에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고 전라도 쪽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배들은 모두 이곳 조천관과 북제주군 애월읍에 있는 애월포에 댔다고 한다. 조천 북쪽 바닷가에 있는 연북정(戀北亭)은 건평 18평에 3면에 회랑이 있는 정자로 제주로 파견된 관리와 유배를 온 사람들이 고향과 임금이 있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다는 정자이다. 본래 고려 공민왕 때 목사 이옥이 조천성을 동북쪽으로 돌려 쌓고, 그 위에 문루를 지어 ‘쌍벽정’ 이라고 하였는데, 조선 선조 32년에 목사 성윤문이 중수한 다음 “임금을 그린다”는 뜻의 ‘연북정’ 이란 이름으로 고쳤으며, 1820년(순조20)에 중창하고 1971년에 지방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3. 삼남대로의 출발지 이진항

본래 영암군 북평종면이었으나 지금은 해남군 북평면이 된 이진리는 지형이 배[梨]처럼 생겨서 지어진 지명으로 ‘배진’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진영(鎭營)이 있었고 종4품인 만호(萬戶)가 웅거하였던 곳이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이진진(梨津鎭)은 한양에서 950리 위치에 있으며, 성에는 해월루가 있다. 제주로 들어갈 사람은 모두 여기에서 배로 떠난다”는 기록이 있다.

이진성을 쳐다보면서 그림처럼 남아 있는 돌담길을 따라 이진항에 도착한다. 포구에는 아무도 없다. 그 옛날,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 올라갔을까? 조선 인조와 효종 때의 상신 김상헌(金尙憲)이 제주를 다녀와서 지은 『남사록(南槎錄)』에는 제주를 오고 가는 곳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강진·해남 두 현은 모두 바다에 있다. 무릇 제주를 왕래하는 공행(公行)은 반드시 여기에 와서 배를 탄다. 해남은 관두포(館頭浦)이고 강진은 백도포(白道浦) — 지금의 보길도 — 이며 영암의 이진포(梨津浦)가 강진과 서로 가까이 있으므로 비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이 세 곳에 모이고 매년 해남·강진의 두 읍은 모여 이 호송하는 일에 윤번(輪番)을 정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진포는 지금의 해남 북평면에 속해 있지만 당시는 영암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두포는 해남의 화산면에 있는 관머리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관두산(館頭山)이 “현의 남쪽 41리에 있다. 제주를 왕래하는 배가 이 산 밑에 머문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두산은 현재의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의 관머리 서남쪽에 있는 178m의 낮은 산으로 한라산과 마주보고 있다. 그 아래 ‘건네몰’ 남쪽에는 옛날 중국으로 가던 뱃길목이 있었고, 건네몰 서남쪽에는 제주도와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었다.

그리고 옛날 해남현의 남쪽 25리에 있었다는 고어란포(古於蘭浦)

와, 현의 남쪽 50리에 있었다는 입암포(笠巖浦)도 제주를 왕래하던 배가 머물렀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입암포나 고어란포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른 예를 보면, 조선시대 중기의 문장가인 임백호(林白湖)는 1577년 제주에서 목사로 있던 그의 아버지 임진(林晉)을 찾아 제주에 갔다 돌아와서 『남명소승(南冥小乘)』이란 기행문을 남겼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강진을 출발하여 남창에서 배를 탄 뒤에 제주의 조천포로 들어갔고 제주에서 나올 때는 화북포에서 출발하여 해남 관두포로 들어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4. 월출산 자락의 누릿재

소를 팔고 사는 우상인(牛商人)들이나 보부상이 영암장이나 나주장을 보기 위해 넘었을 길인 누릿재는 나지막 하고 황토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릿재를 오르는 길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다. 고개를 넘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자 길 양쪽에 무수한 야생화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드디어 시멘트 길이 끝나고 비포장 길이 나타난다. 금세 발바닥의 감촉이 다르다. 이렇게 발바닥이 부드러울까?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길이 금세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오랜 나날을 길에서 보낸 내가 설마 이 높지도 않은 누릿재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테지 ….

5. 역사속의 고개 갈재

입암산 아래에 바로 ‘갈재’ 또는 ‘노령(勞嶺)’ 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고개가 있을 것이다. 옛날, 서울에서 남도로 오거나 남도에서 서울로 갈 때면 꼭 넘어야 했던 갈재는 높이가 276m에 지나지 않지만 제법 험한 고개로 알려져 있었다. 갈재에는 길이 없다.

원덕리의 서북쪽에 있는 신목란 마을에 도착해서 갈재, 즉 노령

(蘆嶺)으로 가는 길을 물으려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결국 지레짐작으로 고개를 찾아 넘어갈 수밖에 …. 높지 않은 고개이긴 하지만 고개는 고개다. 여기서 정읍까지는 18km쯤 되는 거리여서 시간상의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런데 사라진 옛 고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산을 오르자 금세 땀이 난다. 하지만 가다가 길이 제대로 이어질지 아닐지를 몰라 더욱 두렵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예상대로 길은 사라지고 없다.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수많은 장꾼들이 넘나들었고 백여 년 전에는 나주 장성으로 남행했던 동학군 수천 명이 정읍을 거쳐 전주를 지나 한양으로 가리라던 큰 꿈을 안고 넘었던 노령, 즉 갈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사이에는 “노령 고개를 넘는다”고 하면, “어떤 선비가 또 갈재를 넘어 유배를 가는구나”하고 여겼다고 한다.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고난의 시작이다. 사람의 일생도 어찌면 그와 같은 인생길의 실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끊어질듯, 끊어질듯 이어지던 길이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때, 즉 길의 실마리마저 잃어버리는 순간이면 고난은 이미 예비되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찾아온다. 그때부터 달리 방법이 없다. 내게 다가온 그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우가 그렇다. 찾길도 사라지고 오직 이 길을 맞닥뜨려서 돌파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잡목이 뺨뺨한 산길을 헤쳐 나간다는 것은 항상 고역 중의 고역이다. 겨우 햇볕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누군가 파내어 간 빈 무덤 한기 …. 그래 이곳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구나.

이십여 년 동안 온 나라 산을 뒤흔치고 다녔던 경험으로 능선에 오르는 길을 택한다. 문득 배가 고프다. 이른 아침에 밥을 먹고 오후가 다 되도록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더욱이 여태껏 길 없는 길을 옷이 찢어지도록 헤매고 다녔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 힘든 산길을 오르면서 불현듯 화가 치민다. 장성군에서는 항상 ‘홍길동’만 앞세우고

정읍시에서는 늘 ‘동학’ 만 앞세운다. 그러면서도 백여 년 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동학군들이 넘어갔던 길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 다녔던 이 길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북도의 경계인 갈재에 역사의 길을 만들어 ‘문화재’로 지정하고 ‘갈재축제’를 열게 되는 날이 과연 도래할까 생각하며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길이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다. 이리다 임압산 정상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산길을 도로 내려온다.

6. 통영대로와 삼남대로가 나뉘던 삼례

삼례대교를 넘으면 완주군 삼례읍이다. 삼례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하리는 ‘창똥’이라고 불렸으며, 예전에는 그곳 조사리까지 배가 들어와서 조세(租稅)를 받아 쌓아둔 세곡을 실은 뒤 서해를 거쳐 한양으로 갔다고 하며 나그네들 역시 하리에 있던 ‘사천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고 한다.

삼례대교 서쪽에 위치한 비비정으로 간다. 비비정은 옛길 삼남대로의 길목에 세워져 있어서 수많은 길손들이 쉬어갔던 곳이다. 조선시대인 1573년(선조6)에 최영길(崔永吉)이라는 인물이 세웠으며, 1752년(영조28)에 관찰사 서명구(徐命九)가 중건하여 관정(官亭)이 되었다. 지금의 비비정은 사라지고 없던 것을 최근에 다시 세운 것이다.

삼례의 2차 봉기

고부의 농민 봉기로부터 전주화약까지의 동학 1차 봉기는 반봉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례에서 다시 기병한 2차 봉기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황이었고 외세와의 완전한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세를 지켜보던 전봉준(全琫準)이 전라도 각지에 격문을 띄워 동학농민군 4천여 명을 삼례에 재집결한 것은 1894년 9월 초순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기록한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따르면 전라도 27개 고을에서 모인 농민군의 수를 11만 5천

명 정도로 기록하였으나 전봉준은 공초에서 4천여 명으로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군들은 그들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불렀고,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했다. 황토현, 황룡강 싸움의 승리도 승리려니와 전주 화약 이후 농민통치까지 경험한 그들은 무서울 게 없었다.

농민군의 2차 기병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집권세력은 허겁지겁 군사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가까스로 모인 관군은 1~2천 명에 지나지 않아 농민군과 싸움을 벌이기엔 중과부적이었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일본군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자꾸 서울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서울은 불안하기만 했다. 그때 남북접(南北接)이 힘을 모아 서울로 진격하였더라면 농민군의 발길이 장안을 휘저었으련만 … 서울로 진격하기에 앞서 군사적 행동을 부정하는 북접의 완강한 반대와 남북접의 해묵은 대립으로 인하여 농민군의 발목이 묶이고 만 것이다. 서울 거리에 보국안민과 척양척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이다.

7. 호남의 요충지인 삼례

1793년(정조17)에 편찬된『호남읍지(湖南邑誌)』에도 삼례역은 호남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실려 있는데 호남지방에서 최대의 규모라고 하였다. 문관으로 종 6품인 찰방 1명과 예하에 역리 596명, 남자 노비 191명, 여자 노비 51명, 일수(日守) 31명, 말 15필을 두었으며, 부속된 역원만도 12개가 되었다고 한다.

삼례는 조선시대 9대로 중 전북의 전주와 남원, 경남의 함양, 진주를 거쳐 통영으로 가는 ‘6대로’인 ‘통영대로’가 7로인 삼남대로와 나뉘는 곳이었다. 따라서 전남의 순천, 여수, 고흥, 광양 방면은 물론 경상도 남해, 함양, 진주, 고성, 산청, 통영 방면도 모두 이곳 삼례를 거쳐서 갔다. 이와 같이 삼례역은 호남 제일의 역으로서 전라도 역도인 삼례도(三禮道)의 중심역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종 9품인 역승(驛丞)이 있었으나 성종 이후 앵

곡도와 병합하였고 찰방으로 승격되었다. 삼례·반석·양재·앵곡 역은 중로에 속하는 역이고 그 밖의 역들은 소로 또는 소역에 속했다. 갑오경장 시기까지 존속된 삼례역은 전주와 임실, 임피, 익산, 전주, 정읍, 부안, 김제에 걸쳐 모두 12개의 역을 관할하였다.

실학자인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보면, 직산에서 천안을 거쳐 삼례를 지나 전주에 이르는 길은 대로(大路)와 중로(中路), 소로(小路) 중에 중로에 속한 5등 도로라고 한 내용이 있다. 대·중·소로의 구분은 노폭의 넓고 좁음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말이나 역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삼례역에는 역마가 20필, 역호가 75호였다.

8. 전라도 관찰사가 임무를 교대하던 황화정

황화정(皇華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여산]군의 북쪽 11리에 있는데, 신구 관찰사들의 교대하는 장소”라고 실려 있다. 그러나 지금 황화정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경상도나 충청도의 관찰사는 어디에서 교대했을까? 충청도에서는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의 광혜원(廣惠院) 터에 있는 정자에서 서로 관인(官印)을 주고받았고 경상도에서는 문경새재의 중간쯤에 있는 교구정(交龜亭)에서 관인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동지지』에는 이곳 연무 일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라고 실려 있으며, 또한 일제 때의 지도를 보면 논산 훈련소 일대까지 전라도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곳 황화면 일대가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행정구역이 넘어간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5·16 이후 김종필이 세력을 얻자 금산군과 논산 일대를 충청도로 옮기는 대신 서해안에 있던 몇 개의 섬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9. 훈요십조란 무엇인가?

이곳은 고려를 세운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차령 남쪽과 금강 아래 지역은 산의 모양과 형세가 거슬리게 뻗어서 인심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그 아래 지역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와서 왕가나 왕의 친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권세를 잡으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거나 백제 통합의 원망을 품고서 임금을 범하기도 하고 난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또 그 전에 관가에 매여 있던 노비나 잡직의 천한 무리들이 권세가에 기대서 빠져나가려 하거나 또는 왕가에 붙어 간교한 말로 권세를 농락하고 정사를 어지럽혀서 재앙을 불러오는 놈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비록 양민일지라도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풍수지리학의 원조라 할 도선(道詵)의 주장을 국정의 지표로 해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후부터 고려시대 내내 호남 사람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전주를 관향(貫鄕)으로 한 태조 이성계 덕택에 많은 선비들이 벼슬길에 올랐으나 선조 때 전주 사람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반역의 땅으로 이름 지어져 벼슬길이 막히고 말았다.

10. 차령고개 넘는 길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이극익(李肯翊)이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칠장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뻗은 것이 한 영맥(嶺脈)이 되어 대문령과 마일령이 되며, 전의읍(全義邑)에서 크게 끊어졌다가 서쪽에서 일어나 차령이 되며, 또 서쪽으로 무성(武城), 오서(烏棲), 가야(伽倻) 등 여러 산이 되며, 흠어져서 내포(內浦)의 여러 산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차령 서쪽의 쌍령은 차령이 주요 길목이 되기 전에 공주 이남에 있는 고을의 조세와 진상물품을 서울의 공세포(貢稅浦)와 아산의 백석포(白石浦)로 옮기곤 했던 삼남대로의 중요한 길목이었다. 조선 명종 때 의적이라 불리던 안수(安壽)가 이곳에 성을 쌓고 웅거하면서 고개를 지나는 진상물품과 조세를 빼앗아 빈민들을 구제했다는데, 그는 소란을 피우다가 임진왜란 때의 명장 유의신(柳義臣)에게 붙잡혀 죽었다.

11. 남태령을 넘으면 서울

관문동을 지나면 서울인데 이 경계지점에 여우고개 또는 호현(狐峴)이라고도 부르는 남태령(南泰嶺)이 있다. 과천에서 서울시 관악구의 남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울 남쪽에서는 제법 높았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설이 서려 있기도 하는데, 그 하나가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로 그의 아버지가 이 고개에서 여자로 변신한 백여우를 만나 강감찬을 낳았다는 전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옛날 이곳에 천년 묵은 여우가 있어 사람으로 변신한 다음, 소의 털을 만들어 사람에게 씌워서 소가 되게 했다는 전설이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정조가 이 남태령을 지나가다가 한 노인을 만나 이 고개이름을 물었는데 그 노인은 여우고개임을 알면서도 얼떨결에 ‘남태령’이라 말했다. 그러자 진작에 고개 이름을 알고 있던 정조가,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크게 노한 채 했다. 이에 겁이 난 노인은 임금에게 “제가 상스럽게 여우고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향하는 큰 고개라는 뜻으로 남태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뜻을 가상히 여긴 임금은 그 노인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다고 한다

12. 삼남대로의 종착지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숭례문(崇禮門)에 이른다. 도성(都城)의 4대문과 4소문 중에 남쪽으로 나 있는 정문(正門)으로서 조선 태조 7년에 창건된 숭례문은 1448년(세종 30)에 재건되었다. 당시 재건하려 있던 이유가 『세종실록』 15년 조에 실려 있다.

“경복궁의 오른 팔이 대체로 산세가 낮고 미약하여 멀리 헤벌어지게 트여서 품으로 껴안은 형국이 없으므로 남대문밖에 연못을 파고 문안에 지천사(支天寺)를 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남대문터가 지금같이 낮고 평평한 것은 필시 당초에 그 땅을 낮추어서 평평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제 그 땅을 다시 돌우어서 양편의 산맥(山脈)과 잇닿게 한 다음 그 위에 문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청파역(靑坡驛)에서부터 남산으로 잇닿은 여러 산맥의 봉우리와 흥천사(興天寺) 북쪽의 봉우리에도 소나무를 심어 무성하게 가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임금께서 말씀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좋다고 하였다.

이 송례문 근처에 연못 남지(南池)가 있었다고 하는데 종종 때의 간신인 김안로(金安老)의 집터를 철거한 뒤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남지에 연꽃이 무성하면 남인들이 흥(興)하고, 서대문 밖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모화관(慕華館) 근처에 있었던 서지(西池)의 연꽃이 무성하면 서인들이 흥하며 동지(東池)에 연꽃이 무성하면 동인들이 흥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허미수(許眉叟) 우의정이 되었을 때
남지를 준설하였더니
이번 순조 때 준설이 또한
바로 그 때 그날이라네.
채제공(蔡濟恭)이 다시 우의정 되어
일인지하 영의정에 올랐으니
남대문 밖 저 남지는
남론인(南論人)을 돕는다네.

조선시대 후기에 떠돌았다는 참요다. 이처럼 구전 노래는 남아 있으나 이제 연못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고 그 추정되는 자리에는 자동차들만 줄을 지어 달려갈 뿐이다.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송례문의 현판 글씨를 세종대왕의 큰 형님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했는데, 그 글씨를 특히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천하의 명필이라고 알려져 있는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라고 한다. 그가 과천에서 오고 갈 때면 항상 이 문 앞에서 황홀해하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현판의 글씨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남대문이 밤낮으로 항상 열려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밤이 되면 사대문을 닫고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밤에는 아무리 고관대작

이라 할지라도 성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1796년 1월 24일, 정조가 화성에 능행을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숭례문이 열리지 않아 길가에 어가를 세우는 번고가 일어났다. 그때의 일이 『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상이 돌아오다 만천(蔓川)에 이르러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성문이 먼저 닫혀 있어 어가가 노차(路次)에 머물게 되었으므로, 수궁승지(守宮承旨) 신기(申耜) · 이경운(李庚運), 병조참의 이우진(李羽晉)을 파직하였다. 그런데 옥당의 여러 신하들이 차자를 올려 그들을 찬배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인하여 유도대신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를 파직하였다. … 우의정 윤시동이 차자로 청하기를, “병방 승지 이익운(李益運),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 선상 대장(先廂大將) 서용보(徐龍輔)는 아울러 삭출하고, 수궁대장(守宮大將) 정호인(鄭好仁)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한강을 건넌 뒤에도 밤이 늦으면 용산구에 있던 이태원이나 성동구 사근동에 있던 살곶이원 또는 청과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온성이 650키로라고?

숭례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조흥은행 앞에 전국 도로의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으로 향한다. 함경도 온성이 650km, 청진 531km, 평양 193km, 개성 53km, 진남포 187km, 사리원 151km, 경상도 진주는 직선거리로 380km다.

II. 부산에서 서울까지 영남대로

영남대로는 옛날에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 보러 다니던 길이자,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걸었던 길이었다. 보부상들이 피나리봇짐을 짊어지고 넘었던 길이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기세 좋게 서울을 향해 진격했던 길이 영남대로였다.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였던 영남대로는 서울에서부터 부산의 동래부에 이르는 조선시대 9대 간선로 가운데 하나였다. 960여 리에 달하는 길에 29개의 주요 지선이 이어져 있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동래 부산포에 이르는 도로는 ‘경상충청대로(慶尙忠淸大路)’, ‘경상대로(慶尙大路)’, ‘동남지동래사대로(東南至東來四大路)’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특히 이 도로는 우리나라의 영광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길이며 민족의 대동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대로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각각 5개씩의 군현 그리고 경상도에 58개 군현이 걸쳐 있었다.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다. 부산에서 대구, 문경새재, 충주 용인을 지나는 영남대로 외에도 영천과 안동을 지나 죽령을 넘어 서울로 가던 길이 열닷새 길인 영남좌로(嶺南左路)가 있었고, 김천을 지나 추풍령을 넘어서 가던 길이 열 엿새 길인 영남우로(嶺南右路)였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개를 보러가던 선비들이나 벼슬아치들은 죽령(竹嶺)과 추풍령(秋風嶺)을 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죽령은 죽 미끄러진다는 속설 때문이었고 추풍령은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진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들이 넘었던 고개가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문경(聞慶)의 새재(鳥嶺)였고 영남우로에 실던 사람들은 추풍령 대신 직지사에서 황간으로 넘어가던 패방령(掛榜

嶺)을 넘었다.

지금도 영남우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들들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게 되면 쾌방령을 차로 태워서 넘겨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백 여 년 전 이 땅에 실재했던 영남도로 그 길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4대개 도로의 폭은 넓은 곳이 10m이고 중간 길은 7m, 좁은 길은 3m 쯤이며 길 전체의 노정은 한강과 낙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후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서울~부산 간 신작로의 모체가 되었고 오늘날 교통망의 근간이 되었다. 그밖에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행정통신로의 역할, 영남의 각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이나 생산물을 수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전한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정치·군사상으로도 중요한 교통로였다.

최영준 교수는 『영남대로(嶺南大路)』에서, “임진왜란 후 충주와 상주에 있던 충청, 경상감영이 공주와 대구로 이전하면서 새재의 교통량이 급감하였고 따라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한 바 있다. 왜란 후 고갯길 지키기 전략이 확립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새재만 남겨두고 계림령, 이화령 등 작은 고개와 지방민들이 사용하던 샛길의 통행은 막았다고 한다.

서울의 남대문에서 부산의 동래까지에 이르는 천리 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960리 쯤 된다고 한다)에 자리 잡은 수많은 역원과 주막집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린 애환은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영남대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해남, 제주로 이어진 삼남대로를 비롯해서 모든 옛길이 개항 이후 새롭게 닦여지고 철도가 개설되는 등 변모를 겪었다. 오랜 세월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들이 불과 1백여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라지고 수많은 새로운 길들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신경준의 『산경표』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는 길들이 현대에 접어들면서 국도와 지방도로로 변화되면서 옛 사람들

이 말을 타거나 걸어 다녔던 이 길들이 속도중심의 길로 변형되고 말았다. 그러한 길들이 시속 100km의 자동차를 이용하면 불과 몇 시간 밖에 안 걸리고 시속 300km의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세 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물론 교통이 발달되고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이 시대에 빠른 교통량은 필요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편리라는 이름으로 놓치고 있는 것 또한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한양 밖의 외방도로는 ‘10리마다에 소후(小候)를 세우고 30리마다에 대후(大候)를 세우며 역(驛)을 둔다. 후에는 리수와 지명을 새긴다”고 되어 있는데, 후(候)란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이정표를 세우거나 나무를 심어 리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옛길에는 10리마다 행인이 쉬어가는 정자목이 있거나 원(院)이라는 이름의 여관이 있었는데, 곳에 따라 풍류가 넘치는 정자가 있었다.

역과 역 사이 10리 거리에 참역(站驛)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 참 간다”는 말은 10리 거리를 두고 하는 말이 되었다. 역로가 발달하고 근무자 수요가 늘어나면 5리마다 정자나무를 심어서 이를 오리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 전역에 있는 역간의 거리가 일정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세종실록> 권 93. 23년 9월 계사(癸巳)조에 실린 글을 보자

역간의 거리가 도마다 다른데, 이 사실은 전략상(戰略上)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킵니다. 그러므로 점차 이를 조사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평안도는 사신의 행차가 잦은 지방이니 매 30리마다 도로(道路)를 표시하는 장승(長丞)을 세우고 돈대를 만들고 나무를 한 그루씩 심게 하십시오.

역도의 관리책임은 찰방이 지고 있었는데, 찰방의 소관업무는 역도 안에 분포되어 있 역의 운영,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통솔, 역도의 관리에 한정되었으며, 일반 백성은 모두 수령의 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역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역리는 대개 역 운영을 전담한 이속으

로서 사신영송, 역마보급, 공문서발송 등 잡무에 시달려 천인과 다름 없을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역리는 조선시대 초기에 지배신분층의 분화와 관련하여 향리에서 많이 정속(定屬)하게 되었고, 관군과 더불어 양인신분에 속하였다. 그 외에 역의 노비는 급주노비(急走奴婢)와 전운노비(轉運奴婢)로 구분되어 편성되었는데, 공문서전달, 사신 접대에 따른 일을 돕거나 역에 소속된 토지의 경작에 종사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역참제도 외에 군사적으로 긴박한 상황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공문서를 전달하는 파발제도(擺撥制度)가 있었다. 파발제는 이전까지의 통신제도였던 봉수제(烽燧制)가 임진왜란 당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 대신 나온 제도였다. 전달방법에 따라 보첩(步遞), 급각첩(急脚遞), 마첩(馬遞)로 구분되었는데 인조 때부터는 서울과 동래를 연결하는 남발(南撥) 서울에서 함경도 경흥을 연결하는 북발(北撥) 그리고 서울에서 평안도 의주를 연결하는 서발(西撥)있는데, 서발은 기발(騎撥)이고 남발과 북발은 보발(步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로를 지나는 파발로인 남발(南撥)이 시작되는 동래와 북발이 시작되는 경흥에서는 도성을 향해서 두발로 뛰었으며 명나라로 갈 때는 말을 타고 내 달렸다. 보발은 대개 사람의 걸음에 의지하는 것으로 급주졸(急走卒)이 중간에 휴식도 없이 내달려야만 했다. 그것은 발 빠른 사람이 혼자 뛰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틀 이내에 연락이 가능하였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이 파발로에는 30리마다 참(站)을 두었으며 남발에만 모두 31개의 참이 있었다. 이 때 말로 달리는 기발은 10리마다 참이 있었고 보발은 그보다 세배가 긴 30리마다 참을 두었는데 그것은 말은 빠른 점이 있으나 하루 종일 달리지를 못하므로 계속 바꿔 타야 했기 때문이다.

〈대동지지〉에 실린 파발의 조직망을 보면, 서발은 의주에서 한성까지 1,050리의 직로(直路)에 기발로써 41참을 두었고, 그 밖의 간로(間路)에 보발로써 45참을 두었으며, 북발은 경흥에서 한성까지

2,300리의 직로에 보발로써 64참을 설치하고, 간로에 역시 보발로써 32참을 두었다. 과발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마와 과발군의 확보였다. 일의 완급(緩急)에 따라 방울(懸鈴)을 달았는데, 방울 셋을 달면 3급(急)으로 초비상을 의미하고, 둘은 2급, 하나는 1급을 표시하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驛)은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에 마필을 공급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참(站)은 역로(驛路)에서 거쳐 가다 쉬던 곳이므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 밀양의 가곡동

이 가곡동은 한편의 영화 『밀양』으로 인해 영화사속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이 영화는 소설가 이청준의 원작인 『벌레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이 각색하여 만들었다.

영화 『밀양』은 남편을 잃은 신애(전도연)가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살다가 유괴로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스토리다. 밀양에서 카센터를 하는 종찬(송강호)은 신애 주변을 맴돌며 도와주는 역할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신애라는 이름의 여자가 밀양을 찾았다. 죽은 남편의 고향에서 새 삶을 꾸려보겠다는 욕심에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려 했다. 그런 신애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 시련은 아들이 유괴되었다가 죽고만 것이다. 신애는 하느님에게 귀의(歸依)하지만 신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그녀가 신앙의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려는 순간, 이미 그에선 자신의 용서가 의미 없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녀가 한없이 절망한 그 시간에 그녀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녀를 쫓아다니던 노총각 카센터 사장인 종찬뿐이었다.

신애가 처음 밀양에 왔을 때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묻자 그때 카

센터 김사장이 “우선 한나라당 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 하며 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 하지만 영화의 끝 무렵에 신애의 동생이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다시 묻자 카센터 김사장은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예~” 라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한다.

밀양시청 건너 서편에 있는 ‘서광 카월드’, 가곡동 ‘준 피아노’ 앞 영남루 주변에서 90% 이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창동 감독의 말이다.

밀양(密陽)의 영문 제목은 ‘비밀스런 햇볕’ 또는 ‘은밀한 햇볕’ 으로 풀이 되는데, 이 영화의 끝 부분에 신애의 집 마당에 비친 그 햇볕은 어찌면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숨은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인생 자체 속에 삶의 비밀이 숨어 있다.

영화 『밀양』의 원작자인 이청준은 영화를 보고서 “주인공 신애를 내면 속에 고통을 지니고 삶 속에서 그것을 견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풀어냈다. … 소설에서 여자는 자살을 하지만 영화 속의 여자는 계속 살아간다. 어찌 보면 죽음보다 삶을 받아들이는 게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그 뒷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다”고 말했으며, 감독 이창동은 “비극적 상황에 빠진 여자의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적 의미를 묻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 영화는 “종교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영화”라고 하였다.

2. 조선의 3대 누정인 영남루

밀양강변에 자리 잡은 영남루(嶺南樓)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의 객사 부속 건물로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손님을 접대하거나 주변 경치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던 건물이다. 현재 영남루의 자리는 본래 신라시대의 사찰인 영남사(嶺南寺)의 종각, 즉 금벽루(金壁樓)가 있었던 곳이다. 고려시대에 절은 없어지고 누각만 남아 있는 것을 1365년(공민왕 14)에 누각을 새로 짓고 절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영남루 또한 처음 지어진 후 여러 차

래의 소실과 재건을 거듭하였는데, 1460년(세조 6)에 중수하면서 규모를 크게 키웠고 그 후 소실되었다가 1844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도는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영남대로의 중요한 길목이었고 그 길목을 지키던 곳이 납닥바우였다.

3. 청도읍의 납닥바우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일부분이 남아 있는 납닥바우는 조선시대 부산 동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한양에서 대구를 거쳐 내려오던 길손들이 쉬어갔던 곳으로, 60여 명이 눕거나 앉아 쉴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한 식판모양의 큰 바위였다. 옛날에 과거 보러 서울로 가는 청도 아래쪽의 영남지방 선비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청도 납닥바우에서 쉬어가야 운수가 좋다는 말까지 생겨났을 만큼 이 바위는 몇 백년에 걸쳐서 지친 길손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할 때 쪼개져 버려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다만 그 표지판만 남아 있다.

이 바위는 영남대로상의 명승지로 대구에서 반나절, 밀양에서 반나절이 걸리는 곳에 위치하여, 약속장소와 쉼터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철길이 놓이기 전에 영남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는 대체로 청도를 거쳐서 가는 두 번째 열나홀 길을 택하였다. 새벽밥 먹고 대구나 밀양에서 길을 떠나면 점심을 먹을 무렵에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납닥바위에 도착했다. 납닥바위는 지금의 청도역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철도신호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바위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마루처럼 넓적하였고 바로 옆에는 늙은 소나무가 우거져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바위의 뒤편으로는 벼랑이 있었고 그 아래로 청도천의 맑은 물이 휘돌며 흘러갔다고 한다. 한양으로 공물을 나르던 동래부와 밀양부의 역인들과 길손들이 땀을 식히고 점심을 먹은 뒤 이곳에서 길이 엇갈리는 작별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4. 번성했던 낙동나루

옛 시절 이곳에 있던 낙동나루는 관수루나루터라고도 불렀는데, 이 나루는 영남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용무를 보러 가거나 과거를 보러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 중의 하나였다. 경산·영주·영천·대구 등지에 사는 사람들은 상주를 거친 후 충청도 영동으로 빠지거나 문경새재를 넘어 괴산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고, 상주로 가려면 반드시 낙동나루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5. 문경새재는 웬 고개인 고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새재와 죽령만을 큰 고개라 하고 나머지는 작은 고개라 했는데, 그것은 고개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라든가 도로의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붙인 명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두 다 큰 고개임은 사실이다. ‘새재’라는 이름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 만큼 험한 고개라고 하여 그렇게 붙여졌다고도 하고, 역새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큰길이었던 하늘재를 대신하여 문경새재를 개척한 것은 조선 태종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77년에 ‘새재발굴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 조령관 터에서 신라시대의 토기 종류가 많이 출토되었으며 또한 객관 형태의 건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이 고갯길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뚫려 있었고 사람들이 물물교환을 하거나 묵어가기도 했던 객관, 즉 원(院)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아마 신라시대 때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좁은 길이었던지도 모른다.

6. 남대문에 도착하다.

조선시대의 전국 도로망의 기점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이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숭례문(남대문)과 홍인문(동대문)이 기준이

되곤 했다.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은 1398년에 도성의 정문으로 준공되었는데, 지금의 부산인 동래에서 출발한 길손이 걸어서 여기까지 당도하는 데는 보통 보름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나의 모든 희망은 내 안에 있다”고 한 테렌티우스의 말처럼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격려하고 채찍질해준 사람은 오직 나 스스로였다.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부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인파 속을 헤집고 나갈 때만큼 쓸쓸한 고독을 느끼는 경우는 없다”고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에서 말했지만, 나는 그 멀고도 먼 길을 혼자 힘으로 걸어왔다. 네 명이서 함께 걸어오기는 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저마다 가슴 속에 슬픔과 외로움, 고독을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목숨을 담보한 채 결국 혼자서 타박타박 걸어왔던 것이다.

개발지상국(開發至上國)인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순전히 ‘운’이라는 말이 있다. 느닷없이 산사태가 나거나 지하철 공사장이 무너져서 땅 밑에 매몰되지를 앓나, 두부가 잘려나가 듯 다리가 무너져 내려 추락사 당하지를 앓나, 게다가 쇼핑 도중 멀쩡해 보이던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방도나 국도를 막론하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국도를 걸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도나 국도 전체가 넓은 도살장으로 변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 고양이, 너구리, 토끼, 새 등 온갖 짐승들이 길 위에서 비명횡사를 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들, 특히 화물차들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모자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몸도 휘청거린다.

이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와 함께 한 길들을 지금이라도 되찾고 보존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길들, 즉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경준(申景濬)의 『산경표』,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대동여지도』에 나타나 있는 몇 개의 중요한 길옆에다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특히 흙으로 된 길을 설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외국에서도 옛길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로마의 길들과 일본 에도시대의 길들이고 스페인의 순례자들이 걷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길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그 길을 역사와 함께하는 길, 문화와 함께하는 길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III. 대관령 넘어 가는 관동대로

이미 나선 길, 내가 가야하고 종착지에 닿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의 길, 관동대로가 〈동국여지비고〉 제 2권에 서울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 이르던 9대로 중의 제 3로로 기록되어 있다.

서북(西北)으로 의주(義州)에 가는 것이 제 1로가 된다. 홍제원(弘濟院)과 양철평(梁鐵坪)을 경유한다. 동북으로 경흥부(慶興府) 서수라진(西水羅津)에 가는 것이 제 2로다. 흥인문(興仁門)과 수유치(水踰峙)를 경유한다. 동으로 평해군(平海郡)에 가는 것이 제 3로가 된다. 흥인문과 중량포(中梁浦)를 경유한다. 동남으로 동래부. 부산진으로 가는 것이 제 4로가 된다. 송례문과 한강진(漢江津)을 경유한다. 남으로 고성현(固城縣)과 통제사영에 가는 것이 제 5.6로가 된다. 두 길로 나뉘는데, 한강진을 경유하는 것이 제 5로가 되고, 노량진을 경

유하는 것이 제 6로가 된다. 남으로 제주로 가는 것이 제 7로가 된다. 노량진을 경유한다. 서남으로 보령현(保寧縣) 수군절도사영에 가는 것이 제 8로가 된다. 노량진을 경유한다. 서쪽으로 강화부로 가는 것이 제 9로가 된다. 양화진(楊花津)을 경유한다.

〈동국여지비고〉를 보면 경흥의 서수라로 가는 제 2로와 평해로 가는 제 3만이 이곳 동대문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를 거쳐 가야할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눌 수 있다. 산수자연이 빼어난 곳 영동지방에는 예로부터 바닷가 곳곳의 경치 좋은 곳에 정자와 누각들이 많았고 원주와 춘천지방을 아우르는 영서지방은 생산물이 풍부해서 사람 살기에 적당했다.

2009 제 8기 박물관아카데미 전주학시민강좌

전주의 땅과 인간

초판 인쇄 / 2009년 8월 28일

초판 발행 / 2009년 8월 29일

유통처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tel. (063) 228-6485~6

fax. (063) 228-6484

www.jeonjumuseum.org

제작 / 홍디자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916-6번지

tel. (063) 241-8082

fax. (063) 241-8083

비매품